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코치-선수관계와 운동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제주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 병 훈

2011년 2월

# 코치-선수관계와 운동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指導教授 任 尙 鎔

朴 炳 勳

이 論文을 體育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朴炳勳의 體育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年 12月

Examination of how self-regulative motivation have th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of coach-athlete relationship, and athletic satisfaction.

Byung-Hun, Park  
(Supervised by professor Sang-Yong, Ihm)

A dissertation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ysical Education

2010. 12.

This dissertation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Myung-Hwan, Yang, Prof. of Physical Education  
.....  
.....  
.....  
.....

.....  
Dat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제목 차례>

<b>I. 서론</b> .....	1
1. 문제의 제기.....	1
2. 용어의 정의.....	6
<b>II. 이론적 배경</b> .....	7
1. 자기결정 이론.....	7
2. 사회 환경적 요인.....	17
3. 운동만족.....	27
4. 선행연구의 고찰.....	30
<b>III. 연구 1: 코치-선수관계척도의 타당화 검증</b> .....	40
1. 문제제기.....	40
1) 연구목적.....	40
2) 연구모형.....	41
3) 연구문제 및 가설.....	42
2. 연구방법.....	43
1) 연구대상.....	43
2) 측정도구.....	43
3) 연구절차.....	46
4) 자료분석.....	47
3. 연구결과.....	48
1) 확인적 요인분석.....	48
2) 코치-선수관계척도의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50
3)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동일성 검증.....	50
4) 잠재평균 분석(LMA: latent mean analysis).....	52
5) 코치-선수관계의 준거 타당도.....	53
4. 논의.....	57

<b>IV. 연구 2: 사회 환경적요인과 운동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b> .....	61
1. 연구목적 및 연구모형.....	61
1) 연구목적.....	61
2) 연구의 모형.....	62
3) 연구가설.....	65
2. 연구방법.....	66
1) 연구대상.....	66
2) 측정도구.....	66
3) 연구절차.....	71
4) 자료분석.....	71
3. 연구결과.....	73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분포특성.....	73
2)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	75
3) 구조모형검증.....	76
4. 논의.....	80
<b>V. 종합논의</b> .....	84
<b>VI. 결론</b> .....	88
<b>참고문헌</b> .....	89
<b>부록</b> .....	108

## <표 차례>

표 1. 자율성 지지 중재자의 예시 .....	20
표 2. 결과와 과정에 기초한 운동만족 차원분류 .....	29
표 3. 설문지의 주요구성 내용 .....	43
표 4. 코치-선수관계의 기술통계량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	45
표 5. 코치-선수관계척도의 적합도 지수 .....	48
표 6. 측정모형에 대한 경로 추정치 결과 .....	49
표 7. 운동유형에 따른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	50
표 8.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동일성 검증 결과 .....	50
표 9. 동일성 검정에 대한 카이제곱 차이 검증 결과 .....	51
표 10. 효과크기와 통합표준편차 공식 .....	53
표 11. 운동유형별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잠재평균 비교 .....	53
표 12. 코치-선수관계, 자율적 동기,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간의 상관관계 .....	54
표 13. 코치-선수관계, 자율적 동기, 몰입,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에 미치는 영향 .....	56
표 14. 설문지의 주요구성 내용 .....	66
표 15. 코치-선수관계의 기술통계량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	68
표 16. 자기조절 동기의 기술통계량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	69
표 17. 운동만족의 기술통계량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	70
표 18.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	71
표 19.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분포특성 .....	73
표 20. 측정모형에 대한 경로 추정치 결과 .....	74
표 21. 전체 측정변인들의 적합도 지수 .....	75
표 22.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	76
표 2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	76
표 24. 완전매개모형의 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 잠재변인들의 경로계수 .....	77
표 25. 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간의 인과효과 .....	79

## <그림 차례>

그림 1. 조절양식, 인과소재 관련 조절과정을 나타내는 자기결정 연속.....	13
그림 2. 코치-선수관계의 통합된 연구모형.....	25
그림 3. 지각된 자율성 지지, 자기조절 동기 및 의도간의 경로도형.....	32
그림 4. 자율성 지지, 운동동기 및 행동의도간의 관계분석.....	32
그림 5. 코치자율성 지지, 심리적 욕구만족과 자기결정 동기 및 정서결과간의 경로도형.....	33
그림 6. 욕구지지, 욕구만족, 동기 및 결과변인간의 관계.....	34
그림 7. 코치의 대인간 행동, 선수의 동기 및 지속성간의 관계모형.....	34
그림 8. 코치-선수관계, 내적동기 및 만족도 관계에 대한 예측타당도 경로도형.....	35
그림 9. 자율성 지지, 심리적 욕구, 동기 및 심리적 웰빙변인간의 경로도형.....	36
그림 10. 코칭행동, 심리적 욕구, 운동동기간의 경로도형.....	37
그림 11. 자율적 지각수준, 내면화된 동기, 수행목표, 행동의도간의 경로모형.....	37
그림 12. 코치감정, 코치지지행동, 선수-코치관계, 만족간의 관계.....	38
그림 13. 코치지지행동, 동기성향, 동기, 심리적 웰빙간의 관계.....	38
그림 14. 자율적 지지, 자율적 동기, 지각된 유능감, 심리적 고통, 규칙간의 관계.....	39
그림 15. 자율적 지지와 자기조절 동기간의 관계.....	39
그림 16. 연구 1의 모형.....	41
그림 17. 코치-선수관계 측정모형의 경로도형.....	48
그림 18. 연구 2의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63
그림 19. 연구 2의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	64
그림 20. 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의 경로도형(완전매개모형).....	78

## ABSTRACT

Examination of how self-regulative motivation have th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of coach-athlete relationship, and athletic satisfaction.

Byung-Hun, Park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Directed Prof, Sang-Yong, Ihm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coach-athlete relationship scale at sport circumstances and examine the model of social environmental factor, self-regulatory motivation and exercise satisfaction(performance result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through the two sequential studies(1, 2).

The purpose of the study 1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suitable using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scale according to the mode of exercise(individual events, team events). I demonstrated that this validity could apply equally to the mode of exercise(individual events, team events) through the 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roved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by looking at relationship between the four kinds of extraneous variable(autonomous motivation, immersion, intent of exercise adherence, athletic satisfaction).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is, Closeness, Co-orientation, and Complementarity which were the lower ranked factors of the coach-athletes relationship scale shar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utonomous motivation, immersion, intent of exercise adherence and athletic satisfaction.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find the influence, Closeness, Co-orientation, and Complementarity which were the lower ranked factors of the coach-athletes relationship scale showed direct impact on the positive correlation with autonomous motivation, immersion, intent of exercise adherence and exercise satisfaction.

Study 2 examined how self-regulative motivation has th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of coach-athlete relationship and athletic satisfaction. Closeness, Co-orientation, and Complementarity which were the lower ranked factors of the coach-athletes relationship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atisfaction of task performance, coach leadership, and social interaction which were the lower ranked factors of the intrinsic regulation, identified regulation and athletic satisfaction, and Closeness, Co-orientation, and Complementarity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extrinsic regulation. Extrinsic regulation also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atisfaction of task performance, coach leadership, and social interaction which were the lower ranked factors of the athletic satisfaction.

The result of an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showed that Closeness, Co-orientation, and Complementarity which were the lower ranked factors of the coach-athletes relationship had a significant positive direct effects on the intrinsic regulation and identified regulation; the intrinsic regulation and identified regulation had significant positive direct effects on the satisfaction of task performance, coach leadership, and social interaction which were the lower ranked factors of the athletic satisfaction; extrinsic regulation had significant negative direct effects on the satisfaction of task performance only. Closeness, Co-orientation, and Complementarity which were the lower ranked factors of the coach-athletes relationship had significant positive indirect effects on the satisfaction of task performance, coach leadership, and social interaction which were the lower ranked factors of the athletic satisfaction through the intrinsic regulation and identified regulation. Also, Co-orientation had significant negative direct effects on the satisfaction of task performance through the extrinsic regulation.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최근에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코치와 운동선수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코치-선수관계를 다룬 연구는 개인 간의 관계 수준이 운동선수와 코치들의 개인적 경험과 운동수행에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해오고 있다(Amorose & Horn, 2000; Eys, Loughead, & Hardy, 2007; Jowett & Cockerill, 2003; Philippe & Seiler, 2006; Poczwadowski, Barott, & Jowett, 2006). 특히, 운동선수와 코치는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수행과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들의 관계는 선수들의 훈련과정과 수행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Coakley, 1990). 그리고 스포츠 현장에서도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행동과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들은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김덕진, 양명환, 2009). 예컨대, Vazou, Ntoumanis 및 Duda(2006)의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행동에 의하여 지각된 동기 분위기가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최근에 Bartholomew, Ntoumanis, 및 Thogersen-Ntoumani(2010)는 코치의 행동과 대인간 유형이 선수들의 수행뿐만 아니라 스포츠 참여로부터 파생되는 심리적 경험을 조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코치-선수관계와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Westre와 Weiss(1991)는 사회적 환경요인인 코치의 지지행동은 선수들의 개인 성공에 대한 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훈련과 지시행동, 민주적 지도, 그리고 긍정적 피드백 등은 팀의 수행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선수와 지도자 상호간의 관계와 관련되며, 선수에게 직접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리더십,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등의 사회 환경적 요인들은 선수 개개인의 만족뿐만 아니라 경기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lladurai, 1984). 이러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은 스포츠 경쟁 상황에서 코치의 행동과 코치-선수관계가 선수의 만족과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다차원 리더십모형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모형에서도 지도자의 행동을 일으키는 선행요건으로 상황적 특성, 지도자의 특성, 구성원의 특성을 들고 있다. 지도자의 행동이 상황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구된 행동(required behavior), 지도자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제 행동(actual behavior), 상황적 특성과 구성원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선호된 행동(preferred behavior)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도자의 행동유형은 구성원의 동기유발, 지도의 유효성에도 많은 영향

을 미치며, 특히 경쟁적인 상황에서 선수들의 동기는 정서 및 미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Chelladurai와 Carron, 1978).

스포츠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에서 접근한 연구들 중에서 리더십 유형(변혁적 리더십)과 결과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코치의 리더십 유형은 운동선수에게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만족수준을 향상시켜 지도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영래, 원영신, 이경훈, 2006; 최영욱, 김윤태, 김진표, 2001). 또한, Roberts, (1992)는 선수들은 스포츠 경쟁상황 내에서 사회 환경적 요인(예, 부모, 교사, 코치, 코치-선수 관계 등)들에 대한 선수들의 다양한 행동 반응을 제시하면서 코치와 동료들을 포함하는 동기적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동기의 상승은 경기력과 이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만족감의 향상을 의미하여, 동기의 향상을 위하여 코치-선수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수들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코치는 선수와 팀의 능력을 경기장에서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과 시합을 전개하고 지도하며, 선수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코치와 선수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 코치-선수관계의 영향은 선수의 능력 향상을 결정하며, 선수들은 이러한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 운동만족, 팀 수행만족, 개인수행만족에 영향을 미친다(정우학, 2004; 박미경, 2008; 이명원, 2010; 김경진, 2010; Chelladurai, 1984; Horne & Carron, 1985; Weiss & Friedrich, 1986; Dwyer & Fischer, 1990; McMillin, 1990).

따라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사회 환경적 요인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 동기가 어떠한 매개 효과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과제는 많은 코치, 감독, 교사 지도자 및 학자들로 하여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사회 환경적 요인(부모, 교사, 코치, 코치-선수관계 등)과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 바로 자기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이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자율성 지지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결과변인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tandage, Gillison, & Treasure, 2007). 또한 자율성 지지와 행동결과변인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동기를 결정하는 선행 조건 또는 사회적 환경 내에서 동기를 매개 변인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자기조절 동기의 하위요인 중 내재적 조절과 확인적 조절은 결과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적 조절은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Standage, Gillison, & Treasure, 2007). 이러한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Standage, Gillison, & Treasure(2007)는 사회적 환경→심리적 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동기(내재적 동기, 통합적 조절, 확인적 조절, 내압적 조절, 외적 조절, 무동기)→결과(웰빙, 정서,

인지, 행동)간의 관계를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안하는 통합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모형은 사회적 맥락뿐만 아니라 동기과정과 동기결과와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유용한 틀이 될 것이다.

자기결정이론에서 파생된 이론적 예언들은 운동과 스포츠 맥락에서 중요타자들에 의해 생성된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동기를 지지하고 방해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김덕진, 양명환, 2006). 지금까지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맥락은 자율성 지지(autonomy)이다. 이러한 자율성 지지는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조절과 같은 자기결정적 동기뿐만 아니라 심리적 성장과 웰빙 등의 결과변인을 촉진한다고 제안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심리적 욕구가 지지받는 환경에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조절의 내면화 통합을 촉진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으며(Deci, Eghrari, Patrick & Leone, 1994; Williams & Deci, 1996), 다양한 심리적 웰빙(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주관적 활력, 자아존중감 등)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Gagne, Ryan, & Bargmann, 2003; Standage, Duda, & Ntoumanis, 2003; wilson & Rodgers, 2002).

운동과 스포츠 맥락에서 여러 연구자들은(Hagger, Chatzisaantis, Barkoukis, Wang & Noumanisl, 2005; Hagger, Chatzisarantis, Culvrhouse, & Biddle, 2003)은 자율성 지지 환경이 자기결정적 형태와 긍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Hagger, Culverhouse, Chatzisarantis, & Biddle(2003)은 체육수업에서 자율성 지지의 지각이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조절과 같은 자기결정성 동기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율성 지지는 자기결정 동기의 긍정적인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Deci와 Ryan(2008)에 의하면, 코치의 자율성 지지는 높은 수준의 내적동기와 지속적인 행동변화, 유능성 지각, 신뢰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은 체육교사 및 코치의 행동이 학생이나 선수들의 심리적 욕구와 자율적 동기, 그리고 행동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Amorose & Anderson-Butcher, 2007; Hagger, Culverhouse, Chatzisarantis, & Biddle, 2003).

스포츠와 운동맥락(Blanchard & Vallerand, 1996; Briere, Vallerand, Blais, & Pelletier, 1995)에서 내재적 동기들과 확인적, 통합적 조절들은 외적조절 동기나 무동기들보다 행동 지속성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 환경적 요인(예, 자율성 지지, 부모, 배우자, 교사, 친구, 코치-선수관계, 동료 등)→동기유형→동기결과(결과)간에는 인과적 연쇄관계가 있다고 제안한다(Vallerand & Fortier, 1998; Wilson, Rodgers & Fraser, 2002). 이러한 스포츠와 운동맥락에서 자기결정성이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과 상관성이 있다고 가정하면서

Vallerand(1997)는 상이한 유형의 동기들이 질적으로 상이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기결정성 동기가 강하면 긍정적인 결과도 강화되는 일치성을 기대할 수 있고, 반면, 자기결정 동기가 약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많아지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Vlachopoulos, Karageorghis & Terry(2000)는 자기결정성과 비자기결정성 동기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집단이 자기결정성 동기 특성만을 갖고 있는 집단들에 비하여 즐거움, 노력, 긍정적, 부정적 정서가 높고,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강하고 장기적으로 참여를 지속할 자기결정 의도가 더 강하고 높았으며,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볼 때, 스포츠 환경에서도 자기결정이론에서 가정하는 동기 프로파일과 사회 환경적 요인(부모, 교사, 코치, 코치-선수관계 등) 및 동기결과(결과)간의 관계가 입증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지도자의 코칭 행동 중에서 훈련과 지시, 사회적 행동 및 긍정적 보상행동은 운동선수의 과제수행 만족에 영향을 주고(김사업, 김영귀, 2000; 문윤제, 2003; 최성희, 김승철, 2005), 훈련과 지시 및 긍정적 피드백 행동은 응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지혜, 200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코치와 운동선수간의 관계는 선수들의 인지적, 사회 심리적 측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요 연구들은 연습과 시합 상황에서 코치들이 보이는 상황적, 심리적 행동 특성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 연구(박정근, 2003; 성장훈, 홍준희, 최은규, 2004)를 포함하여 리더십 유형이나 행동적 특성이 선수들의 수행과 동기, 정서적 반응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내·외의(성장훈, 1999; 유승원, 2006; 이석준, 2009, 김미선, 2009, 양명환, 김덕진, 2010; 김덕진, 2010; Lim, Wang, 2009; Standage, Duda, & Ntoumanis, 2005; Alvarez, Balaguer, Castillo, Duda, 2009)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동기와 동기 결과변인(예, 운동수행, 수행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사회 환경적 요인을 다루고 있으나,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적 요인과 운동만족간의 관계를 지지하는 자기조절 동기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코칭행동, 리더십, 자율성 지지는 동기와 운동만족에 긍정적인 영향력 입증하였다(최영래, 원영신, 이경훈, 2006; 최영옥, 김윤태, 김진표, 2001; Hagger, Chatzisaantis, Barkoukis, Wang & Ntoumanis, 2005; Hagger, Culvrhouse, Chatzisarantis, & Biddle, 2003; Deci & Ryan, 2008). 하지만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의 선행변인들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만(Balagur, Duda, Atienza, Mayo, 2002; Eys, Loughhead, & Hardy, 2007; Sullivan & Gee, 2007) 선수들의 만족이 코칭 행동, 코치-선수의 융화,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선수가 코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만족할수록 수행향상과 팀의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Fraser-Thomas, Cote, & Deakin, 2008; Philippe & Seiler, 2006), 친사회적 성향 (Rutten, Dekovic, Stams, Schulengel, Hoeksma, & Biesta, 2008), 팀 응집력과 원활한 의사소통(Loughead & Carron, 2004; Shorts, 2005)정직성, 존중, 수용, 협동 등의 대인관계 의사소통과 성과 그리고 그룹성과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을 뿐 아직까지도 Jowett(2005)가 통합된 모형에서 제시한 감정(친근감, 헌신, 상보성)과 성과(만족, 긍정적 영향, 스포츠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코치-선수관계와 동기 및 운동만족간의 관계가 존재함에도 통합 모형의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스포츠 맥락에서 사회 환경적 요인(코치-선수관계)과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관계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타당화 검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지금까지 코치-선수관계의 측정은 Jowett와 Ntmoumanis(2004)의해 코치-운동선수의 관계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포츠 영역에서도 일부 연구자들은 문항 수정 후 상황만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은 코치-선수관계와 유사한 구인이나 문항을 발췌해서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도 없이 코치-선수관계를 측정하는 점에서 다소 논쟁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김기형, 박중길(2008)은 Jowett와 Ntmoumanis(2004)의 코치-운동선수관계의 척도를 변안하여 국내 운동선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코치-운동선수관계 척도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단체종목의 선수들만 대상으로 하였고, 타당도 검증 역시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단체종목과 개인종목의 선수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코치-선수관계 척도를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선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코치-선수관계척도의 타당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코치-선수관계→자기조절 동기→운동만족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자기결정이론에 제안하는 통합적 모형을 부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2. 용어의 정의

### 1) 코치-선수관계

코치-선수관계는 친근감, 헌신, 상보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근감은 코치-선수 관계에서 상호존중에 대하여 갖는 신뢰, 좋아함, 헌신은 코치와 선수가 상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말하며 상보성은 특히 훈련 중에 팀워크와 협력을 촉진시키는 코치와 선수의 상호작용을 말한다(Jowett & Ntoumanis, 2004).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이 코치 지각수준을 측정하여 개별 요인의 측정값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코치-선수관계로 정의하였다.

### 2) 자기조절 동기

자기조절 동기는 행동을 촉발시키고 유지 및 지속시키는 내적인 원동력으로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자기결정 연속체를 따라 상이한 동기 유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 영역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안하는 스포츠 동기 분류체계인 내재적 조절, 통합적 조절, 확인적 조절, 내압적 조절, 외적 조절의 6가지 유형 중 내재적 조절, 확인적 조절, 외적 조절의 3가지 유형의 측정값을 자기조절 동기로 정의하였다.

### 3) 운동만족

운동만족은 일반적으로 마음이 흡족한 것을 의미하는 심리적 개념인데 선수들의 수행만족은 다른 만족과 마찬가지로 인지적, 감정적, 정서적 반응이다. 대체로 선수들의 운동만족, 수행만족을 운동만족과 유사한 개념이며(김경수, 1989), 본 연구에서는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의 3가지 유형의 측정값을 운동만족으로 정의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기결정 이론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의 근원이 개인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내재적 동기와 외부에서 오는 자극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된다는 외재적 동기의 관계는 학자들에 따라 상보적인 관계 또는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이 양분되어 있다.

초기의 동기 이론가들은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가 부가적이라 가정하였다. 즉, 외적 보상이 많을수록 활동에 대한 개인의 전체적 동기는 증가하고 적을수록 동기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실험실 연구 결과들과 경험적 증거들은 이러한 가정에 회의를 표명하였다(유진, 1997). 내재적 동기 분야에서 선수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Deci와 Ryan(1985)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경계가 분명하다는 기존의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1985, 2002)은 개인의 행동조절(behavioral regulation)유형을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적 기능을 나타내는 정도로 구분을 하면서 각각의 특정 현상과 관련 있는 4가지의 하위 이론(sub theory), 즉,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CET), 유기체 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OIT), 인과성향이론(causality orientations theory; COT), 기본욕구이론(basic needs theory; BNT)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지난 30여년간 서서히 발전되어 왔다.

#### 1) 인지평가 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들은 본질적으로 행동 그 자체의 고유한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이루어지는 자극을 일컫는다. 내재적 동기는 자기결정적 활동의 원형을 나타낸다. 즉, 내재적으로 동기화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유롭게 활동에 참여하고 즐거움과 흥미로운 경험에 의해 그 활동을 유지하고 지속하게 된다(Ryan & Deci, 2007). 그러나 활동에 대한 참여와 수행이 돈, 트로피, 등급 등이 외적인 보상에 의해 조절되어 활동 참여와 수행이 저하된다면 외적으로 동기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Deci(1975)는 귀인론을 바탕으로 내재적 동기에 대한 외적 요인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CET)을 주장하였다. 이 이론은 내재적 동기의 가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구체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특히 내재적 동기의 감소와 증가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인

지평가이론은 자율성과 유능성의 경험이 내재적 동기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제안한다(Ryan & Deci, 2007). 인지평가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신의 행동을 외적 동인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지각할 때, 인과 소재 지각이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한다(Deci, 1975). 인과성 소재(locus of causality)의 개념은 행동을 시작하고 조절하는 개인적 경험을 말한다(deCharms, 1968; Heider, 1958, Pelletier, Fortier, Vallerand, & Briere, 2001 인용). 개인들은 내적으로 인과소재를 경험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기결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으로 지각한다. 반면에 인과 소재를 외적인 것으로 지각하면, 외적요인이 행동을 주도한다는 귀인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인과소재의 지각이 내적에서 외적으로 변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활동 자체를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외적인 이유 때문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활동에 대한 자율성 의식을 저해함으로써 결국 자기결정 유형의 조절(예,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조절 등)을 감소시키고, 비자기결정 유형의 조절(예, 내압적 조절, 외적 조절 및 무동기)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인과소재를 내적으로 지각하도록 촉진하는 사건들은 자율성을 높여주고 그로 인해 자기결정성 행동도 증가하게 된다(Pelletier, Fortier, Vallerand, Briere, 2001; Ryan & Deci, 2007). 이러한 현상을 통제적 양상(controlling aspect)이라 부른다.

외적보상이 내재적 동기에 미치는 또 하나의 관점은 개인의 유능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 또는 지각에 의해 이루어진다. 외적 보상이 수행에 대한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그 보상이 긍정적으로 유능성에 대한 정보적 자원의 역할을 한다면, 내재적 동기는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운동수행 중 최우수 선수에게 보상이 주어질 때, 이 보상이 유능성 정보의 역할을 해서 내재적 동기가 증가하지만 수행 중인 선수에게 부여된 부정적 보상(예, 꾸중, 처벌 등)은 무능성과 관련되어 미래수행에 참여하려는 내재적 동기가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정보적 양상(informational aspect)이라고 부른다(Deci, & Ryan, 2002).

특히, 유능성을 촉진하는 사회적-맥락적 사건들(예 피드백, 의사소통, 보상)은 활동 참여와 수행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킨다. 그로 인해 과제 도전, 피드백 촉진 등은 모두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초기의 현장 연구들은 긍정적인 수행 피드백이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키는 반면(Deci, 1971; Harackiewicz, 1979), 부정적인 수행 피드백은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킨다(Deci & Cascio, 1972)고 주장하였다(Ryan & Deci, 2002 재인용).

인지평가이론은 더욱 체계화되었고, 일부 연구자들은(Fisher, 1978; Ryan, 1982)은 유능성이 자율성을 수반하지 않거나 귀인이론의 관점에서 내적인 인과소재 지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Vallerand와 Reid(1984)의 연구는 이러한 효과들이 지각된 유능성에 따라 매개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다른 연구자들은 지각된 유능성이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려면 자율성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가설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Ryan, 1982). 따라서 사람들이 유능성 또는 효능감을 경험하고, 그러한 행동이 내재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자기결정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자율성과 유능성에 대한 맥락적인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Ryan & Deci, 2000).

사실 내재적 동기 연구에서 환경적 사건들의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능성보다 자율성 대 통제성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었다. 외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논쟁이 되어 왔다. 최근의 메타분석(Deci, Koestner, & Ryan, 1999)은 실질적으로 과제수행의 유관성을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보상은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또한, 보상 뿐만 아니라 위협, 마감시한, 지시, 억압적 평가, 부과된 목표 및 경쟁 압력 등도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Ryan & Deci, 2000, 2002). Deci(1975)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더 외적인 인과소재 지각을 촉진하는 보상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즉, 모든 유형의 외적인 조건들은 인과소재를 외적으로 지각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Fortier, Vallerand, Briere 및 Provencher(1995)는 스포츠와 운동맥락에서 인지평가이론의 전제들을 검증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동기유형에 대하여 경쟁적 선수들과 위락적 경기 참여자들 간에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쟁적 선수들은 위락적 참여자들보다 낮은 수준의 내재적 동기, 높은 수준의 확인적 조절 및 무동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ortier 등(1995)은 경쟁 환경이 내재적 동기에 해로운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인지평가이론의 가설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경쟁적인 선수들은 승패의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통제된 환경을 조장하고, 인과성 소재를 외적으로 지각하도록 촉진한다. 이러한, 해석과 일치하는 결과들은 초보테니스 선수들을 대상으로 Kavussanu와 Robert(1996)의 연구에서 발견된다.

내재적 동기에서 자율성 대 통제성의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많은 현장 연구들은 자율성을 지지하는 교사들이 통제적 교사에 비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내재적 동기를 유발시키고, 호기심과 도전욕망을 촉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Deci, Nezek, & Sheinman, 1981; Flink, Boggiano, & Barrett, 1990; Ryan & Grolnick, 1986). 반면에 통제적인 접근을 받은 학생들은 창조적인 학습을 요구할 때 주도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학습 효율성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mabile, 1982; Grolnick & Ryan, 1987; Utman, 1997). 이러한 사실들은 신체활동과 건강맥락(Black & Weiss, 1992; Gouds, Fox, Biddle, &

Underwood, 1995)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요약하면, 인지평가이론의 개념적 틀은 사회적 환경들이 자율성과 유능성 욕구를 지지하거나 방해하느냐에 따라 내재적 동기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자율성과 유능성 만족은 내재적 동기가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자율성과 유능성 만족과 내재적 동기간의 강한 인과관계는 명확히 입증되었고, 최근에 관계성 욕구만족도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내재적 동기가 개인의 내적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 즉, 개인에게 호기심이 가득하고 도전적이고 미학적인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활동들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매력적인 활동이 아니라면 인지평가이론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이유는 고유한 흥미를 경험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재적 동기의 특성과 역동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yan & Deci, 2000).

## 2) 유기체통합이론(causality orientations theory)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지평가이론(CET)은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들에 대해 사회적-맥락적 변인들의 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유기체통합이론(OIT; Deci & Ryan, 1985; Ryan & Connell, 1989)은 상이한 유형의 외재적 동기와 이러한 행동조절의 내면화와 통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맥락적 요인들을 다룬다. 이 이론에서는 자기결정성이나 자율성은 내재적 동기의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내재적 동기만이 자기결정 동기의 유일한 유형이 아니며,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이 전적으로 내재적으로 동기 유발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내재적으로 흥미가 없는 과제들을 완수할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욕구와 역할 때문에 내재적으로 동기화될 수 있는 자유가 점점 줄어들어 가는 시점인 초기 아동기 이후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Ryan & Deci, 2000).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는 활동이 어떤 별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질 때 언제든지 관련되는 구인이다. 따라서 외재적 동기는 도구적 가치보다는 단순히 활동 그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내재적 동기와는 대비된다. 그러나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을 항상 비 자율적 유형의 동기로 간주하는 몇몇 전망과는 달리 자기결정으로 동기화된 행동을 항상 비 자율적 유형의 동기로 간주하는 몇몇 전망과는 달리 자기결정이론에서 외재적 동기가 자율성 정도에 있어 상당히 가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yan & Deci, 2000). 예를 들면, 운동 선수가 코치의 꾸중이나 처벌이 두려워서 훈련을 한다면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것이

다. 이것은 처벌 회피라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선수가 대학진학이나 직업 선택(예, 프로선수)을 할 때 운동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도 외재적으로 동기유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운동 그 자체가 흥미가 있고 즐겁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도구적 가치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도구적 가치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재적으로 동기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예가 모두 의도적인 도구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상대적인 자율성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있다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에 가치를 의미 있게 부여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방식, 그리고 외적인 압력이 없이 스스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기결정 이론 내에서 가치의 내면화와 통합 그리고 행동조절을 어떻게 조성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설명한다(Ryan & Deci, 2000).

이와 같이 유기체 통합이론은 내면화 과정과 통합을 중요시 한다(internalization)는 가치를 수요하거나 조절하는 과정이고, 통합(integration)은 조절을 자기 자신 속으로 보다 더 완전하게 전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 상태에서의 행동은 자기의식으로부터 방출되게 된다. 과정은 사회적 가치와 조절이 전 생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내면화된다는 것이므로 발달적으로 중요하다. 유기체 통합이론에 따르면, 외재적 동기 동기유형들의 근간을 이루는 연속체가 발달 연속체 그 자체라고 제안하지는 않는다. 개인이 특별한 조절에 대하여 각 내면화 단계에 따라서 발달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람은 이전 경험과 상황적 요인들에 의존하여 이 연속체의 어떠한 지점에서든 새로운 환경조절을 처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Ryan, 1995). 어떤 행동들은 내압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은 확인적 조절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사람은 원래 외적조절(예, 보상) 때문에 활동에 노출될 수 있으며, 보상이 너무 통제적인 것으로 지각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노출은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이 갖고 있는 내재적으로 흥미 있는 특성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며, 결국 지향성 변화를 유도한다. 아니면 활동의 가치를 확인한 사람은 통제적 교사 밑에서 가치의식을 상실할 수 있고, 외적 조절 양식으로 후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달적 문제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는 분명하다. 첫째, 자아로 동화 될 수 있는 행동유형은 대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매우 내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자율성과 자기조절에 대한 일반적인 유기체 성향과 일치한다(Ryan & Deci, 2000). Grolnick과 Ryan(1987)은 보다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읽는 학생들은 통제된 학생들보다 교재에 대한 개념이해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Ryan과 Connell(1989)은 이러한 상이한 유형의 동기가 실제로 상대적으로

자율성 연속체를 따라 존재한다는 공식을 검증하였다. 그들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성취행동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에 참여하는 외적, 내압적, 확인적, 내재적 이유들을 평가하였다. 그들은 4가지 유형의 조절이 유사 단순 형태(서열화 된 상관)에 따라서 자율성의 기초적인 연속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태도와 적응의 차이 또한 상이한 유형의 외재적 동기들과 상관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외적으로 조절되면 될수록 학생들은 흥미, 가치 노력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교사와 같은 타인들을 비난하는 성향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압적 조절은 노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지만 불안과는 높은 관련이 있고 실패에 대한 대체행동과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확인적 조절은 학생생활의 즐거움과 높은 상관이 있고, 긍정적인 대처유형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내재적 동기는 흥미, 즐거움, 유능감, 긍정적인 대처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yan & Deci, 2000).

후속적인 연구들이 외재적 동기 유형들에 대한 이러한 결과들을 확장하였고, 자율적인 외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높은 참여수준(양명환, 2006; Miserandino, 1996), 수행의 개선과 적응(Connell & Wellborn, 1990), 중단을 감소(Vallerand & Bissonnette, 1992; Vallerand, Firtier, Daoust, & Blais, 1995), 학습의 질 향상(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Benware & Deci, 1984; Groinick & Ryan, 1987; Groinick, Ryan, & Deci, 1991), 심리적 웰빙의 향상(김덕진, 양명환, 2006; Sheldon & Kasser, 1995)과 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이론은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가치와 조절의 내면화와 통합도 매우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개인적 경험의 내면화와 행동 결과의 중요성이 주어지면 외재적 동기 행동들에 대하여 자율적 조절을 진작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러나 내면화는 내재적 동기와 같은 다른 자연적 과정과 같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양분을 필요로 한다.

외재적으로 동기 유발된 행동들은 대개 재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에 이러한 행동을 시작하는 주된 이유는 행동들이 그들이 애착을 느끼거나 관계하기 원하는 주요타자들에 의해서 독려되고, 만들어지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외재적 동기 활동들의 내면화는 또한 지각된 유능감에 의해서 조절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활동에 대하여 효능을 갖고 있을 때 사회적 집단의 가치와 연관된 활동들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기체 통합이론은 유능성에 대한 지지가 내면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조절 같은 자기결정적 동기를 촉진시키고, 조절의 내면화와 통합을 위해서 자기결정적인 동기를 지지하는 동기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Deci와 Ryan(1985, 2002)은 동기를 세 가지의 상이한 동기 유형(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무동기)이 인간의 행동을 촉발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며, 기존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경계가 분명하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좋은 대안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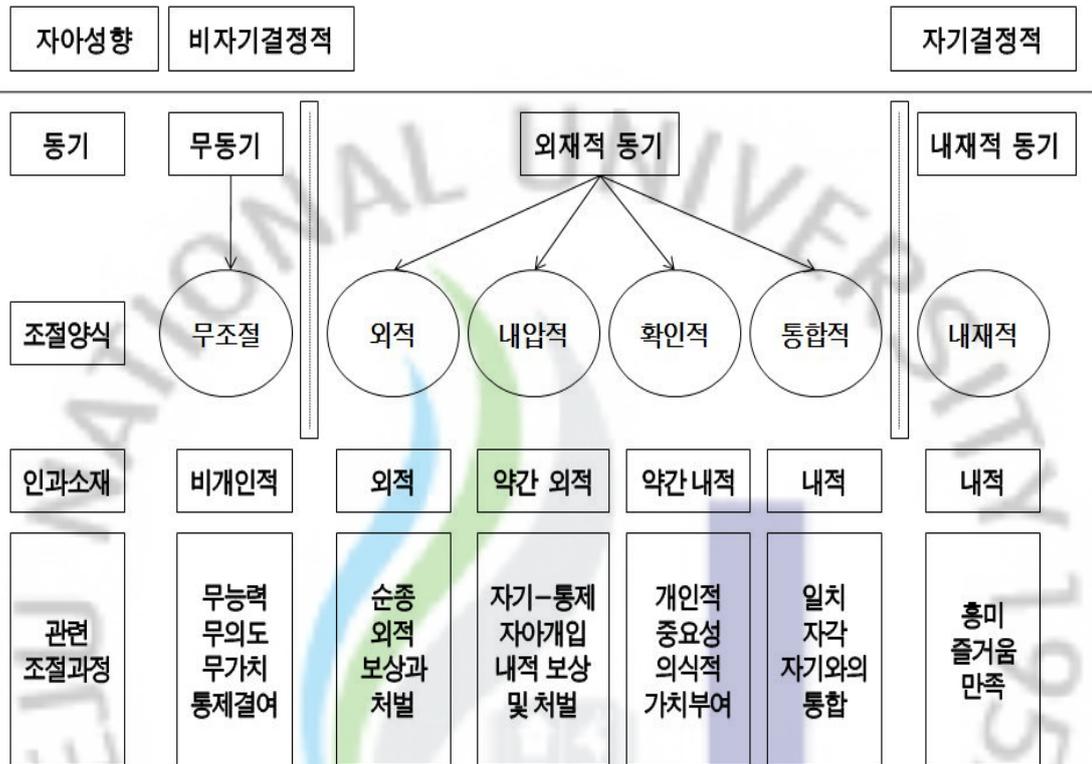


그림 1. 조절양식, 인과소재 관련 조절과정을 타나내는 자기결정 연속(Ryan & Deci, 2000)

SDT내1)의 두 번째 하위이론인 유기체 통합이론 (organismic integration: LOT)은 상이한 유형의 외재적 동기를 상세하게 소개하였고, 이러한 행동 조절의 내면화와 통합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맥락적 요인들에 대하여 상술했었다(Deci & Ryan, 1985). 그림 1은 동기유형에 대한 유기체통합이론의 분류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행동 동기를 인간 자아로부터 방출되는 정도의 관점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배열하고 있다.

맨 왼쪽에는 무동기(amotivation)인데, 활동할 의도가 부재한 상태를 말한다. 무동기화 되었을 때,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향으로써 유능감을 얻지도 못하며(Deci, 1975) 그 활동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Seligman, 1975)으로부터 파생된다. 동기를 단일 개념으로 취급하는 이론가들(예, Bandura, 1986)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기와 무동기간을 구분하는 자기결정성 정도를 반영하도록 만들어진 여러 가지 동기 유형들이 존재한다( Ryan & Deci, 2000).

1) 양명환, 「자기결정 이론과 체육교육」,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2009, 11-12쪽 참조.

무동기 바로 오른쪽에는 자율성이 가장 낮은 형태의 외재적 동기를 대표하는 범주가 있는데, 이 범주를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행동들은 외적요구를 만족시켜거나 외적으로 부과된 보상 가능성(contingency)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개인 들은 대개 외적으로 조절된 행동을 통제된 또는 이간된 것으로 경험하고 그들의 행동은 외적 조절은 조작적 조건화 이론가(예, Skinner, 1953)들에 의해 인지된 유일한 동기이며, 초기 실험실 연구와 논의에서 내재적 동기와 전형적으로 대비되었던 외재적 동기가 바로 이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의 외재적 동기는 흡수 또는 내압적 조절(introjected regulation)이다. 흡수는 사람들이 죄의식이나 불안을 피하거나 자아고양과 자존심을 보전하기 위하여 절의 일 유형으로 묘사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흡수는 유관적 자존심에 의한 조절을 의미한다. 고전적 유형의 흡수는 자아관여(ego involvement)인데, 사람들은 자존심과 가치의식을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행동을 한다고 본다. 비록 조절이 사람의 재부에 있기는 하나 흡수적 행동은 완전한 자아의 일부분으로서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외적으로 인지 하는데 통제소재를 갖는다(Ryan, Deci, 2000). 예를 들면 배구선수가 “나는 점핑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선수가 그러한 활동이 재미없는 것을 알지만 점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웨이트트레이닝을 하기로 마음먹는다.” 이 경우에 배구 선수는 이 활동이 내재적으로 동기유발이 되지는 않았지만 웨이트트레이닝에 참여하기 위해 자유롭게 선택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외적, 내압적 조절로부터 동기화된 사람들보다 압력과 긴장을 덜 느낄 것이다(Vallerand & Fortier, 1998). 그리고 외적 조절과 내압적 조절은 불안, 주의력 부족, 부정적 기분과 같은 부정적 결과들과 상관이 있으며, 반대에 확인적 조절과 통합적 조절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결과 긍정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allerand & Fortier, 1998). 과거에는 외적으로 동기유발 된 행동은 인간의 자아밖에 존재하는 외적인 함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Deci, 1975). 그러나 Deci와 Ryan(1985) 그리고 공동 연구자들(Deci & Ryan, 1985; Ryan, Connell, & Grolnick, 1992; Ryan & Connell, 1989; Ryan & Deci, 2000)은 개인이 지각하는 상대적인 자율성 정도에 따라서 외재적 동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기조절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외재적 동기들이 존재한다고 제안하였다. 외재적 동기는 본질적으로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Deci와 Ryan(1985)은 이러한 외재적 동기도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내압적 조절(introjection regulation), 확인적 조절(identification regulation)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훨씬 자율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유형의 외재적 동기는 확인(identification)을 통

2) 양명환, 「자기결정 이론과 체육교육」,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2009, 12-12쪽 참조.

한 조절이다. 여기서 인간은 행동의 개인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행동조절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한다. 건강과 체력단련에 관련이 있고 생활의 목표로서 가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이 학습활동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외적 조절과 내압적 조절은 불안, 주의력 부족, 부정적 기분과 같은 부정적 결과들과 상관이 있으며, 반대에 확인적 조절과 통합적 조절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결과 긍정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allerand & Fortier, 1998). 확인적 조절(identified regulation)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지각할 때 일어난다. 활동에 참여하고 수행하는 이유가 가치 있다고 지각하는 것과 같이 내면화되었을 때, 선택의 자기방향과 더불어 활동을 수행할 것이며, 그러한 행동을 확인을 통해 조절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 자체가 흥미 있거나 즐겁지 않더라도 활동이 중요하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Ryan & Deci, 2000; 2007; Vallerand & Fortier, 1998).

마지막으로 가장 자율적인 유형의 외재적 동기는 통합적 조절(integrated regulation)이다. 통합은 확인된 조절이 완전히 자아로 흡수되었을 때 일어난다. 이것은 자기-시험을 통하여 일어나고 새로운 조절이 인간의 다른 가치와 욕구들과 일치하도록 만든다. 인간이 행동에 대한 이유를 내면화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것들을 자아로 흡수하면 할수록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들은 점점 더 자기 결정적인 것이 된다. 통합적 유형의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함께 많은 특성들을 공유한다. 즉 모두 자율적이고 비 갈등적이다. 그러나 통합적 유형 역시 외재적인데, 그 이유는 통제 조절로 동기화 된 행동은 비록 그것이 의지적이고 자아에 의해 가치 있는 것으로 수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가 어느 정도 행동과 분리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볼 때 가정된 행동의 도구적 가치를 위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Ryan & Deci, 2000).

그림 맨 오른쪽은 내재적 동기이다. 이 위치는 내재적 동기가 전형적인 자기결정 활동임을 강조한다. Csikszentmihalyi(1975)는 내재적 동기를 즐거움으로 정의하였고 Deci와 Ryan(1987)은 내재적 동기를 능력에 대한 개인의 내적 욕구와 자기결정으로 어떤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스포츠 참여자는 그들의 스포츠에서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흥미와 만족을 추구하거나 또는 그 자체의 행동을 함으로써 유능감이 향상되는 기쁨 때문에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내적으로 동기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광수, 2002). Deci(1975)는 내적으로 동기화 된 행동은 개인이 당면 하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유능감과 자결성을 느끼려는 내적 욕구에 의하여 형성된다고<sup>3)</sup> 전제하고, Harter(1982)는 어떤 것을 선호한다든지, 도전, 호기심, 또는 속

3) 양명환, 「자기결정 이론과 체육교육」,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2009, 12-13쪽 참조.

련이나 숙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Weiner(1986)는 어떤 보상을 받지 않고도 동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내재적 동기라고 하면서 순수한 즐거움과 흥미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Deci와 Ryan(2008)에 의하면, 내적 동기는 활동 자체가 흥미가 있고 동시에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Deci와 Ryan(1985)은 내재적 동기를 흥미와 즐거움, 유능감, 노력, 압박과 긴장 그리고 선택감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내적동기의 촉진을 위해서 환경적, 상황적 요인이 조화를 이루고 조건을 형성해 주었을 때 가장 잘 유발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문창일, 2007).

Deci와 Ryan(2008)에 의하면, 코치의 자율성 지지는 높은 수준의 내적동기와 지속적인 행동변화, 유능성 지각, 신뢰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은 체육교사 및 코치의 행동이 학생이나 선수들의 심리적 욕구와 자율적 동기, 그리고 행동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Amorose & Anderson-Butcher, 2007; Hagger, Culverhouse, Chatzisarantis, & Biddle, 2003). 또한, 유능성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이고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를 말하며, 내적 동기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사회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Deci & Ryan, 1985). 즉, 도전적인 환경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은 유능성을 가져오고 이것이 효능감을 촉진시켜 내적동기를 가져온다(Ryan & Deci, 2002). 유능성과 자기효능감은 특정 영역에서 획득되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개념이다(Deci & Ryan, 2000). 실제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연구에서는 그 개념적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Guay, Senecal, Gauthier, & Fernet, 2003). 그러나 위에서 암시한바와 같이 이것은 외재적 조절이 점점 내면화되어감에 따라서 외재적 조절이 내재적 동기로 변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면화 과정은 사회적 가치와 조절이 전 생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내면화되는 것이므로 발달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외재적 동기유형들의 근간을 이루는 연속체가 발달 연속체 그 자체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특별한 조절에 대하여 각 내면화 단계에 따라서 발달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람은 이전 경험과 상황적 요인들에 의존하여 이 연속체의 어떠한 지점에서든 새로운 행동조절을 처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Ryan, 1995). 어떤 행동들은 내압적인 것에 시작 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확인적 조절에서 시작 될 수 있다. 사람은 원래 외적조절(예, 보상) 때문에 활동에 노출될 수 있으며, 보상이 너무 통제적인 것으로 지각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노출은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이 갖고 있는 내재적으로 흥미 있는 특성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며, 결국 지향성 변화를 유도한다. 아니면 활동의 가치를 "후퇴할 수 있다. 따라서 4)지향성간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 가능한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

만 반드시 “연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달적 문제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분명하다. 첫째, 바로 동화될 수 있는 행동유형과 가치는 인지적 역량과 자아역량 성장과 함께 증가한다. 둘째, 사람들의 일반적인 조절유형은 대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매우 내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자율과 자기조절에 대한 일반적인 유치체적 성향과 일치한다(Ryan & Deci, 2000).

Ryan과 Connell(1989)은 이러한 상이한 유형의 동기가 실제로 자율성 연속체를 따라 존재한다는 공식을 검증하였다. 그들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성취행동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에 참여하는 외적, 내압적, 확인적, 내재적 이유들을 평가하였다. 그들은 4가지 유형의 조절이 유사-단순 형태(서열화된 상관)에 따라서 상호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따라서 자율성의 기초적인 연속체에 대한 증거들을 제공하였다. 태도와 적응의 차이 또한 상이한 유형의 외재적 동기들과 상관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외적으로 조절되면 될수록 학생들은 흥미, 가치 노력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교사와 같은 타인들을 비난하는 성향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압적 조절은 확대된 노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지만 불안과는 높은 관련이 있고 실패에 대한 대처행동과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확인적 조절은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높은 상관이 있고, 긍정적인 대처유형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내재적 동기는 흥미, 즐거움, 유능감, 긍정적인 대처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yan & Deci, 2000).

## 2. 사회 환경적 요인

### 1) 자율성 지지

코치-선수관계와 같은 사회적 환경 요인들을 환경, 외적 사건, 사회적 맥락 및 대인관계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환경들은 심리적 욕구만족, 그들의 동기, 수행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된 하나의 사회적 맥락은 자율성 지지이다(Deci & Ryan, 1987). 개인의 행동에 가장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신의 행동이 주요 타자에게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고 지각하는 개인의 해석이다(Reeve, 2002). 자율성 지지 맥락은 부모, 교사 코치 등의 주요 타자들이 타인들의 시각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외적인 압력이나 요구 등 통제를 최소화하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Black & Deci, 2000; Mageau & Vallerand, 2003). 이러한 자율성 지지 맥락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4) 양명환, 「자기결정 이론과 체육교육」,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2009, 13-14쪽 참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며,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추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Reeve(2002)에 따르면, 자율성 지지는 구조(structure), 대인간 관여(interpersonal involvement)와 함께 다루었다. 즉, 구조(structure)는 운동 강사들이 운동 참여자들에게 분명한 기대 의식, 최적의 도전과 실시간으로 정보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Reeve, 2002). 대인간 관여(interpersonal involvement)는 운동 강사들이 시간, 에너지, 즐거움, 정서와 같은 심리적 자원들을 운동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eve, 2002). 이와 같이, 운동과 스포츠 맥락에서 자율성 지지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강사와 코치들이 참여자와 선수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운동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압력, 요구 및 보상이 최소화 된다. 이러한 전망들은 자기결정이론과 일치하는 것이며, 다른 영역의 실험적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Deci & Ryan, 1985; Deci, Eghrari, Patrick, & Leone, 1994).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자율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지각하는 맥락에서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조절과 같은 자율적 조절의 발달을 촉진하며, 반대로 자신의 행동이 강압에 의존하거나 통제되는 맥락에서는 자율적 조절의 발달을 저해하며, 내압적 조절이나 외적 조절의 의존도를 증가시킨다(Deci & Ryan, 1985; Deci, Eghrari, Patrick & Leone, 1994)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부모에 대한 자율적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자기조절을 더 내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rolnik & Ryan, 1989; Grolnik, Ryan & Deci, 1991), 부가적인 연구들은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안하는 내면화가 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Ryan, Rigby, & King, 1993; Strahan, 1995), 건강관련 행동(Williams, Grow, Freedman, Ryan & Deci, 1996; Williams, Gagne, Ryan, & Deci, 2002; Williams, Freedman, & Deci, 1998)영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Williams, Grow, Freedman, Ryan & Deci(1996)는 6개월 간 저칼로리 프로그램을 통한 의학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비만 환자들 중 병원관계자들의 자율성 지지를 경험한 환자들이 더 자율적 이유 때문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Williams, Freedman, & Deci, 1998)는 환자들이 장기 양물 치료를 받을 때 보다 자율적이라고 느낄수록 지속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석율이 좋아지고 추적 검사를 통해서 체중감량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 자율성 지지 맥락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동기(Deci, Schwartz, Sheinman, & Ryan, 1981; Grolnick & Ryan, 1987)와 내면화(Grolnik & Ryan, 1989; Grolnik, Ryan & Deci, 1991; Williams & Deci, 1996), 만족(Deci, Connell, & Ryan, 1989), 수행(Benware & Deci, 1984) 및 웰빙(Deci, Ryan, Gagne, Leone, Usunov, & Kornazheva, 2001; Gagne, Ryan, &

Bargmann, 2003)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회적 맥락에서 내재적 동기와 내면화를 촉진시키고,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과 스포츠 맥락에서 자율성 지지의 맥락이 동기유형 및 운동만족간의 구체적인 관계는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자율성 지지 맥락과 심리적 욕구만족 및 동기 성향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Amorose와 Anderson-Butcher(2007)은 코치에게서 자율성을 지지받는다고 지각하는 운동선수들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동기적 성향에도 유의한 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tandage, Duda, & Ntoumanis, (2005)는 욕구지지, 욕구만족, 동기 및 결과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욕구 지지의 환경을 경험한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심리적 욕구만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욕구만족은 내재적 동기를 예측하고 이어서 체육 적응관련 결과변인들(집중력 향상, 긍정정서, 도전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 이론에 입각하여 체육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와 스포츠 기술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관연구를 설계하고 긍정적 유능성 피드백이 참여자의 웰빙, 수행 및 참여의도에 미치는 동기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또한 긍정적 피드백은 자율성 동기를 매개로 하여 유능성 만족을 긍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차례로 높은 수준의 활력과 참여의도를 예측하였으나, 수행에 대한 효과는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피드백과 웰빙 및 행동의도간의 관계에서는 자기결정 동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Mouratidis, Vansteenkiste, Lens, & Sideridis, 2008).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김기형과 박중길(2008)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수업 상황에서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욕구만족 및 동기 성향간의 관계에도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동기 성향을 상대적 자율성 지수로 전환하여 측정함으로써 주요 타자의 자율성 지지맥락이 상이한 동기 유형에 미치는 효과나 조절의 내면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아직 사회적 맥락이 상이한 동기유형에 미치는 효과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기를 자율성 지수를 변환하여 이들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먼저, 자율성 맥락이 상이한 동기 유형에 미치는 효과를 먼저 규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맥락과 개인차 모두 개인의 내재적 동기, 수행과 적응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다. 그 동안 수행자들의 내재적 동기를 결정짓는 변인을 탐색해온 연구는 크게 수행자의 개인차 변인과 사회적-환경적 요소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육수업에서 지각된 유능감, 성취목표 성향

및 지각된 유용성은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이며(Guay, Boggiano, & Vallerand, 2001), 반면에 교수행동과 수업내용, 지도자의 리더십, 동기 분위기 지각 및 신체 활동에 대한 주요 타자들(교사, 코치, 부모, 동료 등)의 환경 및 외적사건, 대인관계는 사회적-환경적 요소로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이다. Ryan과 Deci(2000)에 의하면 자율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지각하는 맥락(예, 선택과 이해를 촉진시키는 맥락)은 자기결정적인 동기를 촉진시키지만, 반대로 자신의 행동이 강압에 의존하거나 통제되는 맥락(예,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요적인 상황)에서는 자율적인 형태의 동기 및 학습과 안녕감을 손상시킨다. 그 동안 학교체육 및 스포츠 영역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자율성 지지 맥락이 수행자의 내재적 동기 및 자율적 동기(Deci, Scwartz, Sheinman, & Ryan, 1981; Grolnick & Ryan, 1989; Hagger, Chatzisarantis, Barkoukis, Wang, & Baranowski, 2005; Ntoumanis, 2005)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Vierling, Standage, & Treasure, 2007)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Edmunds, Ntoumanis 및 Duda(2008)는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 처치집단과 그렇지 못한 통제집단을 나누어 각각의 수업방식이 운동수업 참여자들의 심리적 욕구만족과 동기조절, 운동행동 및 행동의도와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자율성에 입각한 동기수업전략이 학생들의 욕구만족과 긍정적인 적응행동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Cox와 Williams(2008)는 사회적-맥락적 요소들과 동기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만족의 중재역할을 검증한 결과, 유능성, 자율성 및 관계성은 인지된 교사의 지지와 자기결정성 동기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고, 숙달분위기는 자기결정성 동기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 밑거름인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내재적 동기와 내면화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자율성 지지 중재자의 예시

구분	특성	적용
자율성 지지	선택 제공	가능한 운동유형 선택
	칭찬과 자질의 지지	칭찬과 건강
	연습 시 감정과 접근성 고려 의미 있는 근본적 이유 확정	항의 응답, 명확한 태도 유익한 활동, 개인 건강
구조	좋은 리더십 증명	좋은 수업 계획
	직접적인 질의응답	표현함
	최선의 도전	적극적 참여, 최선의 노력
인과관계에 포함된 대인관계	적극적인 참여	감동, 즐거움
	보장성 접근	활동영역 고려

출처: Hagger, Chatzisarantis(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환경적요인(코치-선수관계, 코칭행동, 자율성 지지)과 운동만족, 수행, 의도, 웰빙간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는 자기조절 동기가 사회 환경적 요인과 운동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2) 코치-선수관계

최근 개념의 선수-코치관계에서 나오는 통합적인 연구 모델은 코치, 선수, 부모, 전문 지도자를 위한 조직적, 포괄적, 실증적 바탕의 지식의 발전에 대한 수단으로서 제공되고 있다. 광범위한 정의로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정의는 어떤 코치와 어떤 선수에 관한 컨디션, 감정, 그리고 행동들이 상호적으로, 그리고 원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Jowett & Cockerill, 2002; Jowett, Paull & Pensgaard, 2005; Poczwadowski, Henschhen & Barott, 2002). 코치-선수관계 정의에 의하면 이 관계는 역학적이며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상태로 보여 진다. 이것에 대한 성질은 관계된 팀 성원 사이의 상호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람의 인식, 감정, 그리고 행동의 반응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게 된다. 결과적으로 내용과 관계에 대한 본질은 코치와 선수의 생각, 느낌, 행동에 대한 결합된 상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 증가 되고 있다. 상호간 신뢰, 존경, 믿음, 지원, 협동,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해는 실행의 성공과 만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계에 관한 요소이다(Jowett & Cockerill, 2002; Jowett, Paull & Pensgaard, 2005; Poczwadowski, Henschhen & Barott, 2002; Wylleman, 2000).

코치-선수 관계의 시작과 유지의 동기는 선수로의 우수성을 갖는 것과 코치로서 전문적인 우수성을 갖는 것, 그리고 선수와 코치 모두의 개인적인 성장을 포함한다(Jowett, 2005; Miller, & Kerr, 2002). 이러한 동기 또는 목적은 안정성과 조화를 포함하는 코치-선수관계의 우수성과 그것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Philippe & Seiler(2006)는 스포츠 상황에서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이 동기에 지지를 받고 선수들은 운동에 참여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수영선수들의 코치-선수관계는 동기와 수행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코치-선수관계를 질적 조사 연구 통해 코치-선수관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Jowett(2008)는 코치-선수관계에서 선수들의 운동만족을 촉진시키기 위한 본질적인 동기유형으로 내재적 동기와 외적 조절의 관계성을 자기결정 이론에 의하여 제안하였다. 그 결과 내재적 동기는 코치수행만족, 코치지도만족, 코치관계만족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 조절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기와 운동만족간의 회귀분석결과

코치관계만족에서만 20% 이상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의 행동은 구성원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추어 팀의 전반적 능력을 좌우하며, 선수들에게 긍정/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유정인, 문익수, 성장훈, 2009)을 입증하였다. 또한 코치의 행동은 운동선수의 참가 동기와 불안과 같은 개인내 요인에의 영향(Biddle, 1997)뿐만 아니라, 코치의 리더십 관점에 따라 선수-코치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Riemer & Chelladurai, 1998). 이러한 결과물들을 통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의 행동은 운동선수에게 코치에 대한 신뢰와 만족 수준을 향상시켜 지도의 효율성을 증진(최영래, 원영신, 이경훈, 2006; 최영욱, 김윤태, 김진표, 2001)시킨다는 논리를 추출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코치행동에 대한 선수들의 긍정적 지각은 내적동기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여 운동만족과 코치에 대한 태도, 재미/즐거움, 노력 지각 등에 영향(성장훈, 1999)을 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수-코치간의 관계 선행연구들은 코치와 운동선수와의 대인관계가 운동수행 및 운동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며(Poczwardowski Barrot & Jowett, 2006). 선수들의 만족이 코칭행동, 코치-선수관의 융화,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Eys, Loughead Hardy, 2007; Sullivan & Gee, 2007).

LaVoi(2004)는 사회 환경요인인 코치-선수관계의 특성에 따른 개인적 차이, 사회적, 관계 특징, 감정, 생각, 행동, 개인내의 결과, 대인관계 관련된 결과, 그룹의 결과에 대한 통합된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코치-선수에서 사회적 요인과 감정(친근감), 지각(헌신, 상호지향, 의미), 행동(상보적 상태, 상호작용)은 개인 내의 결과로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과 동기, 만족과 같은 행동적 결과에 간의 통합된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코치-선수간의 의사소통 사이에 끼어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정에 관계를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Gillet 등(Gillet, Vallerand, Amoura, Baldes, 2010)은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부여의 계층적 모델을 바탕으로 코치의 자율적 지각수준이 선수들의 수행만족간의 중재 변인임을 예측하였다. Jowett(2008)는 코치와 선수의 만족을 이끄는 두 가지 타입의 동기 즉,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대해 주목하였고, 두 가지의 타입의 동기는 수행만족, 지시만족 코치선수관계와 수행만족간에 내적동기, 외적동기의 매개 역할을 예측하였다. 즉, 내적 동기는 긍정적인 코치만족, 지시만족, 수행만족과 정에 상관, 외적 동기는 오직 코치만족과 부(-)의 관계를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Osbaldiston과 Sheldon(2003)는 새로운 환경에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내면화하는 과정을 예측하기 위해 구조적 모형을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한 자율적 지각수준은 내면화된 동기, 수행목표와 매래의 행동의도에 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내면화된 동기는 미래의 행동의도에 정에 직접 영향의 구조모형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코치와 선수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뚜렷한 연구는 매우 간헐적으로만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상호작용은 팀의 목표와 선수 개인의 성공과 코치와 선수간의 원활한 상호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코치와 선수간의 상호작용 연구의 중요성은 그들의 관계를 얼마나 폭넓게 생각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코치와 선수간의 상호작용 연구는 그들의 갈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는데 도움을 주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스포츠 상황에서 코치와 선수간의 갈등은 어린선수 시절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기에 코치와 선수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지침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상호작용 연구는 주로 그들의 해결방법인 코치와 선수 상호간의 역동성을 전통적으로 연구해 왔다(Poczwardowski, Barott, jowett, 2006). 하지만 최근에는 상호관계모형과 다른 접근방식이 선보이고 있다(Conory & Coatsworth, 2004). 자아의 표상주의 모형(Mageau와 Vallerand, 2003)은 코치와 선수 상호관계의 동기 연구와 이러한 시도는 그들의 관계성을 핵심적 연구 조사의 관점에서 코치와 선수 상호 개인의 역동성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동안의 코치와 선수의 상호관계를 다룬 모형들은 코치와 선수 양쪽을 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하였으며, 그들과 관련된 관계의 복잡한 역동성을 완전하게 제시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데이터를 분석, 해석, 숙고하여 코치와 선수의 인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결론을 선호했다. 코치와 선수의 개념화 모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나타난다.

첫째, Wylleman(2000)의 개념화 모형은 코치와 선수의 상호관계가 스포츠 분야에서 명시하는 행동에 기초해서 정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호간의 행위는 3가지 면에서 분류될 수 있다. 상호관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묘사하는 수용과 거부의 측면, 상호관계에서 사회적 혹은 개인적 역할을 언급하는 사회-정서적인 측면으로 분류된다. Kiesler(1983)의 상호개인간의 행위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에 영향을 받은 Wylleman(2000)에 따르면 개념화 모형은 양자 상호관계의 범위 내에서 개인 간에 상호 보완적인 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선수의 상보적 행위는 코치로부터 지배와 복종적인 면을 반영하는 행동의 상호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상응하는 행위는 선수의 수용이 수락을 이끌어 내고 선수의 거부가 거절을 수반하는 수용과 거부차원에서 선행모형은 코치와 선수의 상응행위에 교환 작용이 각각의 역할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 하였다. 하지만 선행모형에서 언제, 어떻게, 왜 코치와 선수간의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는지를 설정하지 않았다.

둘째, Jowett(2005)에 의해 이끌어진 많은 연구(Jowett & Chaundy, 2004; Jowett & Clark-Carter, 2002; Jowett & Cokerill, 2002; Jowett & Meek, 2000; Jowett & Ntoumanis, 2004; Jowett & Timson-Katchis, 2005)들은 사회변화이론 원칙에 영향을 받는 코치와 선수의 상호관계의 통합된 모형에 대한 연구를 개발시켰다.

통화된 모형은 확립된 상호개인의 심리학적 구조를 포함한다. 즉 친밀감(Bersheid, Snyder, & Omoto, 1989), 몰입성(Rosenblatt, 1977), 상보성(Kiesler, 1997), 상호적응(Newcomb, 1953). 사회심리학에서 이러한 구조는 전통적으로 서로 별개로 독립적으로 연구되었다. 3+1 Cs 개념화 모델의 전제는(Jowett, 2005; Jowett, Timson-katchis, 2005) 코치와 선수의 감정, 사고들은 인과적으로 그리고 상호적으로 의존 한다는 것이다. 친밀감(Closenes)은 코치-선수 상호관계에 기인하는 정서적인 의미를 말한다(신뢰, 호감, 존경), 개입(commitment)은 상호관계를 유지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선수와 코치의 의사로서 정의한다. 보상(complementarity)은 선수와 코치의 동맹에 상응하는 행위(선수의 친밀감과 거기에 대응하는 태도는 코치의 친밀감과 거기에 응답하는 태도를 이끌어 낸다), 그리고 상호간의 지배와 복종의 행위를 표현한다(코치의 지시와 선수의 실행), 상호적응(co-orientation)은 선수와 코치의 상호개인의 의식을 포함하고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확립한 공통 기반의 등급을 반영한다. 코치와 선수 상호관계 친밀감의 중요성과 만족, 상호 적응지도 그리고 보상은 질적인 연구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Jowett, 2003; Jowett & Cockerill, 2002; Jowett & Meek, 2000).

셋째, LaVoi(2004)는 깊은 인간의 소속에 대한 욕구와 개인적인 이들을 얻어낼 수 있는 상호관계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스포츠 세계를 묘사했다. 그녀의 시도는 관계중심이론의 심리학적 해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Jordan, Kaplan, Miller, Stiver, & Surrey, 1991; Miller & Stiver, 1997). 코치-선수 상호관계에 응용할 때, 이러한 연구는 코치와 팀 동료와의 상호의존 혹은 최적의 결합할 시기에 만족과 성장의 더 수준 높은 잠재적 성취에 초점을 둘 것이다. LaVoi(2004)는 나아가 사회문화규범과 규율을 설명하는 맥락적 연구를 제안하고 양자관계성의 연구의 중요성과 코치와 선수가 필수적인 연구 대상이라고 강조하였다.

넷째, Poczwardowski와 그의 동료(Poczwardowski, 1997; Poczwardowski, Barott, Henschen, 2002)는 코치-선수 양자관계의 맥락과 과정을 관찰하는 질적-해석학적인 틀을 제안하였다. Poczwardowski(1997)의 코치-선수 양자관계의 질적인 조사연구는 팀의 일원으로서 양자관계의 멤버로서 선수와 코치의 역동적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체적으로 상호관계의 애착, 상호개인의 행위의 해석뿐만 아니라 코치와 선수의 개인적 특성이 개인 간의 욕구, 행위, 활

동으로 철저하게 관찰되어졌다. 이러한 틀에서 나타난 대인관계 변인은 관계역할, 대인 상호작용, 보상되는 성과와 관계의 공유되는 의미와 유형이다.(Poczwardowski, Barott, & Henschen, 2000; Poczwardowski, Barott, Henschen, 2002; Poczwardowski, Henschen, & Barott, 1998, 2001).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선수와 코치의 상호관심의 순환 패턴으로서 상호관계를 개념화시켰다. 관계 지향적인 활동과 상호작용은 인간의 욕구와 감정, 사회 심리학 또는 정서적인 것과 스포츠 임무와 목표를 포함해서 교육적이거나 기술적인 범주에 의해 분류되었다. 그 결과, 양자관계 내에서 스포츠와 비 스포츠적인 논의들은 행위적이고 인지적-정서적인 면들이 통합되어지는 논쟁의 주체가 되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Jowett(2005)는 통합된 연구모형을 통해 코치와 선수의 감정, 사고들은 인과적으로 그리고 상호적으로 의존한다고 밝혔다. 그의 연구모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림 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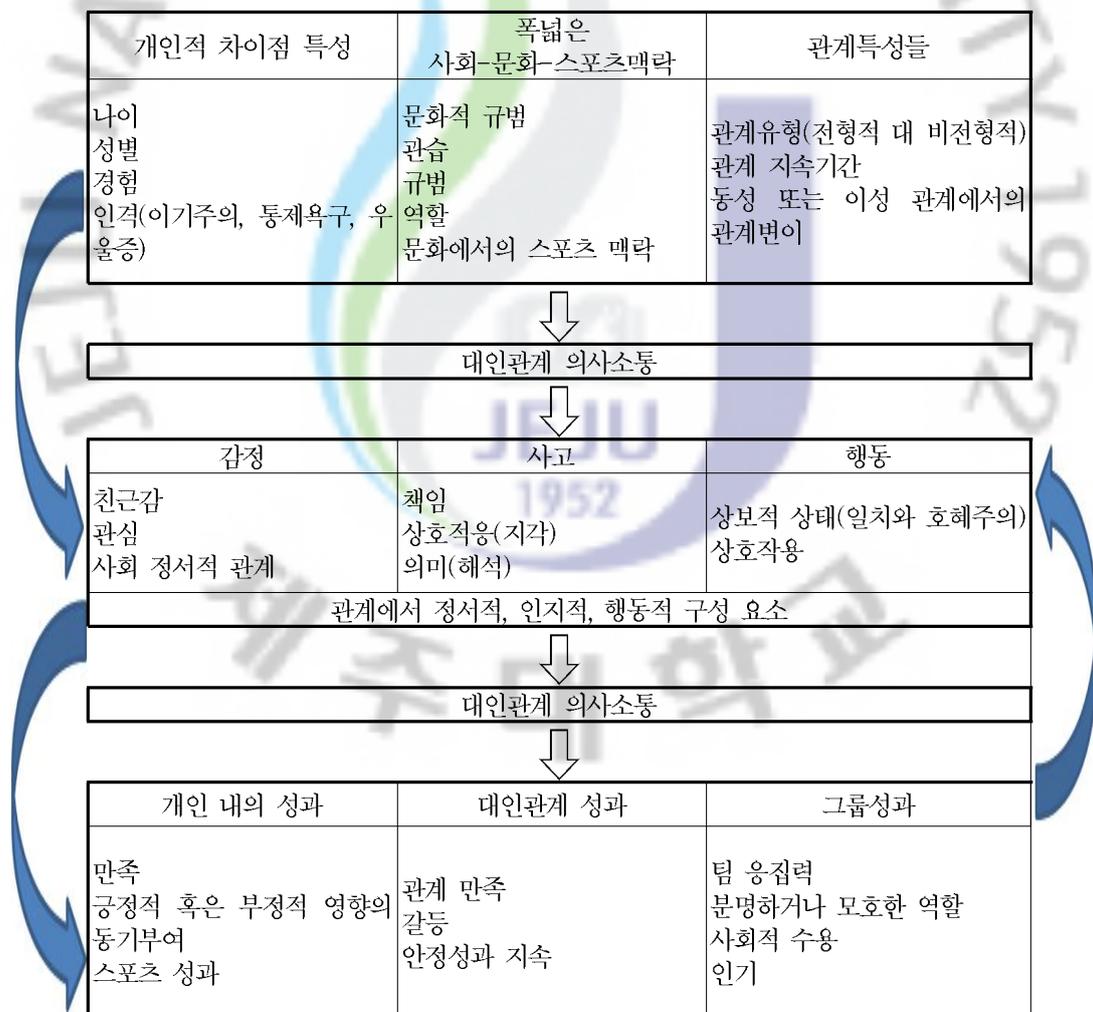


그림 2. 코치-선수관계의 통합된 연구모형(Jowett, 2005)

통합된 연구모형은 여러 층으로 그려볼 수 있다. 꼭대기 층은 선수와 코치의 개인 차변인(나이, 성, 경험, 개성), 좀 더 넓은 사회-문화적 배경(관계유형, 존속시간)과 같은 관계의 변인 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과관계 3가지 분류는 관계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변인들은 코치와 선수가 서로 간의 관계 패턴과 일반적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즉 코치와 선수 상호관계와 인과관계를 신중하고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앞으로 코치와 선수 상호관계 이론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모형 두 번째 층은 코치와 선수 관계의 질(자질 혹은 만족, 특성 혹은 구성요소)을 기술한다. 관계의 질에 있어 주요한 구성요소는 친밀감(관심 혹은 사회적- 감정적 특성), 책임(관계의 효율성을 최대화시키고 유지시키려는 의도), 상호적응(개인 간의 인식과 주관적인 의도) 그리고 상보성(호혜적이고 상응하는 행동적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모형의 2번째 층은 개인 간의 의사소통 사이에 놓여 있다. 사실상 의사소통(언어와 비언어,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인 것, 정직과 비 정직)은 코치와 선수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Montgomery와 Baxter(1998)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관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은 코치와 선수가 거리를 두는 것, 간격을 좁히는 것(친밀해 짐) 그리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요컨대, 의사소통의 양과 질은 그들의 관계를 결합 및 와해시키기도 하지만 해체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조화롭고 안정적인 코치와선수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튼튼한 받침목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관계는 의사소통의 질과 양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사소통은 모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모형의 3번째 층은 귀결 혹은 성과의 여러 가지 변인을 제안한다. 이런 변인의 3가지 분류는 개인 내의 변인, 개인 간의 변인, 그룹성과 변인으로 나누어진다.

개인 내의 변인은 개인 만족(수행, 훈련, 지시에 대학 선수와 코치의 만족), 스포츠 수행 성취(선수의 개인 최고기록, 팀의 우승-패배점수) 그리고 코치와 선수의 동기부여 그리고 쇠퇴를 포함한다. 다른 개인 내적 성과는 선수와 코치의 건강(마음가짐, 섭식장애)도 포함된다. 개인 내의 변인은 관계만족과 개인 간의 갈등도 포함된다. 그룹성과는 코치와 선수의 팀 응집력, 역할의 정확성 그리고 사회적 수용과 대중성의 인식에 따른 변인을 포함한다. 이 모형의 주요 층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모형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코치와 선수의 성, 나이 그리고 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경험(친밀감 혹은 책임의 차원)의 변인들을 가정한다. 또한 이 모형의 중심 층을 가정하는데, 그것은 코치와 선수 관계의 특성을 나타내고 귀결변인들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존경과 신뢰를 시초로 하는 관계로 형성된 선수와 코치는 실망과

좌절이 아닌 만족과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즉, 관계의 질이 개인 내의, 개인 간의 그리고 그룹성취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스포츠-특정 관계 모형들은 코치-선수 상호관계가 파트너십 과정으로 발전하는 체계적인 연구의 기초 구조를 제공해왔다. 개념화 모형은 Kiesler(1983, 1997)의 상호관계가 파트너십 과정으로 발전하는 체계적인 연구의 기초 구조를 제공해 왔다. 개념화 모형은 Kiesler와 Thibaut(1978)의 상호의존이론, Jordan과 그의 동료(Jordan, Kaplan, Miller, Stvier, Surrey(1991)의 코치-선수 개념화 모형과 주요 가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계-문화 이론 등 잘 확립된 심리학적 이론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되었다. 몇 가지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LaVoi(2004)의 코치-선수에 대한 관계-문화이론의 적용은 친밀감과 연계를 개인적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특성으로 보았다. Jowett등(Jowett, 2005; Jowett, Paull & Pensgaard, 2005)의 모델은 친밀감을, 반면에 Poczwardowski 등(Poczwardowski, Henschen, Barott, 2002)의 모델은 코치-선수 상호관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관심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형 사이에 미묘한 개념적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의존의 정도(친밀감, 유대, 또는 관심)가 코치-선수 상호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게다가 Wylleman(2000), Poczwardowski 등(Poczwardowski, Henschen, Barott, 2002) 그리고 Jowett 등(Jowett, Paull & Pensgaard, 2005)에 의해 진행된 개념화 모형은 상호호혜적인 대인관계 행동(코치의 친근한 태도가 선수의 친근한 태도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상응(예를 들면, 코치의 지시 방식은 선수의 적응 방식을 이끌어낸다)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통합연구 모형은 스포츠에서 중요한 관계의 예언적이고 해석적인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연구에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코치와 선수의 감정, 생각, 행위, 관계속성의 시작과 끝인 의사소통의 역할, 필수적인 개인 간의 구성요소의 효과 그리고 다양한 결과의 과정과 같은 개인 간의 구성요소를 규정하는 과정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3. 운동만족

운동만족이란 일반적으로 마음이 흡족한 것을 의미하는 심리적 개념인데 선수만족과 수행만족과 마찬가지로 감정적, 정서적 반응이다. 대체로 선수만족을 운동만족과 유사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다(김경수, 1989). 또한, 운동선수의 만족은 선수의 경험과 관련한 구조, 과정, 결과의 복잡한 평가로부터 기인하는 긍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지표라 정의되어왔다(Riemer & Chelladurai, 1998). 그리고 스포츠 집단의 구성원들이 운동생활 즉, 집단생활, 훈련 등의 일반적인 과업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욕구와 동기가 충족

되어 운동생활에 대하여 관심과 열의 등과 같은 정서적 태도를 갖는 정도를 운동만족이라 정의 하고 있다(이기철, 1999). 운동 상황에서 만족(satisfaction)에 관한 구성개념은 이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과 현장의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다. 가령 코치들에게 만족과 수행은 직관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자신의 운동에 만족한 선수는 최적의 수행을 하는 선수들에게 마치 하나의 선행조건이 것처럼 보인다. 대학 운동선수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다차원 척도를 개발한 Riemer와 Chelladurai(1998)는 운동선수의 만족은 그 자체로 리더십과 응집력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에서 비롯된 중요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운동만족은 운동 상황에서 하나의 선행 혹은 결과 변인으로서 운동만족을 포함시킨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가령, Chelladurai(1978)의 다차원 리더십 모델은 만족을 수행에 따른 결과 변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만족에 관한 측정은 운동만족(Summers, 1983), 코치/지도자에 의한 만족(Dwyer & Fischer, 1990; Horne & Carron, 1985; Mcmillin, 1990), 개인 및 팀수행에 대한 만족(Chelladurai, 1984), 팀에 대한 만족(Weiss & Friedrich, 1986), 개인적 운동만족에 대한 만족(McMillin, 1990) 등으로 다양하다. 운동만족은 운동 상황에서 선행 또는 결과변인으로서 운동만족을 포함 시킨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져 왔다(박중길, 문익수, 유정인, 2008). 운동만족(Sumers, 1983), 코치/지도자에 의한 만족(Dwyer & Fischer, 1990; Horne & Carron, 1985; McMillin, 1990), 개인과 팀 수행만족(Chelladurai, 1984), 팀 만족(Weiss & Friedrich, 1986), 개인결과 만족(McMillin, 1990)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운동선수의 만족은 다른 이론적 틀에서도 포함되어왔다. 가령, Carron(1982)은 자신의 응집력 모델에 선행 및 결과변인으로 포함시켰고, Feitz 등(Feltz, Chase, Hodge, Simensky, Shi, 1996)은 코치의 효율성에 대한 예측된 결과로서 만족을 포함시켰다. 또한 동기분위기(Horn, Duda, & Miller, 1993), 코치와 선수의 동기분위기 연구(Tammen, 1996)연구에서는 운동만족이 종속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최근의 운동선수 만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코칭 행동은 긍정적으로 지각한 선수일수록 팀 응집력과 만족감이 높고(Eys, Loughes, & Hardy, 2007; Reinboth, Duda, & Ntumanis, 2004; Unruh, Moorman, & Seshadri, 2005), 숙달분위기, 고제지향을 추구할수록 실력 향상과 만족감이 크고(Balagur, Duda, Atienza, & Mayo, 2002, Loughhead & Carron, 2004), 의사소통이 원활하며(Sullivan & Gee, 2007), 팀 관련 주변인(코치, 부모 등)의 지지와 과제 지향적 일수록 만족감이 크고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Papaioannou, Ampatzglou, Kalogiannis, & Sagovits, 2008).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운동선수의 만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 연구들을 살펴보면 프로선수의 직업이나 직무만족(김상대, 조만태, 2002; 장진, 2005), 아마추어 운동선수들의 운동만족(김동건, 조민행, 전용배, 2002; 박성제, 2006; 이계윤, 김인숙, 2005; 조건상, 김

해출, 2007), 그리고 운동선수의 생활만족 척도 개발(송춘현, 이계윤, 2000) 등의 연구들이 있다. 운동선수의 만족은 선수의 경험과 관련한 구조, 과정, 결과의 복잡한 평가로부터 기인하는 긍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지표라 정의되어 왔다(Riemer & Chelladurai, 1998). 이는 개인 운동선수의 경험과 개인의 기준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Riemer와Chelladurai(1998)는 운동선수 만족의 다른 요소들을 구분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요소들은 결과나 결과에서 결론 과정과 연관되어야 하며, 둘째, 요소들이 개인과 팀 결과와 과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과제와 요소들은 과제와 사회 결과와 과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운동선수는 그들 자신의 실제인 부분과 같은 팀에 대하여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운동선수 만족이 집단 역동성 분야에서 주의를 얻더라도, 그것은 적합한 연구의 측정을 개발하기 위한 학문적인 체계적인 노력이 적었다. 전형적인 분류학적 접근은 개인이나 그 운동선수 만족을 포함한 그 이상의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한 단일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의 문제점은 기존의 정보가 일반적인 유형이 아니 유용하지 않으면 도구의 신뢰성을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도구들은 개념의 다 측정성의 다 측정성의 성질 확립 없이 총체적인 만족을 측정하려 하며, 결과적으로 운동선수 만족 지표는 이러한 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표 2>는 Chelladurai & Riemer(1997)의 결과와 만족에 기초한 운동만족 차원 분류이다.

표 2. 결과와 과정에 기초한 운동만족 차원분류

	결과		과정	
	개인(Individual)	팀(Team)	개인(Individual)	팀(Team)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Performance)</li> <li>개인목표 달성 (Personal goal attainment)</li> <li>수행향상 (Performance improvement)</li> <li>개인적 성장 (Personal growth)</li> <li>과제역할(Task role)</li> <li>몰입(Personal immers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Performance)</li> <li>팀목표 달성 (Team goal attainment)</li> <li>수행향상 (Performance improvement)</li> <li>팀 성숙(Team maturity)</li> <li>집단 응집력 (Group integr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능력 활용 (Ability utilization)</li> <li>훈련과 지도 (Training and instruction)</li> <li>긍정적 피드백 (Positive feedback)</li> <li>개인적 투입량 (Personal inputs)</li> <li>팀 기여(Team contribution)</li> <li>인정(Recognition)</li> <li>보상(Compensation)</li> <li>가족 지원(Family suppor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선택(Strategy selection)</li> <li>팀 운용(Mobilization)</li> <li>용병술(Deployment)</li> <li>연습(Practice)</li> <li>전술(Competition tactics)</li> <li>정당한 대우 (Equitable treatment)</li> <li>윤리(Ethics)</li> <li>팀 노력(Team effort)</li> <li>협력(Coordination)</li> <li>시설(Facilities)</li> <li>예산(Budget)</li> <li>보조지원 (Ancillary support)</li> <li>지역사회 지원 (Community support)</li> <li>동료지지</li> <li>의사결정 참여 (Decision participation)</li> </ul>
사회적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감 (Belongingness)</li> <li>우정(Friendship)</li> <li>역할(Rol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인간 조화 (Interpersonal harmon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지지 (Social support)</li> <li>동료지지(Loyalty support)</li> </ul>	

출처 : (Chelladurai & Riemer, 1997) 박중길, 문익수, 유정인(2008) 재인용

#### 4. 선행연구의 고찰

##### 1) 사회 환경적인 요인과 운동만족간의 관계

홍길동, 김경식, 배기열(2008)은 중고교 양궁선수와 지도자의 상호작용과 운동만족, 신뢰 및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결과 선수와 코치의 상호작용은 운동만족과 정(+)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운동만족에 정(+)의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수와 코치 상호작용은 운동만족이 신뢰를 경유하여 운동지속에 정(+)의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수와 코치의 상호작용은 운동만족과 신뢰도를 경유하여 운동지속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tzisarantis, & Hagger, Brickell(2008)은 어린학생,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 환경적인 요인과 의도, 신체활동의 결과변인간의 관계에서 사회 환경적인 요인 중 자율성 지지, 태도, 주관적 규범, 통제적 지배 중 태도와 자율성 지지는 의도에 정(+)의 직접 영향을 미치며, 태도와 자율성 지지는 의도를 경유하여 신체활동의 결과변인에 정(+)의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환경적 요인인 자율성 지지가 결과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Balagur, Duda, & Atienza, Mayo(2002)는 여성 핸드볼 운동선수들의 주관적인 평가에서 코치-선수관계와 운동만족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고, 동기분위기 또한 운동만족과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Lafreniere, Jowett, & Vallerand, Carbonneau(2010)는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만족간의 관계에서 코치의 자율성 운동만족 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제적 행동은 운동만족에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수들은 코치의 통제적 행동보다는 자율성 지지를 선호하여 운동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하였다. Horne과 Carron(1985)의 캐나다 배구, 농구, 트렉과 필드, 수영 선수 7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지도자행동에 대한 만족의 결정 요인으로서 훈련과 지시행동, 사회적 지지 행동, 긍정적 보상 행동에 대한 일치 정도는 지도자행동에 대한 만족을 28.9%, 11.8%, 3.1%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코칭행동을 선호하는 선수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chliesman(1987)은 지도자행동에 대한 일치 정도와 일반적 만족의 관계, 세부적인 지도자행동에 대한 만족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일반적 만족은 사회적 지지 행동, 민주적 행동을 선호하는 것에 비해 인식하는 것이 높음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행동, 긍정적 보상행동에 대하여 인식한 점수는 지

도자 행동에 대한 일반적 만족과 긍정적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Weiss와 Friedrich(1986)는 대학 남자 농구 대표 팀 선수를 대상으로 코치의 지도행동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이 운동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들은 다섯 가지 행동 차원에 대한 인식은 팀 활동과 개인 활동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긍정적 보상행동이 팀 활동 만족은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 행동과 사회적 지지 행동은 개인 활동 만족을 가장 많이 설명하였고, Dwyer와 Fischer(1990)에 따르면 레슬링 선수들은 코치가 긍정적 보상행동, 훈련과 지시행동을 많이 보이고, 전제적 행동을 덜 보일수록 선수는 지도자행동에 만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코치의 사회적 지지행동을 선호하는 대학 미식축구 선수일수록 운동만족을 높게 지각한다는 Reimer와 Chelladurai(1995)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Philippe, Seiler(2006)는 수영선수를 대상으로 코치-선수관계와 목표설정, 수용과 존중, 의사소통의 관계에서 개인적이며, 배려적이고,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수영선수들은 코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코치의 행동에 의하여 지각된 동기 분위기가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채관석, 1997; 정우학, 2004; 박진국, 2005; 박미경, 2008; 이명원, 2010; 김경진, 2010)선수들은 코치의 긍정적인 행동일수록 과제수행만족과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코치행동, 코치지도유형, 코치-선수관계, 자율성 지지와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들은 선수들의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 운동수행, 행동의도 등의 결과변인에 중요한 선행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행 조건변인은 코치들이 선수에게 긍정적인 관계 또는 부정적인 관계에 따라 긍정적인 만족과 부정적인 만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사회 환경적인 요인과 자기조절동기 및 운동만족간의 관계

Lim, Wang(2009)는 13-17세인 17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결정 이론의 틀에서 연구가 실시되었다. 먼저 지각된 자율적 지지는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조절에 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내압적 조절, 외적조절, 무동기는 부(-)의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자율성 지지는 자기결정 동기(내재적 동기, 확인적 조절)를 경유하여 의도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자율성 지지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조절을 촉진하여 의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지각된 자율성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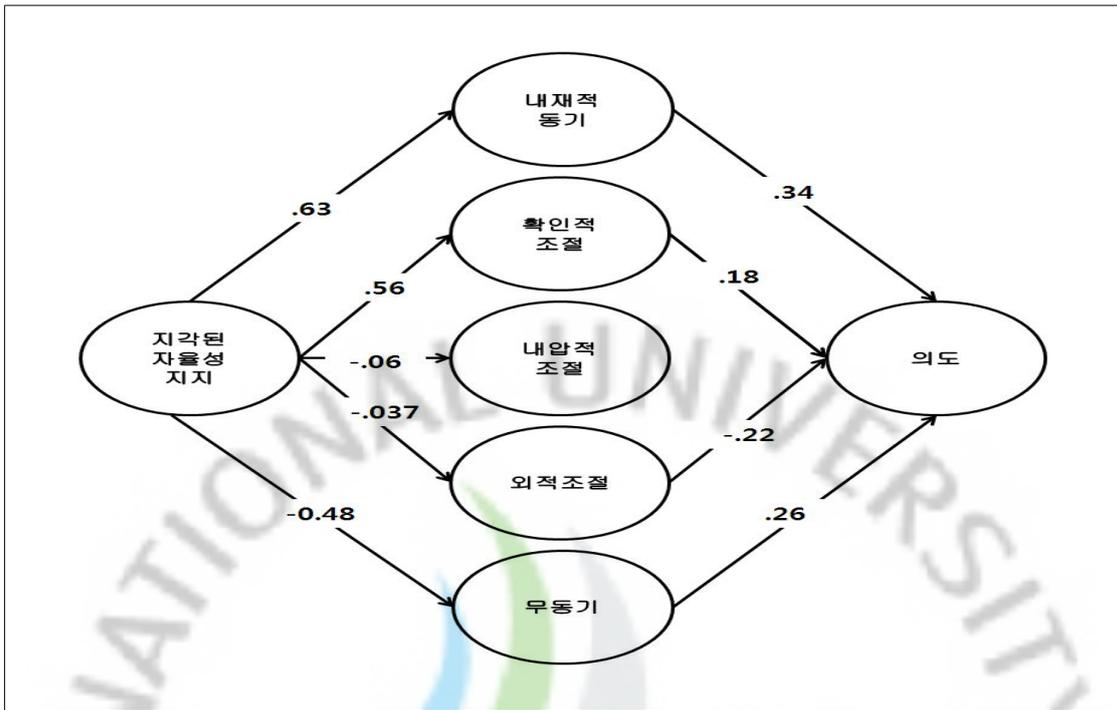


그림 3. 지각된 자율성 지지, 자기조절 동기 및 의도간의 경로도형, Lim, Wang(2009)

Wilson, Rodgers(2004)는 운동 맥락에서 자율성 지지의 지각이 상이한 동기조절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행동의도의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제시함으로써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조절과 같은 자기결정성 유형의 동기가 행동의 지속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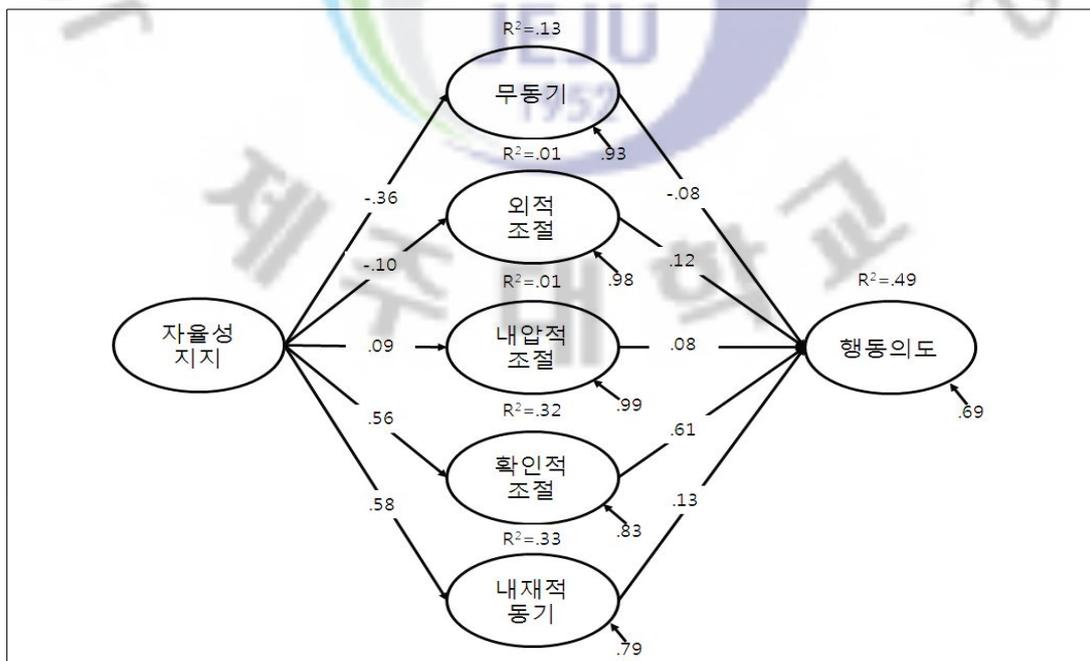


그림 4. 자율성 지지, 운동동기 및 행동의도간의 관계분석(Wilson, Rodgers, 2004)

또한 몇몇 연구들에서 코치들로부터의 자율성 지지 맥락은 선수들의 참여 동기와 상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Gagne, Ryan & Bargmann, 2003; Pelletier, Fortier, Vallerand & Briere, 2001; Pelletier Fortier, M. S., Vallerand. R. J., Tuson, K. M. Briere, N. M., & Balis, M. S. 1995).

Alvarez, Balaguer, Castillo, Duda(2009)는 12세-16세의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코치자율성 지지, 심리적 욕구만족, 자기결정 동기 및 정서적 결과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축구선수들은 코치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욕구만족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욕구만족 또한 자기결정 동기에 정(+의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결정 동기는 정서적 결과의 즐거움에만 정(+의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치 자율성 지지는 심리적 욕구만족을 경유하여 자기결정 동기에 정(+의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욕구만족은 자기결정 동기를 경유하여 정서적 결과의 즐거움에 정(+의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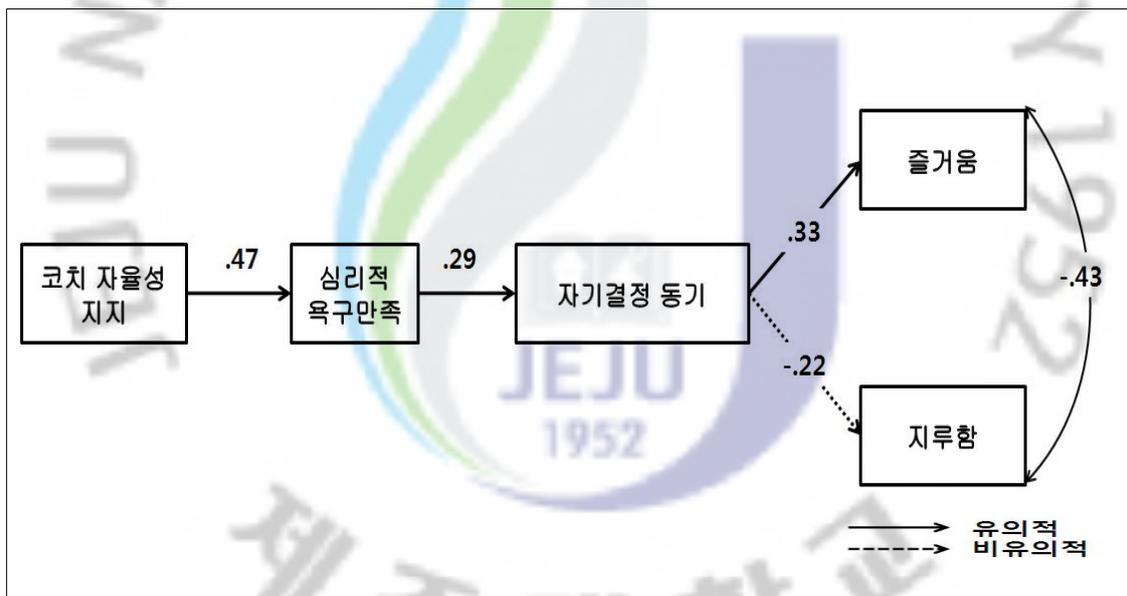


그림 5. 코치자율성 지지, 심리적 욕구만족과 자기결정 동기 및 정서결과간의 경로도형(Alvarez, Balaguer, Castillo, Duda, 2009)

Standage, Duda, & Ntoumanis, (2005)는 욕구지지, 욕구만족, 동기 및 결과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욕구 지지의 환경을 경험한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심리적 욕구만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욕구만족은 내재적 동기를 예측하고 이어서 체육 적응관련 결과변인들(집중력 향상, 긍정정서, 도전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욕구만족과 자기결정 동기는 사회 환경적 요인과 결과변인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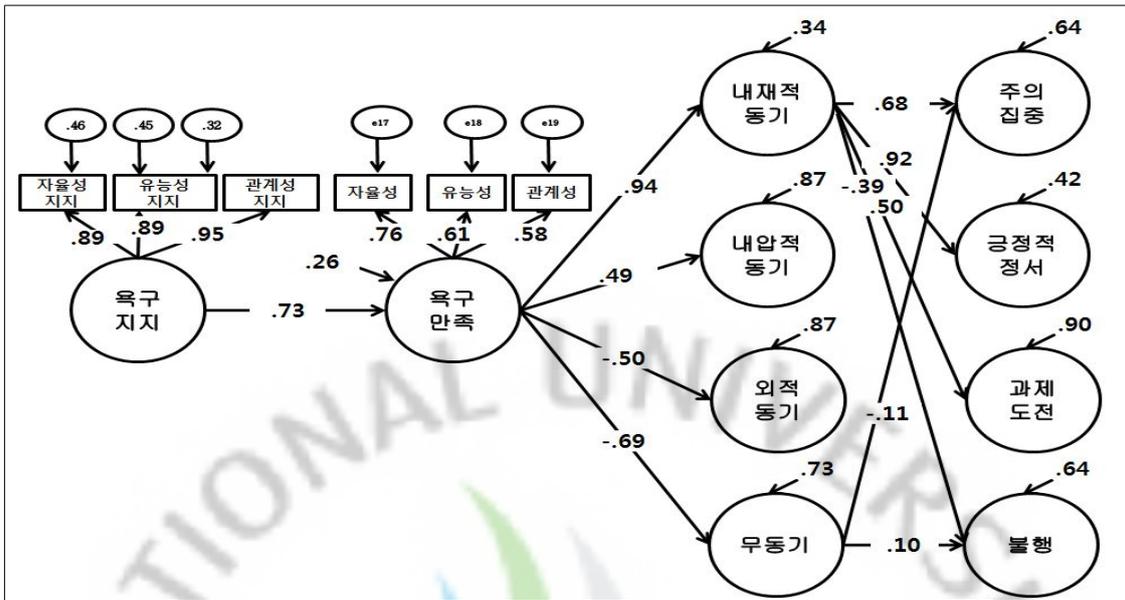


그림 6. 욕구지지, 욕구만족, 동기 및 결과변인간의 관계(Standage, Duda, & Ntoumanis, 2005)

또 Gagne와 동료들은 자신들의 코치와 부모가 자율성을 지지하여 준다고 생각하는 체조선수들은 대체로 훨씬 높은 자기결정성 체조동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Pelletier와 동료들(2001)은 13~22세의 수영선수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자기결정적 동기유형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통제적 코칭행동은 자기결정성이 낮은 동기유형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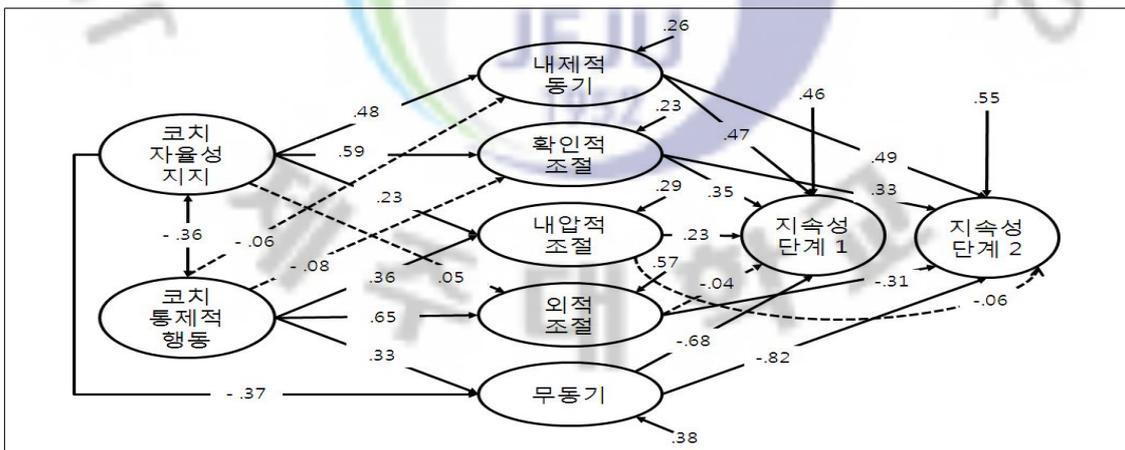


그림 7. 코치의 대인간 행동, 선수의 동기 및 지속성간의 관계모형 (Pelletier, L. G., Fortier, M. S., Vallerand, R. J., & Briere, N. M., 2001)

김미선(2009)은 코치-선수관계 이론에서 Jowett(2005)의 통합 연구모형과 Kiesler와 Thibaut(1978)의 상호의존성 이론을 바탕으로 코치와 선수간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 코치-선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수행만족은 높았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능이 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유의

하게 예측하였다(Philippe & Seiler, 2006; Loughhead & Carron, 2004).

따라서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선수관계가 중심이 되는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 팀 효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측타당도에서는 상호작용이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운동수준에 따른 상호작용과 만족도의 차이 연구와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상호작용과 만족도의 상황적 변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발된 검사지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상황에서 코치와 선수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잠재변인간의 인과관계의 검증이 필요하며, 코치-선수관계의 긍정적인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코치-선수관계와 내적 동기 및 운동만족의 예측타당도 모형을 제시하였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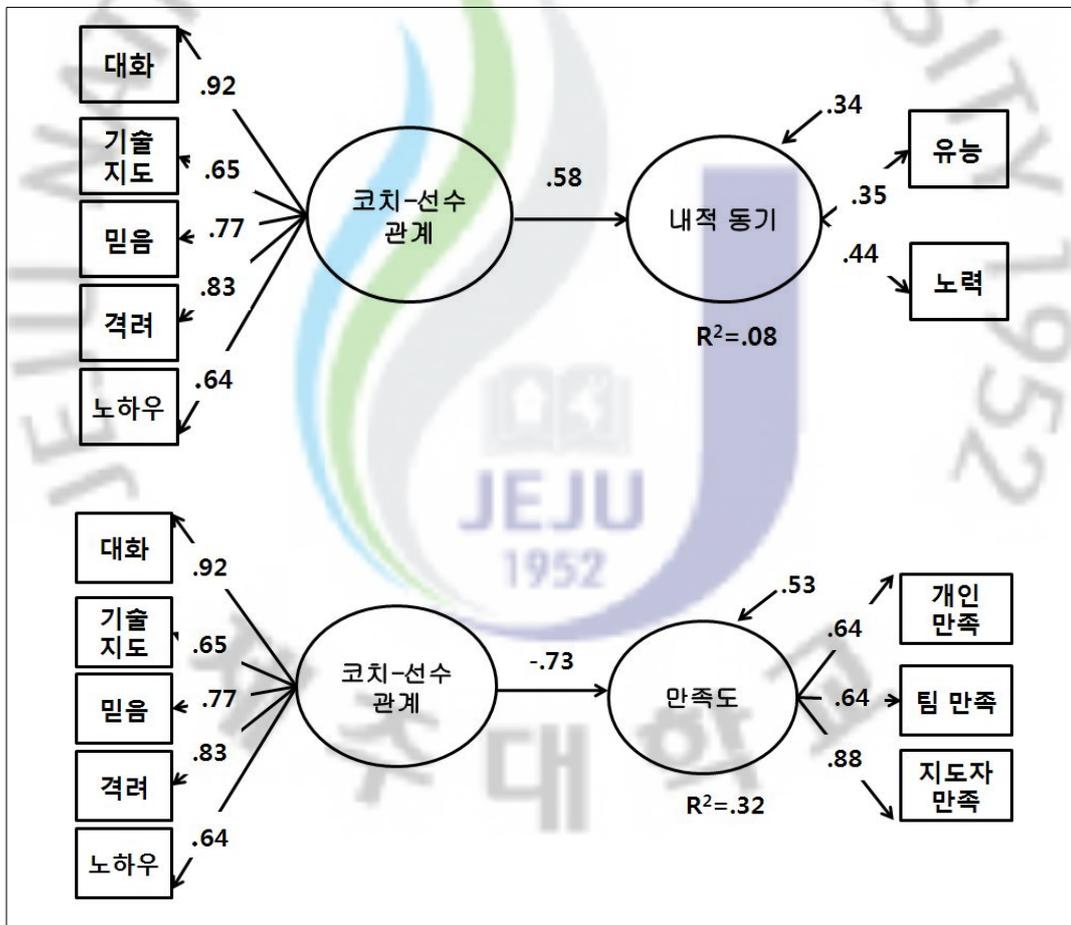


그림 8. 코치-선수관계, 내적동기 및 만족도 관계에 대한 예측타당도 경로모형 (김미선 2009)

김덕진(2010)은 자기결정 이론에서 제안한 통합 모형(Standage, Gillison, & Treasure, 2007)을 근거로 하여 부모의 자율성 지지, 친구의 자율성 지지의 사회적 환경 즉, 사회적 맥락에서의 친구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욕구의 하인요인인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을 경유

하여 자기결정 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동기, 확인적 조절, 외적 조절에 유의한 직간접적인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자율성 지지와 결과변인(주관적 웰빙, 자아존중감)간에 심리적 욕구만족, 자기결정 동기의 매개역할 검증 및 자율성 지지는 심리적 욕구의 경유하여 자기결정 동기에 직·간접적인 정(+)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욕구는 자기결정 동기를 경유하여 결과변인(주관적 웰빙)에 직·간접적인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 이론에서 제안한 통합 모형(사회적 환경→심리적 욕구→동기→결과변인)이 검증되었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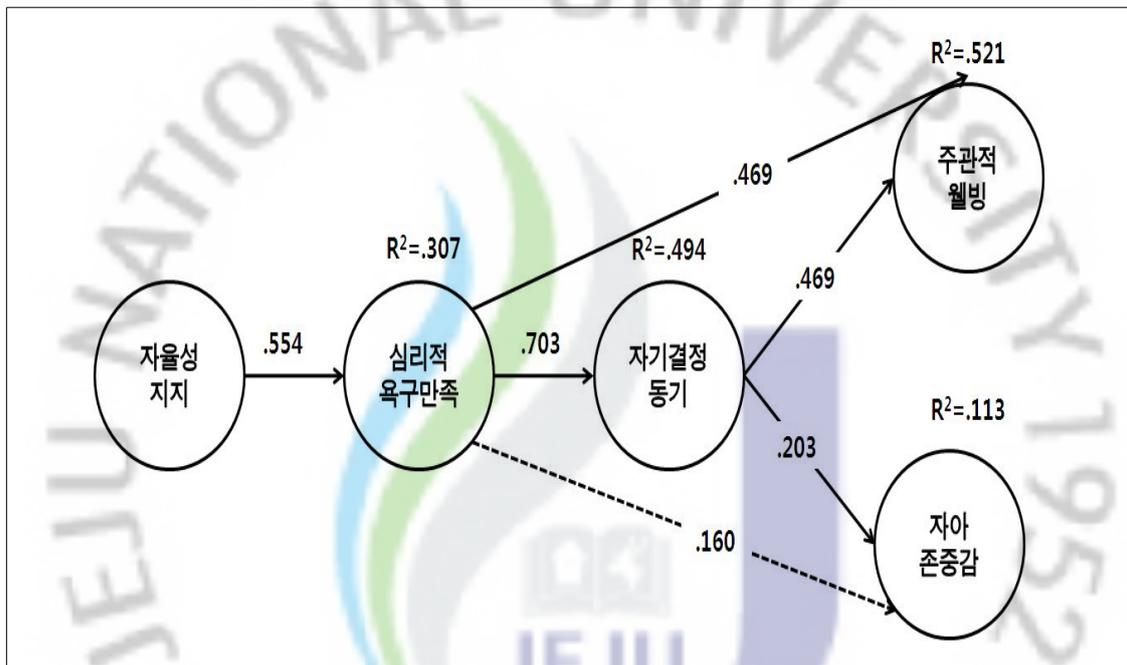


그림 9. 자율성 지지, 심리적 욕구만족, 동기 및 심리적 웰빙변인간의 경로도형(김덕진, 2010)

양명환, 김덕진(2010)은 운동선수들이 운동동기와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의 매개효과검증 결과 훈련과 지도행동, 민주적 행동은 자율성과 유능성에 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피드백은 관계성에 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율성과 유능성은 자율적 동기에 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과 지도행동은 자율성을 경유하여 자율적 동기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적 행동은 자율성과 유능성을 경유하여 자율적 동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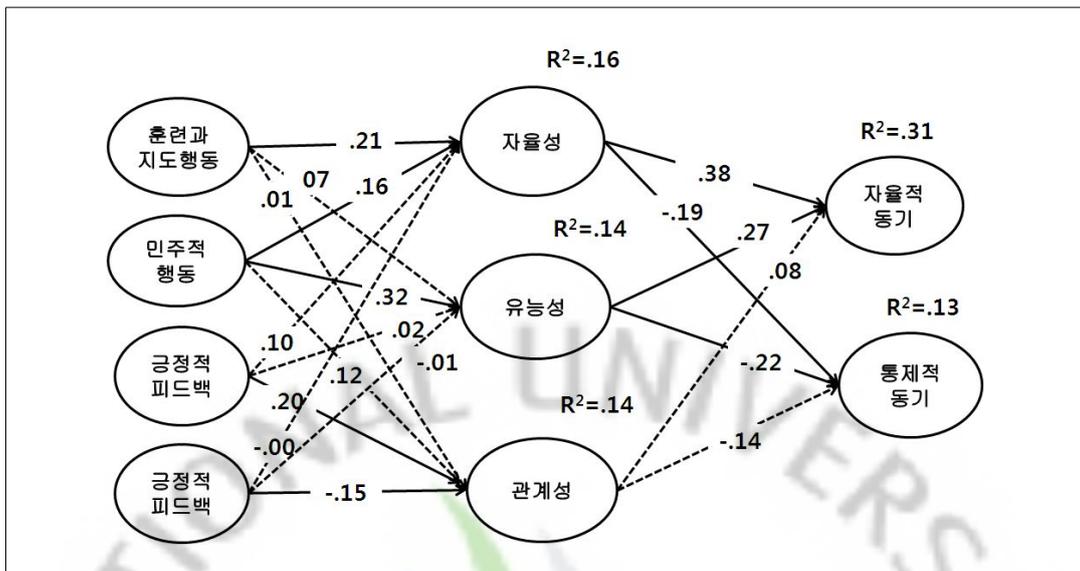


그림 10. 코칭행동, 심리적 욕구 및 운동동기간의 경로모형(양명환, 김덕진, 2010)

Osbaldiston & Sheldon(2003)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내면화하는 과정을 예측하기 위해 구조적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자율적 지각수준은 내면화된 동기→수행목표→미래의 행동의도에 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내면화된 동기는 미래의 행동의도에 정(+의 간접 효과도 있는 것으로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 자율적 지각 수준→동기→수행결과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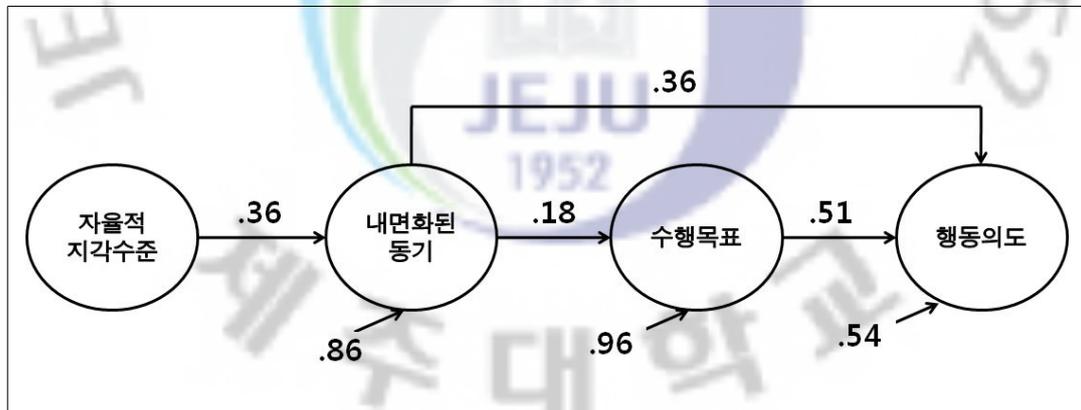


그림 11. 자율적 지각수준, 내면화된 동기, 수행목표, 행동의도간의 경로도형 (Osbaldiston & Sheldon, 2003)

Lafreniere, Jowett, Vallerand, & Cabonneau(2010)는 코치-선수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코치의 화합적 감정은 코치의 자율적 지지와 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치의 강방적인 감정은 코치의 통제적 행동과 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율적 지지는 선수-코치의 긍정적 관계에 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며, 코치의 통제적 행동은 선수-코치의 긍정적 관계에 부(-)

의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수-코치의 긍정적 관계는 만족에 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치의 화합적 감정은 코치의 자율적 지지와 선수-코치의 긍정적 관계를 경유하여 만족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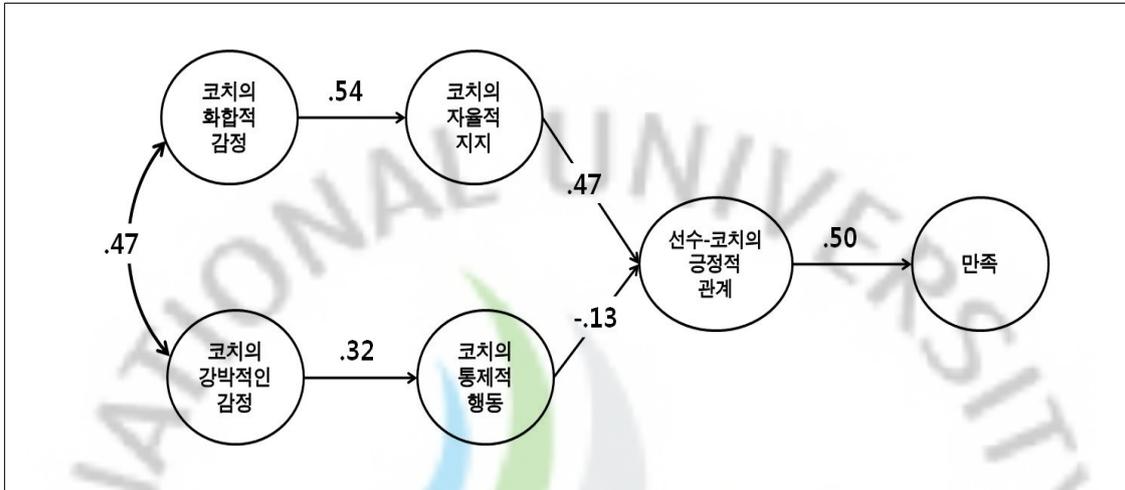


그림 12. 코치감정, 코치지지행동, 선수-코치관계, 만족간의 관계 (Lafreniere, Jowett, Vallerand, & Cabonneau, 2010)

Smith, Ntoumanis, & Duda(2010)는 코치의 자율적 지지행동은 자율적 동기성향에 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며, 자율적 동기성향은 자율적 동기에 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동기는 결과변인인 심리적 웰빙에 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며, 코치의 자율적 지지행동은 자율적 동기성향과 통제적 동기성향 경유하여 심리적 웰빙에 정(+)에 간접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코치의 지지행동과 결과변인간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성향과 자율적 동기의 매개 역할을 검증 되었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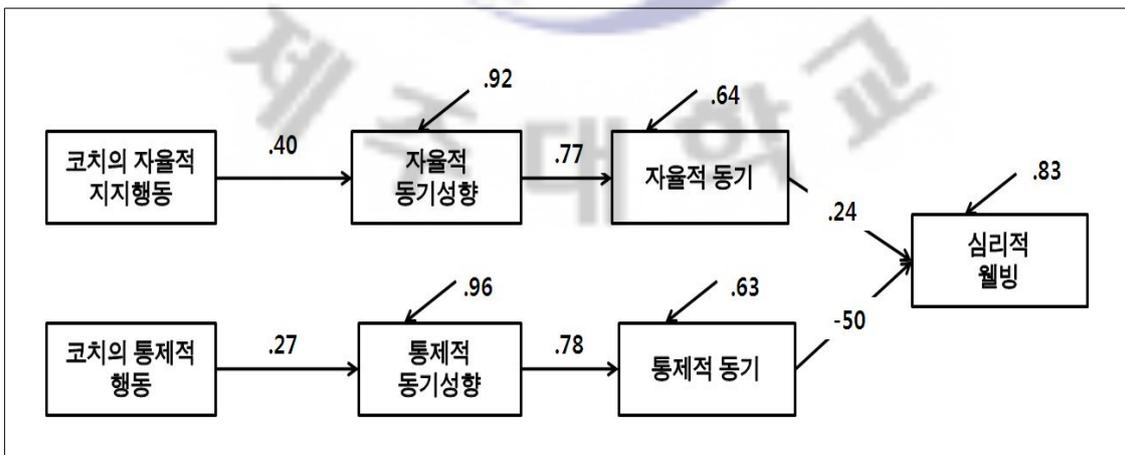


그림 13. 코치지지행동, 동기성향, 동기, 심리적 웰빙간의 관계 (Smith, Ntoumanis, & Duda, 2010)

Kennedy, Goggin, & Nollen(2004)은 지도자와 가족의 자율적 지지는 자율적 동기와 지각된 유능감에 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적 동기와 지각된 유능감을 경유하여 규칙에 정(+)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도자, 가족의 자율적 지지는 심리적 고통과 규칙에 부(-)의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율적 지지는 결과변인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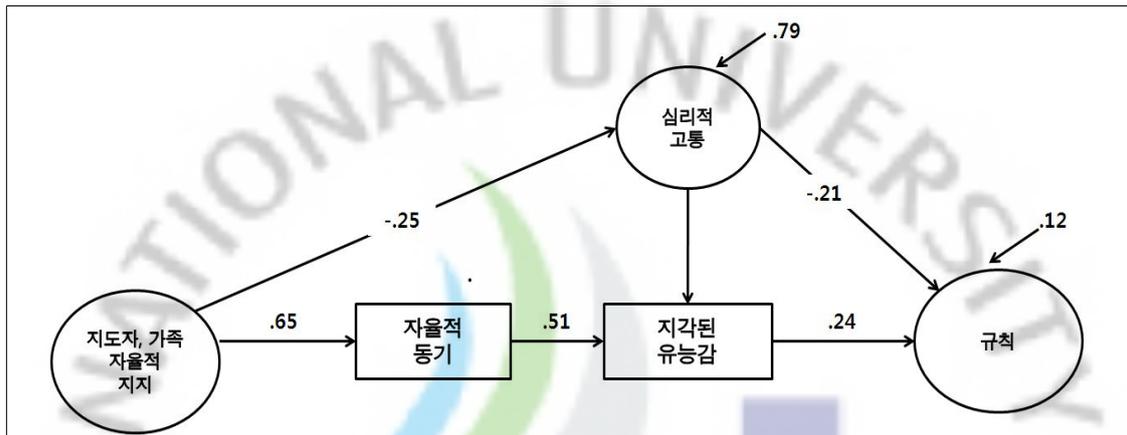


그림 14.. 자율적 지지, 자율적 동기, 지각된 유능감, 심리적 고통, 규칙간의 관계 (Kennedy, Goggin, & Nollen, 2004)

Chirkov, Ryan(2001)은 자기결정 이론에 제안하는 사회 환경적요인 중 부모의 지지는 확인적 조절에 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 동기와는 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의 지지는 내적동기와 확인적 조절에서 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동기와는 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자기결정 이론 제안한 모형을 지지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자율적 지지는 자기 조절 동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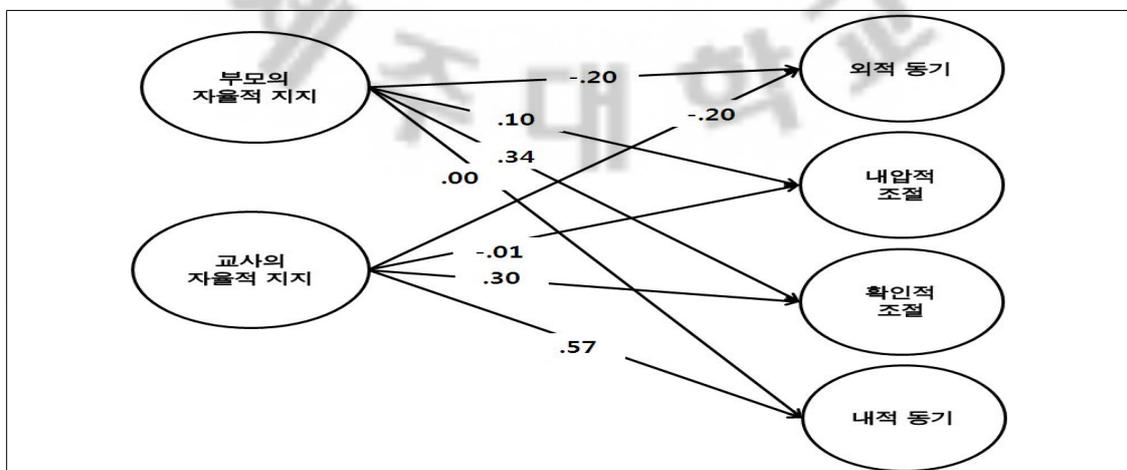


그림 15. 자율적 지지와 자기조절 동기간의 관계(Chirkov, Ryan,2001)

### Ⅲ. 연구 1: 코치-선수관계척도의 타당화 검증

#### 1. 문제제기

##### 1) 연구목적

연구 1의 목적은 코치-선수관계의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코치와 선수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Jowett와 Ntmoumanis(2004)가 코치-운동선수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Q)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주로 리더십 관점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검증하거나 그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의 개념적 모형이 제시되었다(Jowett & Meek, 2000; Mageau & Vallerand, 2003; Poczwardowski, Barott, & Henschen, 2002). 가령, Poczwardowski, Barott, & Henschen(2002)은 수행과제와 관련된 지도 요인, 정서 인지적 측면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 코치와 운동선수 사이의 믿음과 관련된 요인으로 이루어진 코치-운동선수의 관계를 개념화 하였다.

Poczwardowski, Barott, & Henschen(2002)이 코치-운동선수 관계의 역동성과 맥락을 탐색하기 위해 발전시킬 질적-해석적 틀은 코치-운동선수 관계 분야의 출발점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동료들(Jowett & Cockerill, 2002; Jowett & Meek, 2000)은 일련의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코치-운동선수 관계의 주요 구성개념을 친밀감(Closeness; 좋아함, 신뢰, 상호존중 등의 정서적 상호 의존성)과 공동 지향성(Co-orientation; 열린 대화와 의사결정, 타협), 상보성(Complementarity; 수행향상을 위한 협력적 상호작용)으로 확인 하였다. 코치-운동선수 관계에서 친근감과 공동 지향성, 상보성의 부재는 대인간의 갈등으로 연계된다(Jowett & Meek, 2000; Shepherd, Lee, & Kerr, 2006).

코치와 운동선수의 관계는 결국 대인간의 만족이 결과변인과 선행변인으로 취급되며 이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Hende, 1997). 코치-운동선수 관계를 규명한 연구자들(Balagur, Duda, Atienza, Mayo, 2002; Eys, Loughhead, & Hardy, 2007; Sullivan & Gee, 2007)은 선수들의 만족이 코칭행동, 코치-선수의 융화,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선수가 코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만족할수록 수행 향상과 팀의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Fraser-Thomas, Cote, & Deakin, 2008; Philippe & Seiler, 2006). 친사회적 성향(Rutten, Dekovic, Stams, Schulengel, Hoeksma, & Biesta, 2008). 팀 응집력과 원활한 의사소통(Loughhead & Carron, 2004; Shorts, 2005), 정직성, 존중, 수용, 협동 등을 보인다(Jowett & Cockerill, 2003).

국내 체육학 분야에서는 김기형, 박중길(2008)이 Jowett와 Ntmoumanis(2004) 코치-

운동선수관계의 척도를 번안하여 국내 운동선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코치-운동선수관계 척도를 개발하였다. 김기형, 박중길(2008)은 코치-선수관계척도 11문항 3요인(친근감, 헌신, 상보성)을 개발하여 타당화 검증을 하였으며, 코치-선수관계, 욕구만족, 신체적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박중길, 2009). 하지만 김기형, 박중길(2008)과 Jowett 와 Ntmoumanis(2004)의 코치-선수관계 척도는 단체종목 선수들에게만 적용하여 개발된 척도이므로 개인종목과 단체종목 선수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코치-선수관계척도에 대한 타당화 검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코치-선수관계척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종목 예를 들면, 단체종목과 개인종목의 선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스포츠의 특성을 반영한 의미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또한,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사회 환경적 요인(예, 부모, 동료, 친구, 교사, 코치-선수관계, 코칭행동, 리더십 등)은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결과변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Vallerand & Fortier, 1998; Wilson, Rodgers & Fraser, 2002; Hagger, Culverhouse, Chatzisarantis, & Biddle, 2003; Amorose & Anderson-Butcher, 2007).

따라서 코치-선수관계와 관련이 있는 준거 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타당도를 입증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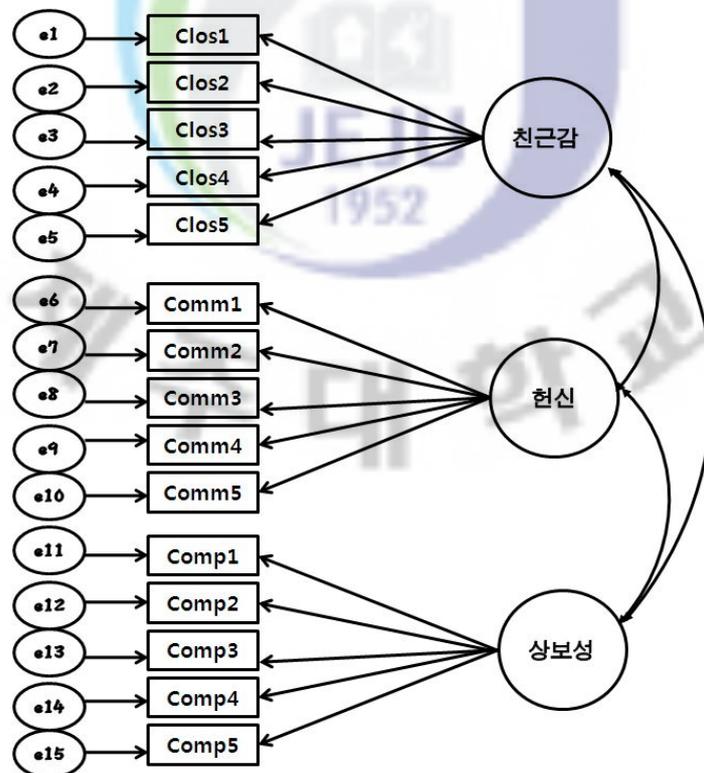


그림 16. 연구 1의 모형

### 3)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 1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첫째, 코치-선수관계의 요인구조는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둘째, 코치-선수관계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셋째, 코치-선수관계척도의 적합도는 어떠한가?

넷째, 코치-선수관계의 준거관련 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가설), 첫째, 코치-선수관계 척도는 운동유형(개인종목, 단체종목)에 따라 동일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동유형에 따른 코치-선수관계 구인 잠재평균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연구 1의 대상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를 포함한 총 15지역의 28개 대학의 운동선수 3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조사대상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단계 유층 집락 표집방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운동선수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176명(54%)이었고, 여학생이 150명(46%)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11명(34%), 2학년이 74명(22.7%), 3학년이 74명(22.7%), 4학년이 67명(20.6%)이었다.

개인종목(육상, 검도, 수영, 근대5종, 태권도)이 160명(49%), 단체종목(야구, 핸드볼, 축구, 농구, 배구) 166명(51%)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설문지의 내용은 운동선수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 3문항, 운동경력 1문항, 운동시간 1문항, 입상실적 1문항, 주전/비주전 1문항, 운동종목 1문항, 코치-선수관계 15문항, 운동만족 11문항, 내재적 조절 3문항, 확인적 조절 3문항, 몰입 3문항, 운동지속의도 4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

표 3. 설문지의 주요구성 내용

구성 지표	구성내용	문항 수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1), 학년(1), 지역(1)	3
운동경력	경력(1)	1
운동시간	시간(1)	1
입상실적	실적(1)	1
주전/비 주전	주전/비 주전(1)	1
운동종목	종목(1)	1
코치-선수관계	친근감(5), 헌신(5), 상보성(5)	15
운동만족	과제수행만족(4), 코치지도성만족(4), 사회적 상호작용만족(3)	11
자율적 동기	내재적 조절(3), 확인적 조절(3)	6
몰입	운동몰입(3)	3
운동지속의도	운동지속의도(4)	4
총 문항		47

### (1) 지각된 코치-선수 관계

본 연구에서 운동선수들의 자율성 지각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코치-선수 척도는 1단계(예비조사)에서 코치-선수관계 척도는 Jowett와 Ntoumanis(2004)의 코치-운동선수 관계 척도(CART-Q)를 영어전공자 1명(영어전공 박사), 스포츠심리학전공자 2명(체육학박사) 총 3명의 회의를 걸쳐 번안한 질문지와 김기형, 박중길(2008)이 국문판(KrCART-Q)으로 제작한 질문지를 1단계(예비조사 실시), 2단계(개방형조사), 3단계(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1단계(예비조사: 부록1, 2참조)에는 총 94명(남자 61명, 75.5%, 여자 33명 24.5%)의 고·대학 운동선수들이 참여하였으며, 2단계(개방형 조사: 부록 3참조)는 (남자 70명, 여자 39명), 고·대학·실업 운동선수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3단계(사전조사: 부록 4, 5, 6참조)는 210명의 고·대학·실업(남자 125명, 여자 85명)운동선수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3단계 사전조사는 예비조사와 개방형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15문항의 최종문항을 선정하여 예비조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먼저, 예비 질문지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 선별은 공통분(communality), 요인적재치, 여러 요인에 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공통분인 경우 1에 가까우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의심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낮으면 변인들간 선형 조합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KMO의 표본 적합성 지수를 살펴본 결과 적합도 지수는 .817로 나타나 문항간 상관관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결과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Bartlett의 구형검정=542.282,  $p=.000$ ). 최종 질문지의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부록 5, 6참조>에서 15문항 3요인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친근감 .96, 헌신 .96, 상보성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코치-선수관계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개요인 15문항이 추출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KMO의 표본 적합성 지수를 살펴본 결과 적합도 지수는 .895로 나타나 문항간 상관관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Bartlett의 구형검정=4299.736,  $p=000$ ). 확정된 15문항 3개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친근감이 Cronbach's  $\alpha$  값이 .97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헌신에서 .910, 상보성은 역시 .972로 높게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의 값이 .056로 기준치에 부합하였으며, 부차적인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코치-선수관계의 측정모형은 수용할 만 것으로 판단된다( $\chi^2=175.100$ ,  $df=87$ ,  $p<.000$ ;  $Q=2.00$ ,  $TLI=.982$ ,  $CFI=.985$ ,  $RMSEA=.056$ ).

표 4. 코치-선수관계의 기술통계량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	문항	기술통계			요인적재치			공통분
		M±SD	왜도	첨도	1	2	3	
친근감	Clos2	5.02±2.09	-.456	-1.198	.971	.009	.013	.930
	Clos1	5.05±1.92	-.344	-1.025	.964	.004	.021	.916
	Clos3	5.02±2.09	-.556	-1.471	.958	.009	.014	.932
	Clos4	5.09±1.99	-.568	-.687	.952	.011	.029	.916
	Clos5	4.91±2.04	-.493	-1.399	.902	.028	.020	.822
헌신	Comm2	5.77±1.57	-.645	-.399	.034	.879	.031	.817
	Comm1	5.77±1.60	-.672	-.613	.085	.872	.021	.835
	Comm4	5.70±1.60	-.674	-.346	.067	.866	.040	.825
	Comm3	5.71±1.600	-1.085	-.409	.006	.854	.079	.792
	Comm5	4.89±2.05	-.678	-1.109	.090	.744	.079	.778
상보성	Comp2	5.22±2.05	-.768	-.456	.009	.022	.964	.897
	Comp1	5.12±2.08	-.590	-.946	.030	.020	.962	.908
	Comp3	5.122±2.08	-.756	-1.077	.007	.030	.946	.915
	Comp5	5.177±1.90	-.633	-1.309	.020	.029	.936	.911
	Comp4	5.17±1.90	-.469	-.912	.014	.002	.929	.872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919		고유치		7.280	3.297	2.189		
Bartlett의 구형검정=6043.529		공통분산%		48.536	21.982	14.593		
df=105, p=000		누적분산%		48.536	70.518	85.111		
Cronbach's Alpha				.973	.910	.972		

(2) 자율적 동기

자기조절 동기 척도는 양명환(2004)개발한 13문항의 레저스포츠동기척도 중 내재적 조절 3문항, 확인적 조절 3문항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레저스포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개발된 질문지이지만 스포츠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질문지 이다. 자기조절 동기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요인 6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3$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척도는 내재적 동기, 확인적 조절 6문항의 평균값을 자율적 동기로 명명하였다.

### (3) 몰입

스포츠 몰입 검사지는 Jackson과 Marsh(1996)가 개발한 몰입상태척도(Flow State Scale)를 손영수, 최만식, 문익수(2002)가 한국형으로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1요인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몰입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인 3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6$ 로 높게 나타났다. 이 척도는 3문항의 평균값을 몰입으로 명명하였다.

### (4) 운동지속의도

Ajzen과 Driver(1992)가 개발한 질문지를 성장훈(2002)이 번안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운동지속의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인 4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5$ 로 높게 나타났다. 이 척도는 4문항의 평균값을 운동지속의도로 명명하였다.

### (5) 운동만족

운동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Chelladurai와 Carron(1985), Widmeyer와 Williams(1991)가 개발한 운동부 수행만족도 검사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김명철, 노영태(2005)가 번안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11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11문항의 3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전혀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 Likert scale(5단계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운동만족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9문항이 추출되었으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과제수행만족이 Cronbach's  $\alpha$  값이 .801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코치지도성만족은 .752,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은 .776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감독 선생님과 전화 통화 또는 면담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 배포와 회수는 직접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으며, 몇몇 시도에 소재한 대학교 운동부는 우편으로 송부한 후 조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조사는 2010년 5월 초부터 7월말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를 허락한 운동부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응답요령을 간략히 설명한 후, 있는 그대로 솔직한 응답을 부탁하였다. 운동선수들이 질문지에 응답하는 동안 코치에게 자

리를 피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대학교 운동선수들은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질문지를 완료하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부된 질문지는 총 350부였으나, 질문지에 대한 응답이 50%이상 되지 않은 자료와 응답 고정화 현상을 보이는 자료를 24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26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분석

최종적으로 선정된 자료들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과 AMO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코치-선수관계, 자기조절 동기, 몰입,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추출법(maximum likelihood extraction method: ML)과 사각회전 방식인 프로맥스회전(promax rotation)을 사용하여 고유치가 1이상, 요인적재치가 .50이상, 그리고 공통분(communality)이 .40이상인 문항을 선별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선행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지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둘째, 코치-선수관계 척도가 다양한 운동유형(개인종목, 단체종목)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척도의 동일성 검증은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과 요인분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운동유형에 따른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잠재평균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고 다른 집단과의 상대적 잠재평균을 산출하였으며, 효과 크기를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넷째, 코치-선수관계척도의 준거 타당도(공인타당도, 예언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타당도의 검증은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섯째, 모든 분석에서 유의 수준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 3. 연구 결과

#### 1)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간의 기존 관계를 확인하고 이 척도의 가설적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5개의 측정변수가 3개의 잠재요인에 부하하고 잔차들간에 모두 상관이 없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X^2$  검증을 기본적으로 평가하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와는 비교적 독립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나타내주는 RMSEA, TLI와 CFI등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표 5>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가 나타났다. 코치-선수관계의 3요인 모형 구조는 1요인 모형의 구조에 비해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982, CFI=.985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RMSEA=.056로 우수한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08보다 작아 수용 가능한 수준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표 5. 코치-선수관계척도의 적합도 지수(n=326)

모형	CMIN(df)	p	CMIN/df	TLI	CFI	RMSEA
3요인	175.100(87)	.000	2.00	.982	.985	.056
1요인	722.246(90)	.000	8.02	.725	.794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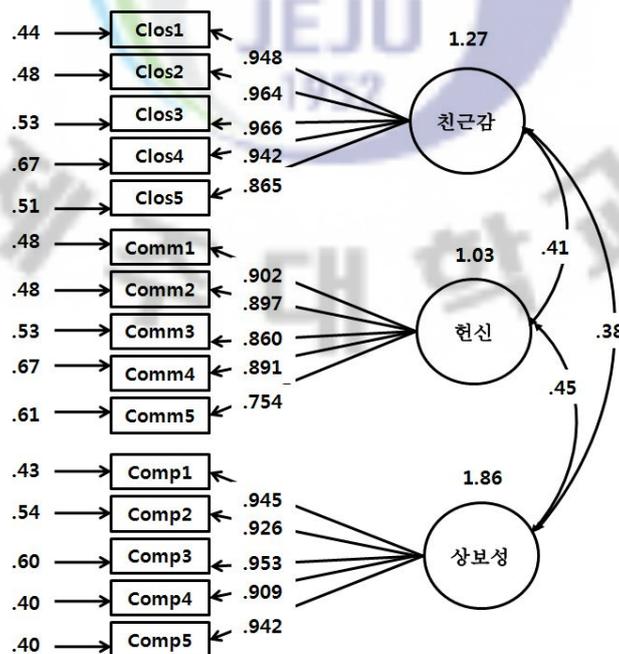


그림 17. 코치-선수관계 측정모형의 경로도형

또한<그림 17>를 통해 3요인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친근감은 .86~.96, 헌신 .75~.90, 상보성 .90~.94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각 요인에서 .80이상의 높은 적재치를 보였으며 친근감 1, 2, 3, 4, 5 문항들은 .90에 근접한 요인 적재치를 나타냈다. 헌신 5에서 .754의 적재치를 보였으며, 1, 2, 3, 4번 문항은 대체로 .80이상의 적재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상보성은 1, 2, 3, 4, 5문항 전체가 .90이상의 적재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상관관계에서는 친근감과 헌신은 .41, 헌신과 상보성은 .45로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친근감과 상보성은 .38로 다소 낮은 상관을 보였다.

<표 6>은 코치-선수관계 3요인의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 6. 측정모형에 대한 경로 추정치 결과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p	표준화 추정치	SMC
Clos1←친근감	1.000			.000	.948	.899
Clos2←친근감	.965	.024	40.698	.000	.964	.930
Clos3←친근감	1.018	.025	41.348	.000	.966	.934
Clos4←친근감	.911	.025	36.091	.000	.942	.886
Clos5←친근감	.887	.033	26.526	.000	.865	.748
Comm1←헌신	1.000			.000	.902	.813
Comm2←헌신	.975	.039	24.690	.000	.897	.804
Comm3←헌신	.951	.043	22.298	.000	.860	.739
Comm4←헌신	.986	.041	24.246	.000	.891	.795
Comm5←헌신	.886	.071	11.048	.000	.754	.707
Comp1←상보성	1.000			.000	.945	.893
Comp2←상보성	.946	.029	32.786	.000	.926	.857
Comp3←상보성	1.047	.028	37.690	.000	.953	.908
Comp4←상보성	.893	.029	30.632	.000	.909	.827
Comp5←상보성	.947	.027	35.307	.000	.942	.888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요인 모형에 대한 모든 문항의 비표준화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요인의 적재치들(CR)은 1.96Z 값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요인 적재치(C.R) 값이 1.96Z 값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이순목, 2000), 이것은 표준화추정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각 요인간에는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노형진, 2008). 또한, 표준오차(S.E)도 최소 .024(친근감→Clos2)에서 최대.071헌신→Comm5)까지의 범위에 있어 한계치  $\pm 2.5$  이상의 경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각 문항의 표준화 추정치도 .75에서 .96까지 매우 안정적인 값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와 경로 추정치를 고려할 때, 3요인의 측정모형은 수용할 수 있는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 2)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표 7. 운동유형에 따른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모형	CMIN(df)	p	SRMR	TLI	CFI	RMSEA
개인종목	153.573(87)	.000	.060	.957	.964	.065
단체종목	181.643(87)	.000	0.53	.955	.963	.081

<표 7> 은 운동유형에 따른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오차 상관을 허용한 상태로 운동유형에 따른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운동 집단이 적합도 지수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chi^2=153.573$ ,  $df=87$ ,  $\rho=.000$ ,  $Q=1.76$ ,  $TLI=.957$ ,  $CFI=.964$ ,  $RMSEA=.065$ ). 다음으로 단체종목 집단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 하게 나타났다( $\chi^2=181.643$ ,  $df=87$ ,  $\rho=.000$ ,  $Q=2.08$ ,  $TLI=.955$ ,  $CFI=.963$ ,  $RMSEA=.081$ ).

### 3)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동일성 검증

운동유형(개인, 단체)에 따라 코치-선수관계가 얼마나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의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집단 간 잠재변인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동일성 검증을 위해 이용된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8>,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8.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chi^2$	df	p	TLI	RMSEA
모형 1: 형태 동일성(기저모형)	335.213	174	.000	.951	.053
모형 2: 측정 동일성	356.203	186	.000	.957	.050
모형 3. 절편 동일성	339.041	194	.000	.958	.048
모형 4. 요인 분산 동일성	392.385	227	.000	.958	.045

#### (1)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운동유형(개인, 단체종목)에 따른 형태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어떠한 제약도 가지지 않은 기초모형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이 경우 기초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나면,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하게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확인 되었다( $\chi^2=335.213$ ,  $df=174$ ,  $\rho=.000$ ,  $Q=1.92$ ,  $TLI=.951$ ,  $RMSEA=.053$ ).

(2)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두 집단(개인, 단체종목)의 요인계수가 같다고 가정했을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고자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했다. 이어서 개인, 단체 운동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과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초모형과 비교하여 두 모형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9. 동일성 검정에 대한 카이제곱 차이 검증 결과

모형	$\chi^2$	df	p
측정 동일성 검증: 모형 1 vs 모형 2	38.828	20	.251
절편 동일성 검증: 모형 2 vs 모형 3	44.182	21	.122
요인 분산동일성 검증: 모형 3 vs 4	8.838	8	.164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이가  $\chi^2$  38.83이고, 자유도(df)의 차이가 20으로 두 모형의 차이가  $\alpha=.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p=.251$ ), 대립가설을 기각하고 종목유형간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chi^2$  검증은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례 수에 민감한 문제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례 수에 영향을 덜 받는 TLI와 RMSEA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CFI는 다중집단 분석에서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지 못해 유용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TLI와 RMSEA를 살펴본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 1보다 모형 2에서 적합도 지수(TLI=.951  $\rightarrow$  .957, RMSEA=.053  $\rightarrow$  .050)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코치-선수관계가 운동유형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절편 동일성 검증 절차가 가능하다.

(3)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절편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절편 동일성은 측정모형과 두 집단(개인, 단체종목)간에 요인계수와 절편까지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간에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면 절편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세 집단간 요인계수가 모두 같다는 모형 2와 각 측정변수의 절편까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 3을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모형 3과 모형 2를 비교하기 위해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i^2$  차이가 44.18이고, 자유도(df)의 차이가 21로 두 모형의 차이가  $\alpha=.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p=.122$ ), 대립가설을 기각하고 운동유형간 절편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채택하였다. 또한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 2보다 모형 3에서 적합도지수(TLI=.957  $\rightarrow$  .958, RMSEA=.050  $\rightarrow$  .048)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절편 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운동유형별 평균차이는 잠재 특성에 대한 두 집단 실제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 단체종목 두 집단간의 절편 동일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다음단계인 잠재평균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다.

#### 4) 잠재평균 분석(LMA: latent mean analysis)

코치-선수관계척도의 요인 수 요인계수, 각 측정변수들의 절편까지도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코치-선수관계의 각 요인별 잠재평균이 운동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잠재평균이 운동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잠재평균 분석은 선행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의 가설이 충족되었을 때 실시할 수 있는 분석이다. 잠재평균 분석에서는 상수 1을 각 요인에 대한 독립변수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추정되는 회귀계수가 요인의 평균, 즉 잠재평균이 된다. 잠재평균 분석에서는 요인의 평균을 직접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집단 중 한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여 구인의 평균차이를 검증할 수 있다(배병렬, 2009;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본 연구에서는 개인운동 유형의 잠재변인 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개인과 단체운동 유형 집단의 평균값을 상대적으로 추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Cohen의 효과 크기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효과크기(d)는 운동유형에 따라 통합표준편차(pooled standard deviation)에 의하여 두 집단의 평균들을 나눈 값을 의미하며<표 10참조>, 효과크기가  $d<.20$ 이면 작은 수준,  $d<.50$  이면 중간 수준,  $d<.80$  이면 큰 수준으로 해석하였다.

표 10. 효과크기와 통합표준편차 공식

$ES = \frac{M1 - M2}{SD_{pooled}}$	$SD_{pooled} = \sqrt{\frac{s_1^2(n_1 - 1) + s_2^2(n_2 - 1)}{n1 + n2 - 2}}$
효과크기 M1: 집단 1의 평균 M2: 집단 2의 평균 SD pooled: 통합표준편차	통합 표준 편차 $s_1^2$ : 집단 1의 변량 $s_2^2$ : 집단 2의 변량 $n_1$ : 집단 1의 사례 수 $n_2$ : 집단 2의 사례 수

표 11. 운동유형별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잠재평균 비교

잠재변인	개인	단체	효과크기
친근감	.000	.342**	.50
헌신	.000	.218	.28
상보성	.000	.318**	.35

\*\*P<.01

<표 11>은 잠재평균 추정값과 효과크기(d)를 산출한 결과이다. 코치-선수관계에서 개인종목과 단체종목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개인 종목 집단은 단체종목 집단에 비해 낮은 잠재평균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에서 개인종목 보다 단체종목에서 친근감, 헌신, 상보성에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친근감과 상보성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Cohen의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친근감요인에서  $d < .50$  이상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헌신, 상보성 요인에서  $d < .20$  이상으로 나타나 작지 않은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개인종목과 단체종목 집단에서는 집단의 효과크기도 낮게 나타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5) 코치-선수관계척도의 준거 타당도

코치-선수관계와 외적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준거변인으로 몰입, 자율적 동기,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코치-선수관계와 관련이 있는 외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다. 먼저, 코치-선수관계의 각 하위요인들과 외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공인타당도를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코치-선

수관계의 구인들이 각 외적 변인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예언 타당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표 12. 코치-선수관계, 자율적 동기,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간의 상관관계

변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	몰입	자율적 동기	운동지속 의도	운동만족	M±SD
친근감	1.000							5.05±1.97
헌신	.365**	1.000						5.75±1.47
상보성	.424**	.491**	1.000					5.17±1.93
몰입	.211**	.323**	.421**	1.000				4.25±.98
자율적 동기	.264**	.291**	.439**	.521**	1.000			5.27±1.02
운동지속의도	.271**	.301**	.487**	.478**	.747**	1.000		4.32±0.98
운동만족	.661**	.598**	.570**	.289**	.254**	.556**	1.000	4.15±.76

\*\*p<.01

<표 12>는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친근감, 헌신, 상보성)과 자율적 동기,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은 준거변인인 자율적 동기( $r=.264$ ), 몰입( $r=.211$ ), 운동지속의도( $r=.271$ ), 운동만족( $r=.661$ )과 높은 정(+)의 상관을 보임으로써 모두 이론적 근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한 척도임을 하였다. 그리고 헌신은 자율적 동기( $r=.291$ ), 몰입( $r=.323$ ), 운동지속의도( $r=.301$ ), 운동만족( $r=.598$ )과 높은 정(+)의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상보성은 자율적 동기( $r=.439$ ), 몰입( $r=.421$ ), 운동지속의도( $r=.487$ ), 운동만족( $r=.570$ )과 매우 높은 정(+)의 상관을 보였으며, 몰입은 자율적 동기( $r=.521$ ), 운동지속의도( $r=.478$ ), 운동만족( $r=.289$ )과 매우 높은 정(+)의 상관을 보였다. 자율적 동기는 운동지속의도( $r=.747$ )와 운동만족( $r=.254$ )과 정(+)의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운동지속은 운동만족( $r=.556$ )과 정(+)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13>은 상관관계에 근거하여 코치-선수관계 구인들이 내재적 동기, 운동지속의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상태지수(condition number: CN)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VIF는 10보다 현저히 낮으며, 최대의 상태지수를 갖는 고유벡터가 90% 이상 설명하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내재적 동기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적 동기에 대한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43.0%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322)=11.368, p<.000, Durbin-Watson=1.866$ ).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친근감(Beta=.373), 상보성(Beta=.207), 헌신(Beta=.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몰입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41.3%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 322)=416.589,  $p < .000$ , Durbin-Watson=1.889]. 운동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친근감(Beta=.228), 상보성(Beta=.276), 헌신(Beta=.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동지속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50.8%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 338)=14.060,  $p < .000$ , Durbin-Watson=1.714]. 운동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친근감(Beta=.357), 상보성(Beta=.295), 헌신(Beta=.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제수행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24.9%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 332)=36.858,  $p < .000$ , Durbin-Watson=1.758]. 운동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친근감(Beta=.162), 상보성(Beta=.233), 헌신(Beta=.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치지도성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28.0%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 332)=43.114,  $p < .000$ , Durbin-Watson=1.728]. 운동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친근감(Beta=.231), 상보성(Beta=.198), 헌신(Beta=.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40.8%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 332)=75.613,  $p < .000$ , Durbin-Watson=1.632]. 운동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친근감(Beta=.488), 상보성(Beta=.137), 헌신(Beta=.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동만족의 전체 설명력은 49.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친근감, 헌신, 상보성이 3개의 준거변인들(자율적 동기, 몰입,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을 적절히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치-선수관계척도와 자율적 동기, 몰입,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과 같은 결과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3. 코치-선수관계, 자율적 동기, 몰입,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표준화	t	p	공차 한계	VIF
		회귀계수 B	S.E	회귀계수 (Beta)				
자율적 동기	상수	1.398	.331		4.236	.000		
	친근감	.319	.184	.373	2.835	.001	.756	1.322
	헌신	.150	.068	.185	1.513	.000	.844	1.184
	상보성	.239	.163	.207	2.365	.002	.799	1.252
R=509, R <sup>2</sup> =.435, Adjusted R <sup>2</sup> =.430, F(3, 322)=11.368, p=.000, Durbin-Watson=1.866								
몰입	상수	.019	.134		1.143			
	친근감	.225	.031	.228	3.942	.025	.756	1.322
	헌신	.006	.024	.117	1.224	.032	.844	1.184
	상보성	.060	.027	.276	2.250	.000	.799	1.252
R=491, R <sup>2</sup> =.415, Adjusted R <sup>2</sup> =.413, F(3, 322)=416.589, p=.000, Durbin-Watson=1.889								
운동지속의도	상수	1.483	.314		4.725	.000		
	친근감	.309	.180	.357	2.607	.010	.756	1.322
	헌신	.184	.074	.187	1.519	.003	.844	1.184
	상보성	.302	.162	.295	3.323	.001	.799	1.252
R=640, R <sup>2</sup> =.518, Adjusted R <sup>2</sup> =.508, F(3, 338)=14.060, p=.000, Durbin-Watson=1.714								
과제수행만족	상수	1.737	.162		10.734			
	친근감	.091	.041	.162	2.240	.026	.442	1.263
	헌신	.125	.035	.233	3.592	.000	.550	1.817
	상보성	.103	.036	.190	2.874	.004	.530	1.888
R=506, R <sup>2</sup> =.256, Adjusted R <sup>2</sup> =.249, F(3, 322)=36.858, p=.000, Durbin-Watson=1.758								
코치지도성 만족	상수	2.253	.151		14.887	.000		
	친근감	.124	.038	.231	3.266	.001	.442	1.263
	헌신	.096	.032	.188	2.961	.003	.550	1.817
	상보성	.102	.034	.198	3.056	.002	.530	1.888
R=535, R <sup>2</sup> =.287, Adjusted R <sup>2</sup> =.280, F(3, 322)=43.114, p=.000, Durbin-Watson=1.728								
사회적 상호작용 만족	상수	1.917	.147		13.000	.000		
	친근감	.281	.037	.488	7.596	.000	.442	1.263
	헌신	.097	.032	.176	3.059	.002	.550	1.817
	상보성	.021	.033	.137	.632	.028	.530	1.888
R=643, R <sup>2</sup> =.413, Adjusted R <sup>2</sup> =.408, F(3, 322)=75.613, p=.000, Durbin-Watson=1.632								
운동만족	상수	1.969	.103		19.066	.000		
	친근감	.165	.026	.377	6.381	.000	.442	1.263
	헌신	.106	.022	.253	4.778	.000	.550	1.817
	상보성	.075	.023	.178	3.295	.001	.530	1.888
R=709, R <sup>2</sup> =.502, Adjusted R <sup>2</sup> =.498, F(3, 322)=108.289, p=.000, Durbin-Watson=1.682								

\*p<.05, \*\*P<.01, \*\*\*p<.001

#### 4. 논의

연구1의 국내 체육학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들은 특정 이론에 근거하여 제작된 검사지들도 있지만, 타 영역에서 사용했던 질문지를 수정해서 사용하거나 외국의 질문지를 번역해서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박중길, 2009). 따라서 연구 1의 목적은 코치-선수관계척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4개(자율적 동기, 몰입,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의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1의 첫 번째 목적은 사전조사에서 확인된 3요인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전조사에서 확인된 3요인구조는 본 조사에서 지지되었으며, 다음 단계로 코치-선수관계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요인 15문항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Jowett와 Ntoumanis(2004)는 단체종목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코치-선수관계척도(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Q)를 개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에서도 Jowett와 Ntoumanis(2004)가 개발한 코치-선수관계척도(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Q)를 김기형, 박중길(2008)은 단체종목(야구, 축구, 배구, 농구, 핸드볼, 아이스하키, 럭비, 필드하키, 소프트볼)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코치-운동선수관계 척도의 구조적 타당화를 검증한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10문항 3요인(친근감, 헌신, 상보성)의 한국판 코치-선수관계 척도를 완성하였고, 문항 내적 일관성과 재검사법에 의한 신뢰도는 일관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역시 검증되었다. 따라서 코치-선수관계척도에 대한 지속적인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코치-운동선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련변인들이 탐색되는 경우에 효율적인 코치 교육프로그램과 코치-운동선수 관계, 그로 인한 결과변인(예, 동기, 수행, 운동만족, 안녕감 등)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전략임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단체종목의 선수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들어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상황에서 코치-선수관계척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척도의 동일성 검증은 내재적 모형들에 대한 위계적 분석 절차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의 세 가지 가정이 모두 성립되어 개인종목과 단체종목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종목과 단체종목간에는 코치-선수관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동유형별로 코치-선수관계의 수준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잠재변수별로 요인간 상관을 살펴보면, 친근감과 헌신이 .365, 헌신과 상보성이 .491, 친근감과 상보성이 .42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afreniers, Jowett, Vllerland, Donahue, & Lorimer(2008)이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근감과 상보성은 헌신보다 더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코치-선수관계척도는 선행연구(Jowett, Ntoumanis, 2004)에서 제안하는 코치-선수관계의 개념들을 응집력 있게 포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 1의 두 번째의 목적은 코치-선수관계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선정된 4개의 외적 변수(자율적 동기, 몰입,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간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들과 4개의 외적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친근감, 헌신, 상보성의 코치-선수관계 요인들은 자율적 동기, 몰입,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과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공인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어서 코치-선수관계척도의 하위요인들이 4개의 외적변인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친근감, 헌신, 상보성 요인 모두 4개의 외적 변인들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언 타당도 역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중·고등학교(농구선수 231명, 럭비 19명)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코치-선수관계(대화, 기술지도, 믿음, 격려, 노하우)는 내적동기(유능, 노력)에 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치선수관계(대화, 기술지도, 믿음, 격려, 노하우)는 만족도(개인만족, 팀 만족, 지도자만족)에 부(-)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팀 스포츠에서는 지도자와 선수, 선수와 선수간의 상호작용이 실제 현장에서 민주적이고 효율성 있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들의 관계가 불평등, 불균형,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이루어져 있다(Drewe, 2002)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수는 코치에게 복종적이고, 코치의 지배와 권력이 절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Burke, 2001)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 선행연구에 비해 우리나라 단체종목의 중, 고, 대학생 선수들은 아직까지 불평등, 복종적인 체계가 남아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팀, 지도자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 문항에 부적인 관계로 답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팀 스포츠의 내적, 외적 분위기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코치-선수관계와 내적동기간의 영향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Balagur, Duda, & Atienza, Mayo(2002)는 여성 핸드볼 운동선수들의 주관적인 평가에서 코치-선수관계와 운동만족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Lafreniere, Jowett, & Vallerand, Carbonmeau(2010)는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만족간의 관계에서 코치의 자율성 운동만족 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제적 행동은 운동만족에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수들은 코치의 통제적 행동보다는 자율성 지지를 선호하여 운동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 Chelladurai(1978)에 의하면 다차원 지도자 행동 모형에서 운동만족은 지도자행동에 대한 선호 및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지도자 행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하면 지도자에 대한 운동만족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Chelladurai(1978)는 다차원적 지도자행동 모형을 이용하여 운동선수들의 지도자행동에 대한 선호 및 인식의 일치 정도와 성원만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이 선호한 지도자행동과 인식한 지도자행동의 일치 정도는 운동만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농구 선수들의 지도자 행동에 대한 모든 차원에서 일치 정도는 지도자 행동에 대한 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훈련과 지시행동, 민주적 행동, 사회적 지지 행동, 그리고 보상행동을 더 많이 크다고 하였다. 레슬링 선수들도 훈련과 지시행동, 사회적 지지 행동을 선호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식이 높을수록 지도자행동에 대한 운동만족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그리고 Horne과 Carron(1985)의 캐나다 배구, 농구, 트랙과 필드, 수영 선수 7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지도자행동에 대한 만족의 결정 요인으로서 훈련과 지시행동, 사회적 지지 행동, 긍정적 보상 행동에 대한 일치 정도는 지도자행동에 대한 만족을 28.9%, 11.8%, 3.1%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코칭행동을 선호하는 선수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도자행동에 대한 일치 정도와 일반적 만족의 관계, 세부적인 지도자행동에 대한 만족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일반적 만족은 사회적 지지 행동, 민주적 행동을 선호하는 것에 비해 인식하는 것이 높음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행동, 긍정적 보상행동에 대하여 인식한 점수는 지도자 행동에 대한 일반적 만족과 긍정적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Schliesman, 1987).

Weiss와 Friedrich(1986)는 대학 남자 농구 대표 팀 선수를 대상으로 코치의 지도행동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이 운동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들은 다섯 가지 행동 차원에 대한 인식은 팀 활동과 개인 활동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

며, 긍정적 보상행동이 팀 활동 만족은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 행동과 사회적 지지 행동은 개인 활동 만족을 가장 많이 설명하였고, Dwyer와 Fischer(1990)에 따르면 레슬링 선수들은 코치가 긍정적 보상행동, 훈련과 지시행동을 많이 보이고, 전제적 행동을 덜 보일수록 선수는 지도자행동에 만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코치의 사회적 지지행동을 선호하는 대학 미식축구 선수일수록 운동만족을 높게 지각한다는 Reimer와 Chelladurai(1995)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Philippe, Seiler(2006)는 수영선수를 대상으로 코치-선수관계와 목표설정, 수용과 존중, 의사소통의 관계에서 개인적이며, 배려적이고,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수영선수들은 코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코치의 행동에 의하여 지각된 동기 분위기가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채관석, 1997; 정우학, 2004; 박진국, 2005; 박미경, 2008; 이명원, 2010; 김경진, 2010)선수들은 코치의 긍정적인 행동일수록 과제수행만족과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을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코치의 행동이 선수들에게 수행 학습은 물론 지각된 유능감, 자기 존중감, 성공에 대한 기대, 만족감과 흥미등에 영향을 주고(성창훈, 홍준희, 최은규, 2004), 팀 스포츠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에게 비쳐지는 지도자 유형에 영향을 받으며, 티 만족과 지도자 만족을 높게 기각함으로써 선수 개인 및 팀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김병현, 1990; 이경우, 1999)는 선행 연구 또한 뒷받침해주므로 코치-선수관계가 만족도에 주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보다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코치-선수관계와 운동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 효과 검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 기대한 바와 같이 내적동기와 만족도는 높은 영향력 수준을 나타내며, 기존의 내적동기와 만족도는 코치와 선수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타당도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IV. 연구 2: 사회 환경적요인과 운동만족관계에서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모형

#### 1) 연구 목적

연구 2의 목적은 연구 1에서는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4개의 외적변(자율적 동기, 몰입,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인들과의 관계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안하는 사회 환경적 요인(코치-선수관계)과 결과변인(운동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스포츠 영역에서 자기결정이론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운동행동의 자율적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Wilson과 Rodgers(2004)는 지각된 친구의 자율성 지지는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조절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 스포츠 맥락에서의 연구들은 자율성 지지와 결과변인간의 관계에서 네 가지의 동기유형에 의해 중재된다고 제안하였다(Lim, Wang, 2009).

자기결정이론에서 강조하는 자기결정 동기(자율적 동기, 통제적 동기)는 사회 환경적 요인과 결과변인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yan & Deci, 2002). 그리고 지도자의 행동과 리더십을 선수들이 어떻게 지각하는냐에 따라 내적동기를 예측함으로써 운동만족과 코치에 대한 태도, 재미, 노력, 팀 응집력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성창훈, 1999; 정지혜, 2004; 최성희, 김승철, 2005; 김기형, 박중길, 2008; Balaguer, Duda Atienza, Mayo, 2002; Eys, Loughhead, & Hardy, 2007; Sullivan & Gee, 2007).

Jowett(2008)는 코치-선수관계 척도를 개발하여 다양한 검증을 하기 위해 코치와 선수의 만족을 이끄는 두 가지 동기에 대해 검증한 결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선수들의 수행만족, 지시만족, 코치-선수관계를 중재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검증하였다. 김미선(2009)은 250명의 단체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코치-선수의 상호작용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도 검증 및 코치-선수관계, 내적동기와 만족도의 인관관계 모형을 검증하다.

코치-선수관계에서는 사회 환경적 요인과 감정(친근감), 지각(헌신, 상호지향, 의미), 행동(상보적 상태, 상호작용)은 개인 내의 결과로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과 동기부여, 만족과 같은 행동적 결과에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

였다. 다시 말해서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부여의 계층적 모델을 바탕으로 코치의 자율적 지지가 선수들의 운동만족간의 중재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LaVoi, 2004; Gillet, Vallerand, & Baldes, 2010).

자기결정 이론의 관점에서(Chirkov, Ryan, 2001; Osbaldiston & Sheldon, 2003; Smith, Ntoumanis, & Duda, 2010; Standage, Duda, & Ntoumanis, 2005; Lim, Wang, 2009; Alvarez, Balaguer, Castillo, Duda, 2009; Smith, Ntoumanis, & Duda, 2010; Lafreniere, Jowett, Vallerand, & Cabonneau, 2010; 김미선, 2009; 김덕진, 2010; 양명환, 김덕진, 2010) 사회 환경적요인과 욕구만족, 자기결정 동기 및 결과변인간의 관계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연구 2의 목적은 자기결정 이론에서 제안하는 통합적 모형(Standage, Gillison, & Treasure, 2007, Lim, Wang, 2009)을 토대로 스포츠 상황에서 사회 환경적요인(코치-선수관계)→운동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 효과를 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모형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몇몇 연구자들(양명환, 김덕진, 2010, 김덕진, 2010)은 자기결정 이론에서 제안한 통합 모형(Standage, Gillison, & Treasure, 2007)을 근거로 하여 한국 학생들과 선수들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보다는 학생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 친구의 자율성 지지, 선수들은 코치행동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고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Lim, Wang(2009)는 13-17세인 17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결정 이론의 틀에서 연구가 실시되었다. 먼저 지각된 자율적 지지는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조절에 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내압적 조절, 외적조절, 무동기는 부(-)의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자율성 지지는 자기결정 동기(내재적 동기, 확인적 조절)를 경유하여 의도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자율성 지지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조절을 촉진하여 의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지각된 자율성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lvarez, Balaguer, Castillo, Duda(2009)등과 Standage, Duda, & Ntoumanis, (2005)는 코치의 자율적 지지와 욕구지지(자율성 지지)는 욕구만족과 자기조절 동기(내재적 조절, 확인적 조절) 및 결과변인(정서, 인지, 행동결과)간의 영향을 미친다는 다소의 선행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Smith, Ntoumanis, & Duda(2010)는 코치의 자율적 지지행동은 자율적 동기성향에 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며, 자율적 동기성향은 자율적 동기에 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동기는 결과

변인인 심리적 웰빙에 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며, 코치의 자율적 지지행동은 자율적 동기성향과 통제적 동기성향 경유하여 심리적 웰빙에 정(+)에 간접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코치의 지지행동과 결과변인간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성향과 자율적 동기의 매개 역할을 입증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 사회 환경적요인→자기조절 동기→운동만족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하였고, 몇몇 연구자들(성창훈, 1999; 정지혜, 2004; 김정완, 김정남, 2007; 김기형, 박종길, 2008)에 의해 코치-선수관계, 만족도, 구성원들의 내적동기, 외적동기, 의사소통 그리고 리더십 요인들과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수들의 동기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동기와 운동만족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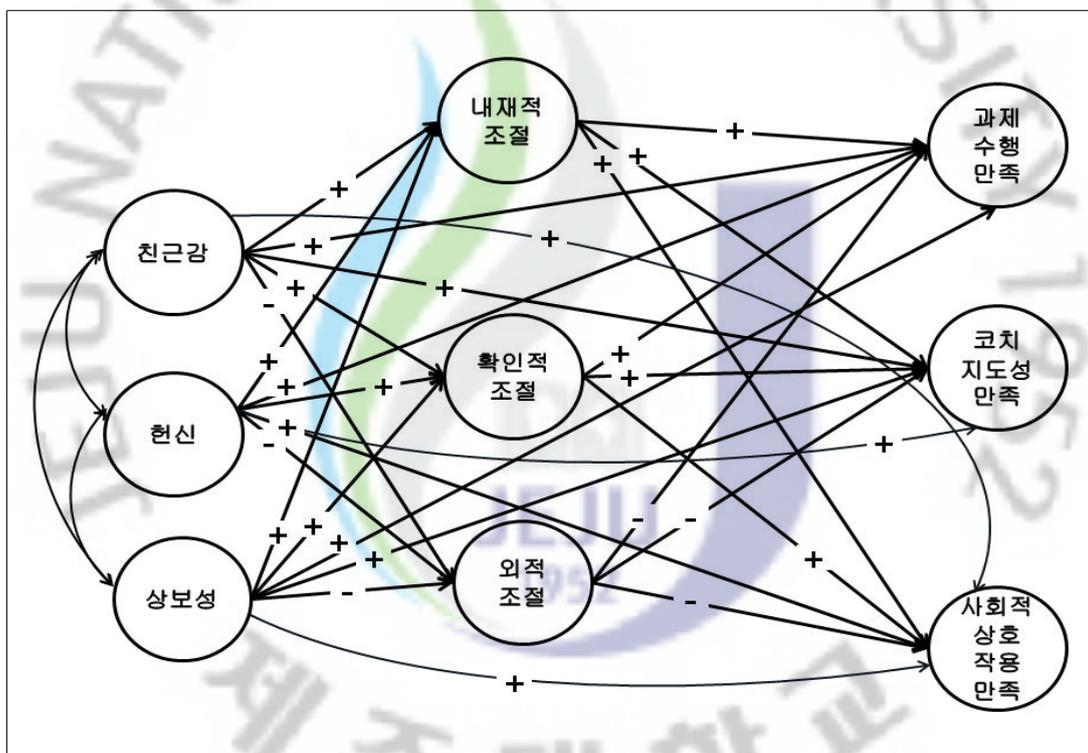


그림 18. 연구2의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김미선(2009)는 코치-선수관계 이론에서 Jowett(2005)의 통합 연구모형과 Kelly와 Thibaut(1978)의 상호의존성 이론을 바탕으로 코치와 선수간의 상호작용은 코치-선수관계→내적동기 및 코치-선수관계→운동만족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다. Chirkov, Ryan(2001)은 자기결정 이론에 제안하는 사회 환경적요인 중 부모의 지지는 확인적 조절에 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 동기와는 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의 지지는 내적동기와 확인적 조절에서 정

(+)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동기와는 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자기결정 이론 제안한 모형을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자율적 지지는 자기조절 동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미선(2009)는 스포츠 상황에서 코치와 선수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잠재변인간의 인과관계의 검증이 필요하며, 코치-선수관계의 긍정적인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코치-선수관계와 동기 및 운동만족간의 관계 검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경로도형(Pelletier, L. G., Fortier, M. S., Vallerand, R. J., & Briere, N. M., 2001; Wilson, Rodgers, 2004; Smith, Ntoumanis, & Duda, 2010)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8>, <그림 19>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사회 환경적요인(코치-선수관계)→자기조절 동기→운동만족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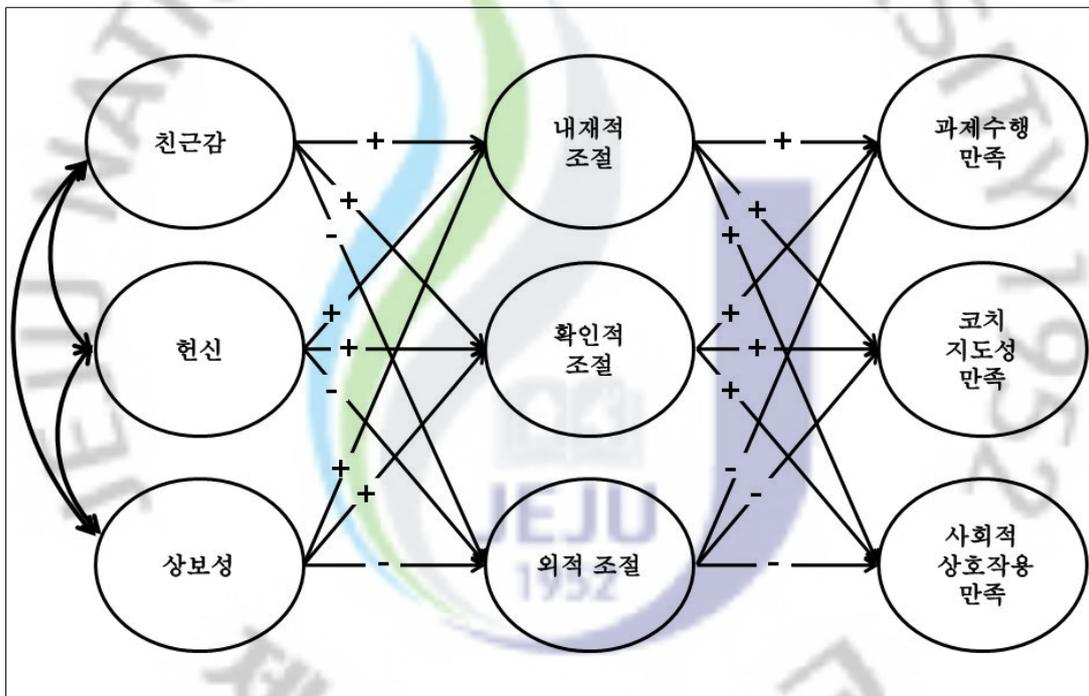


그림 19. 연구 2의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 14>에서는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자기조절 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조절, 확인적 조절 및 운동만족에 정(+)에 관계가 있고,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외적조절과 운동만족에 부(-)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모형보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그림 18>, <그림 19>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다.

### 3) 연구 가설

I, 코치-선수관계,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간에는 정(+) 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II, 코치-선수관계,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간에는 정(+) 또는 부(-)의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1,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친근감은 내재적 조절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2,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친근감은 확인적 조절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3,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친근감은 외적 조절에 부(-)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4,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헌신은 내재적 조절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5,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헌신은 확인적 조절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6,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헌신은 외적 조절에 부(-)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7,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상보성은 내재적 조절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8,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상보성은 확인적 조절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9,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상보성은 외적 조절에 부(-)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10, 운동선수의 내재적 조절은 과제수행만족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11, 운동선수의 확인적 조절은 과제수행만족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12, 운동선수의 외적 조절은 과제수행만족에 부(-)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13, 운동선수의 내재적 조절은 코치지도성만족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14, 운동선수의 확인적 조절은 코치지도성만족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15, 운동선수의 외적 조절은 코치지도성만족에 부(-)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16, 운동선수의 내재적 조절은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17, 운동선수의 확인적 조절은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18, 운동선수의 외적 조절은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에 부(-)의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II-19,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코치-선수관계는 자기조절 동기를 경유하여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에 정(+) 또는 부(-)의 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연구 1의 대상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를 포함한 총 15지역의 35개 팀 실업의 운동선수 3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조사대상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단계 유층 집락 표집방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운동선수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181명(54.8%)이었고, 여학생이 149명(45.2%)이었다. 팀경력은 1년차 61명(18.5%), 2년차 64명(19.4), 3년차 58명(17.6%), 4년차 56명(17.0%), 5년차 50명(15.2%), 6년차 이상 41명(12.4%)이었다. 개인종목(육상, 검도, 수영, 근대5종, 태권도)이 157명(47.6%), 단체종목(하키, 핸드볼, 축구, 농구, 배구) 173명(52.4)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코치-선수관계, 자기조절 동기, 운동만족 척도는 연구 1에서 사용된 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코치-선수관계, 자기조절동기, 운동만족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표 21참조>.

본 연구의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인구통계학적 문항 3문항, 운동경력 1문항, 운동시간 1문항, 입상실적 1문항, 주전/비 주전 1문항, 운동종목 1문항으로 8문항이며, 코치-선수관계 15문항, 자기조절 동기 9문항, 운동만족 11문항으로 총 4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운동종목은 수영, 태권도, 검도, 근대5종, 육상 등은 개인운동종목, 하키, 핸드볼, 축구, 농구, 배구는 단체운동종목으로 분류하였다.

표 14. 설문지의 주요구성 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 수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1), 학년(1), 지역(1)	3
운동경력	경력(1)	1
운동시간	시간(1)	1
입상실적	실적(1)	1
주전/비 주전	주전/비 주전(1)	1
운동종목	종목(1)	1
코치-선수관계	친근감(5), 헌신(5), 상보성(5)	15
자기조절 동기	내재적 동기(3), 확인적 조절(3), 외적조절(3)	9
운동만족	과제수행만족(4), 코치지도성만족(4), 사회적 상호작용만족(3)	11
총 문항		43

### (1) 지각된 코치-선수 관계

코치-선수관계 척도는 연구 1에서 사용했던 Jowett와 Ntoumanis(2004)의 코치-운동선수 관계 척도(CART-Q)와 김기형, 박중길(2008)이 국문판(KrCART-Q)으로 제작한 질문지의 구성내용과 개방형 조사에서 새롭게 추출된 2문항의 내용을 본 연구에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김기형, 박중길(2008)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11문항으로 추출하였으며, 친근감, 헌신, 상보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여 구인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코치-선수관계척도의 신뢰도 계수도 .81에서 .86까지 양호한 값을 보여 신뢰할 수 있는 척도임을 제시하였다.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개요인 15문항이 추출되었으나,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크게 다른 문항과 문항 제거시에 신뢰도가 향상되는 문항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공통분(communality), 요인적재치, 여러 요인에 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공통분인 경우에 1에 가까우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의심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낮으면 변인들간 선형 조합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통분이 지나치게 높거나 .40이하로 낮은 경우, 요인의 적재치가 .50 이상이며, 다른 문항들과의 중복여부를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친근감 3번, 5번, 헌신 3번, 5번, 상보성 4번, 5번이 제거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KMO의 표본 적합성 지수를 살펴본 결과 적합도 지수는 .807로 나타나 문항간 상관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Bartlett의 구형성검정=2208.190,  $p=000$ ). 그리고 문항제거 후 고유치가 1.0 이상인 9문항 3요인을 추출하였다. 확정된 9문항 3개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상보성이 Cronbach's  $\alpha$  값이 .94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헌신에서 .929, 친근감에서 역시 .918로 높게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의 값이 .039로 기준치에 부합하였으며, 부차적인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코치-선수관계의 측정모형은 수용할 만 것으로 판단된다( $\chi^2=36.073$ ,  $df=24$ ,  $p<.000$ ;  $Q=1.50$ ,  $TLI=.993$ ,  $CFI=.995$ ,  $RMSEA=.039$ ).

표 15. 코치-선수관계의 기술통계량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	문항	기술통계			요인적재치			공통분
		M±SD	왜도	첨도	1	2	3	
친근감	Close2	5.76±1.58	-1.121	-.306	.942	.025	.008	.863
	Close4	5.69±1.60	-1.133	-.250	.924	.007	.001	.850
	Close1	5.77±1.59	-1.148	-.274	.912	.037	.010	.868
헌신	Comm4	4.80±1.09	-.580	-.667	.038	.971	.024	.903
	Comm1	4.82±1.01	-.357	-1.012	.024	.924	.003	.874
	Comm2	5.09±2.09	-.625	-1.391	.019	.910	.025	.855
상보성	Comp1	5.22±1.99	-.699	-1.248	.034	.024	.981	.923
	Comp2	5.12±2.08	-.758	-1.075	.011	.018	.968	.937
	Comp3	5.17±1.93	-.615	-1.347	.028	.048	.896	.853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807		고유치		4.605	1.888	1.433		
Bartlett의 구형검정=2208.190		공통분산%		51.167	20.975	15.927		
df=36, p=000		누적분산%		51.167	72.142	88.069		
Cronbach's Alpha				.918	.929	.946		

## (2) 자기조절 동기

자기조절 동기 척도는 연구 2에서 사용했던 양명환(2004)이 개발한 13문항의 레저스포츠동기척도 중 내재적 동기 3문항, 확인적 조절 3문항, 외적동기 3문항을 수정·보완 하여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레저스포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개발된 질문지 이다. 따라서 스포츠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선행 연구의 내재적동기의 신뢰도는 .84이며, 확인적 조절의 신뢰도는 .81로 양호한 값을 보여 신뢰할 수 있는 척도임을 제시하였다. 내재적 조절은 Cronabch's  $\alpha$  값이 .87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확인적 조절에서 .828, 외적 조절은 .958로 높게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의 값이 .062로 기준치에 부합하였으며, 부차적인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동기의 측정모형은 수용할 만 것으로 판단된다( $\chi^2=45.256$ ,  $df=24$ ,  $p<.000$ ;  $Q=1.88$ ,  $TLI=.935$ ,  $CFI=.918$ ,  $RMSEA=.062$ ).

표 16. 자기조절동기의 기술통계량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	문항	기술통계			요인적재치			공통분
		M±SD	왜도	첨도	1	2	3	
내재적 조절	INT2	5.22±2.09	-.664	-.865	.920	.017	.009	.843
	INT3	4.83±2.18	-.342	-1.313	.900	.046	.075	.846
	INT1	5.21±2.07	-.660	-.859	.856	.054	.048	.772
확인적 조절	ID5	5.44±2.22	-1.052	-.666	.001	.896	.052	.806
	ID6	5.13±2.32	-.791	-1.15	.014	.861	.051	.737
	ID4	5.35±2.21	-.968	-.820	.021	.828	.008	.694
외적 조절	EX7	3.03±2.06	.813	-.470	.019	.021	.979	.958
	EX8	3.14±2.11	.740	-.689	.044	.015	.967	.939
	EX9	2.90±2.06	.892	-.392	.062	.042	.936	.879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755		고유치		2.911	2.729	1.783		
Bartlett의 구형검정=2377.330		공통분산%		32.345	30.324	19.806		
df=36, p=000		누적분산%		32.345	62.669	82.476		
Cronbach's Alpha				.873	.828	.958		

### (3) 운동만족

운동수행만족은 연구 1에서 사용 했던 Chelladurai와 Carron(1985), Widmeyer와 Williams(1991)가 개발한 운동부 수행만족도 검사지를 바탕으로 국내외 김명철, 노영태(2005)가 사용한 질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11문항으로 재구성 하였으며 11문항의 3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선행 연구의 과제수행의 신뢰도는 .836이며, 확인적 조절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875, 코치지도성 .832로 양호한 값을 보여 신뢰할 수 있는 척도임을 제시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 Likert scale(5단계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운동만족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11문항이 출현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크게 다른 문항과 문항 제거시에 신뢰도가 향상되는 문항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공통분(communality), 요인적재치, 여러 요인에 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공통분인 경우에 1에 가까우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의심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낮으면 변인들

간 선형 조합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통분이 지나치게 높거나 .40이하로 낮은 경우, 요인의 적재치가 .50 이상이며, 다른 문항들과의 중복여부를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과제수행만족 3번, 코치지도성만족 10번 문항이 제거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KMO의 표본 적합성 지수를 살펴본 결과 적합도 지수는 .753로 나타나 문항간 상관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4039.689$ ,  $p=000$ ). 그리고 문항제거 후 고유치가 1.0 이상인 9문항 3요인을 추출하였다. 확정된 9문항 3개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과제수행이 Cronbach's  $\alpha$  값이 .913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845, 코치지도성이 .890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의 값이 .067로 기준치에 부합되었으며, 부차인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운동만족의 측정모형은 수용할 만 것으로 판단된다( $\chi^2=46.147$ ,  $df=24$ ,  $p=.000$ ,  $Q=1.92$ ,  $TLI=.903$ ,  $CFI=.904$ ,  $RMSEA=.067$ ).

표 17. 운동만족의 기술통계량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	문항	기술통계			요인적재치			공통분
		M±SD	왜도	첨도	1	2	3	
과제수행	TP2	4.27±.99	-1.359	1.131	.948	.009	.024	.898
	TP1	3.99±1.41	-1.155	-.155	.937	.020	.049	.879
	TP4	4.13±1.32	-1.349	.396	.866	.022	.074	.766
사회적 상호작용	SP7	4.45±.96	-1.152	1.636	.005	.966	.017	.936
	SP6	4.42±1.05	-1.033	1.415	.004	.965	.012	.944
	SP5	4.48±.89	-1.195	1.242	.003	.895	.018	.795
코치 지도성	CP11	4.30±1.08	-1.116	1.196	.003	.064	.917	.752
	CP8	4.29±1.08	-1.642	1.701	.018	.019	.904	.846
	CP9	4.02±1.35	-1.248	.195	.014	.053	.860	.818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753		고유치		4.399	2.169	1.067		
Bartlett의 구형검정=4039.689		공통분산%		48.879	24.096	11.854		
df=36, p=000		누적분산%		48.879	72.975	84.829		
Cronbach's Alpha				.913	.845	.890		

표 18.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MIN(df)	p	CMIN/df	TLI	CFI	RMSEA
코치-선수관계 (9문항)	36.073(24)	.000	1.50	.993	.995	.039
자기조절 동기 (9문항)	45.256(24)	.000	1.88	.935	.918	.062
운동만족 (9문항)	46.147(24)	.000	1.92	.903	.904	.067

### 3) 연구절차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실업팀의 감독 선생님과 전화 통화 또는 면담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 배포와 회수는 직접 해당 실업팀에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으며, 몇몇 시도에 소재한 실업팀 운동부는 우편으로 송부한 후 조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조사는 2010년 6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를 허락한 실업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응답요령을 간략히 설명한 후, 있는 그대로 솔직한 응답을 부탁하였다. 운동선수들이 질문지에 응답하는 동안 코치에게 자리를 피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실업팀 운동선수들은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질문지를 완료하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부된 질문지는 총 350부였으나, 50%이상 응답하지 않은 자료와 응답 고정화 현상을 보이는 자료 20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30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 분석

최종적으로 선정된 자료들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과 AMO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코치-선수관계, 자기조절 동기, 운동만족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추출법(maximum likelihood extraction method: ML)과 사각회전 방식인 프로맥스 회전(promax rotation)을 사용하여 고유치가 1이상, 요인적재치가 .50이상, 그리고 공통분(communality)이 .40이상인 문항을 선별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의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선행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으로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델의 적합성 판단기준은 연구 2에서와 같이 카이제곱( $\chi^2$ ), 터커-루이스 지수(TLI), 비교적합지수(CFI),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MSEA)값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지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넷째, 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공변량 구조분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모든 분석에서 유의 수준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 3. 연구 결과

####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분포특성

연구 3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첫 번째 단계로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표 19>과 같다.

표 19.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분포특성

측정변인	M	SD	skewdness	kurtosis
<b>친근감 (cronbach's <math>\alpha=.918</math>)</b>				
CS2 나는 코치를 신뢰한다.	5.76	1.58	-1.121	-.306
CS4 나는 코치가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 쏟는 노력을 고맙게 생각한다.	5.69	1.60	-1.133	-.250
CS1 나는 코치를 좋아한다.	5.77	1.59	-1.148	-.274
<b>헌신 (cronbach's <math>\alpha=.929</math>)</b>				
CM4 나는 코치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4.80	1.09	-.580	-.667
CM1 나는 코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4.82	1.01	-.357	-1.012
CM2 나는 코치에게 최선(헌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09	2.09	-.625	-1.391
<b>상보성 (cronbach's <math>\alpha=.946</math>)</b>				
CP1 나는 코치에게 지도받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5.22	1.99	-.699	-1.248
CP2 나는 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그의 노력에 전력을 기울인다.	5.12	2.08	-.758	-1.075
CP3 나는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있다.	5.17	1.93	-.615	-1.347
<b>내재적 조절 (cronbach's <math>\alpha=.873</math>)</b>				
INT2 운동에 몰두하는 즐거움 때문에	5.22	2.09	-.664	-.865
INT3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4.83	2.18	-.342	-1.313
INT1 운동하는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5.21	2.07	-.660	-.859
<b>확인적 조절(cronbach's <math>\alpha=.828</math>)</b>				
ID5 운동은 나에게 건강과 기술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5.44	2.22	-1.052	-.666
ID6 운동은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5.13	2.32	-.791	-1.15
ID4 운동은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5.35	2.21	-.968	-.820
<b>외적 조절(cronbach's <math>\alpha=.958</math>)</b>				
EX7 운동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3.03	2.06	.813	-.470
EX8 주변 사람들이 운동을 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에	3.14	2.11	.740	-.689
EX9 동료들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2.90	2.06	.892	-.392
<b>과제수행만족 (cronbach's <math>\alpha=.913</math>)</b>				
TP2 나는 지금까지 올해 경기에서 발휘한 운동수행(경기력)에 대하여 만족한다.	4.27	.99	-1.359	1.131
TP1 우리 팀에서 나의 운동기술을 개발하는데 제공받았던 기회에 대하여 만족한다.	3.99	1.41	-1.155	-.155
TP4 나는 올해 경기에서 발휘한 경기력에 만족한다.	4.13	1.32	-1.349	.396
<b>사회적 상호작용만족 (cronbach's <math>\alpha=.845</math>)</b>				
CP7 나는 팀의 코치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4.45	.96	-1.152	1.636
CP6 나는 팀의 성원과의 인과관계에 만족한다	4.42	1.05	-1.033	1.415
CP5 나는 팀 성원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만족한다.	4.48	.89	-1.195	1.242
<b>코치지도성 만족(cronbach's <math>\alpha=.890</math>)</b>				
SP11 나는 코치의 전술지도에 만족한다.	4.30	1.08	-1.116	1.196
SP8 나는 팀 코치의 지도방법에 대하여 만족한다.	4.29	1.08	-1.642	1.701
SP9 나는 팀 코치의 기술지도에 대해 만족한다.	4.02	1.35	-1.248	.195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변수들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통해서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평균값은 최저 2.90에서 최고 5.77까지의 점수 분포를 보였으며, 표준편차는 .89에서 2.32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치-선수관계,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에서는 대부분 높은 값을 보였으며, 동기요인 중 외적 조절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와 첨도 값이 각각 절대 값 2 이상을 넘지 않음으로써 측정변인들의 점수 분포가 정규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뿐만 아니라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추정치는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구조모형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0. 측정모형에 대한 경로 추정치 결과

모형	비표준화 추정치	SE	CR	P	표준화 추정치	SMC
Close4←친근감	1.000			.000	.872	.761
Close2←친근감	1.004	.046	21.754	.000	.890	.769
Close1←친근감	1.027	.046	22.145	.000	.901	.812
Comm4←헌신	1.000			.000	.929	.862
Comm2←헌신	1.017	.042	24.304	.000	.877	.769
Compm1←헌신	.901	.035	25.894	.000	.904	.817
Comp3←상보성	1.000			.000	.854	.730
Comp2←상보성	2.323	.088	26.480	.000	.976	.952
Comp1←상보성	2.156	.086	25.180	.000	.943	.890
INT3←내재적 조절	1.000			.000	.911	.831
INT2←내재적 조절	.912	.046	19.992	.000	.888	.788
INT1←내재적 조절	.751	.050	14.988	.000	.709	.503
ID6←확인적 조절	1.000			.000	.761	.579
ID5←확인적 조절	1.090	.081	13.447	.000	.872	.760
ID4←확인적 조절	1.001	.080	12.582	.000	.731	.534
EX7←외적 조절	1.000			.000	.992	.983
EX8←외적 조절	.963	.020	47.893	.000	.956	.914
EX9←외적 조절	.925	.030	30.704	.000	.876	.768
TP1←과제수행	1.000			.000	.915	.837
TP2←과제수행	1.034	.036	28.398	.000	.951	.904
TP4←과제수행	.863	.047	18.434	.000	.763	.582
CP5←코치지도성	1.000			.000	.778	.606
CP6←코치지도성	1.210	.055	21.842	.000	.982	.964
CP7←코치지도성	1.227	.056	22.080	.000	.988	.976
SP8←사회적 상호작용	1.000			.000	.906	.820
SP9←사회적 상호작용	.896	.054	16.735	.000	.772	.595
SP11←사회적 상호작용	1.001	.052	19.237	.000	.846	.716

측정모형의 대한 경로추정치는<표 20>에 제시되어 있다.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모형에 대한 모든 문항의 비표준화 추정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요인의 적재치들(C.R)은 1.96Z 값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여기서 요인 적재치(C.R) 값이 1.96Z 값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은 표준화추정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각 요인간에는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준오차(S.E)도 최소 .020에서 최대 .088까지 의 범위에 있어 한계치  $\pm 2.5$  이상의 경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각 문항의 표준화 추정치도 .71에서 .99까지 매우 안정적인 값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와 경로 추정치를 고려할 때 측정모형은 수용할 수 있는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표 21. 전체 측정변인들의 적합도 지수

모형	CMIN(df)	p	CMIN/df	TLI	CFI	RMSEA(90%CI)
연구모형	816.874(444)	.000	1.848	.955	.963	.051

또한, <표 21>은 전체 11개의 측정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 측정변인들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816.874$ ,  $df=444$ ,  $p=.000$ ,  $Q=1.848$ ,  $TLI=.955$ ,  $CFI=.963$ ,  $RMSEA=.051$ ). 뿐만 아니라 각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추정치( $\lambda$ )도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구조모형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2) 잠재변인간 상관관계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앞서 두 번째 단계로 잠재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표 22>은 코치-선수관계, 자율적 동기 및 운동만족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자율적 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조절, 확인적 조절과 정(+)에 상관을 보였으나 외적 조절과는 부(-)의 상관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운동만족이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과 정(+)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조절 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조절과 확인적 조절은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 코치지도성,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에 상관을 보였고, 외적조절은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 코치지도성, 사회적 상호작용과 부(-)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n=330)

잠재변인	A	B	C	F	G	H	I	J	K
친근감(A)	1.000								
헌신(B)	.462**	1.000							
상보성(C)	.385**	.319**	1.000						
내재적 조절(F)	.294**	.312**	.325**	1.000					
확인적 조절(G)	.286**	.233**	.245**	.236**	1.000				
외적 조절(H)	-.052	-.061	-.046	-.023	-.034	1.000			
과제수행(I)	.347**	.369**	.342**	.374**	.282**	-.122*	1.000		
사회적 상호작용(J)	.309**	.325**	.339**	.315**	.290**	-.084	.363**	1.000	
코치지도성(K)	.341**	.311**	.340**	.322**	.241**	-.077	.361**	.327**	1.000

\*p<.05 \*\*p<.01

### 3) 구조모형 검증

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성취 목표 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경험적 자료에 대한 공분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chi^2$ 검증을 기본적으로 평가하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와는 비교적 독립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나타내주는 TLI와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연구 2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 대한분석결과는 <표 23>와 같다.

표 2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MIN(df)	p	CMIN/df	TLI	CFI	RMSEA(90%CI)
연구모형 (부분매개모형)	913.158(312)	.000	2.926	.912	.926	.077
연구모형 (완전매개모형)	776.734(303)	.000	2.563	.928	.938	.069
$\chi^2$ 차이 검증	$\Delta\chi^2 = \chi_0^2 - \chi_1^2$ : 913.158-776.734=136.424, $\Delta df = df_0 - df_1$ : 312-303=9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모형과 대안모형과 모두 비교적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모형에 대한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chi^2=136.424$ ,  $df=9$ ,  $p=.005$ ),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부분매개모형보다 완전매개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776.734$ ,  $df=303$ ,  $p=.000$ ,  $Q=2.56$ ,  $TLI=.928$ ,  $CFI=.938$ ,  $RMSEA=.069$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두 모형을 토대로 각 변인들의 모수를 추정해보고 완전매개모형의 연구모형에서 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 동기(내재적 조절, 확인적 조절, 외적 조절)를 경유하여 운동만족(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24>은 완전매개모형에서 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간에 각 경로별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그리고 표준화 추정치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부분매개모형의 표준화 추정치와 경로도형은 부록<8, 9>과 같다.

표 24. 완전매개모형의 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 잠재변인들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p	표준화 추정치
내재적 조절←친근감	.237	.059	4.016	.000	.234
확인적 조절←친근감	.199	.066	2.997	.003	.190
외적 조절←친근감	.127	.083	1.541	.123	.090
내재적 조절←헌신	.388	.128	3.039	.002	.324
확인적 조절←헌신	.239	.054	4.154	.000	.281
외적 조절←헌신	-.291	.180	-1.617	.006	-.173
내재적 조절←상보성	.274	.142	2.007	.002	.208
확인적 조절←상보성	.127	.050	2.551	.000	.160
외적 조절←상보성	.135	2.242	.060	.952	.006
과제수행만족←내재적 조절	.282	.048	5.861	.000	.350
과제수행만족←확인적 조절	.152	.045	3.344	.001	.200
과제수행만족←외적 조절	-.085	.030	-2.837	.005	-.150
코치지도성만족←내재적 조절	.174	.044	3.984	.000	.250
코치지도성만족←확인적 조절	.159	.042	3.776	.000	.244
코치지도성만족←외적 조절	-.055	.027	-1.984	.067	-.110
사회적 상호작용만족←내재적 조절	.203	.047	4.349	.000	.252
사회적 상호작용만족←확인적 조절	.174	.044	3.984	.000	.264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외적 조절	.005	.030	.157	.875	.008

<표 24>과 <그림 20>의 결과에 근거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은 자기조절 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조절과 확인적 조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친근감은 자기조절 동기의 경로계수에서는 내재적 조절( $\beta=.234$ ,  $p<.000$ ), 확인적 조절( $\beta=.190$ ,  $p<.003$ )은 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적 조절( $\beta=.090$ ,  $p<.123$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헌신은 자기조절 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조절과 확인적 조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헌신과 자기조절 동기의 경로계수에서는 내재적 조절( $\beta=.324$ ,  $p<.002$ ), 확인적 조절( $\beta=.281$ ,

p<.000)은 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적 조절( $\beta=-.173$ ,  $p<.006$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보성은 자기조절 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조절( $\beta=.208$ ,  $p<.002$ ), 확인적 조절( $\beta=.160$ ,  $p<.000$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외적 조절은 ( $\beta=.006$ ,  $p<.952$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조절 동기는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조절 동기와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의 경로계수에서는 내재적 조절은 과제수행( $\beta=.350$ ,  $p<.000$ ), 코치지도성( $\beta=.250$ ,  $p<.000$ ), 사회적 상호작용만족( $\beta=.252$ ,  $p<.000$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확인적 조절에서는 과제수행만( $\beta=.200$ ,  $p<.001$ ), 코치지도성만( $\beta=.244$ ,  $p<.000$ ), 사회적 상호작용만족( $\beta=.264$ ,  $p<.000$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외적 조절에서는 과제수행만족( $\beta=-.150$ ,  $p<.003$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치지도성만족( $\beta=.110$ ,  $p<.067$ ), 과제수행만족( $\beta=-.008$ ,  $p<.875$ )에서는 통계적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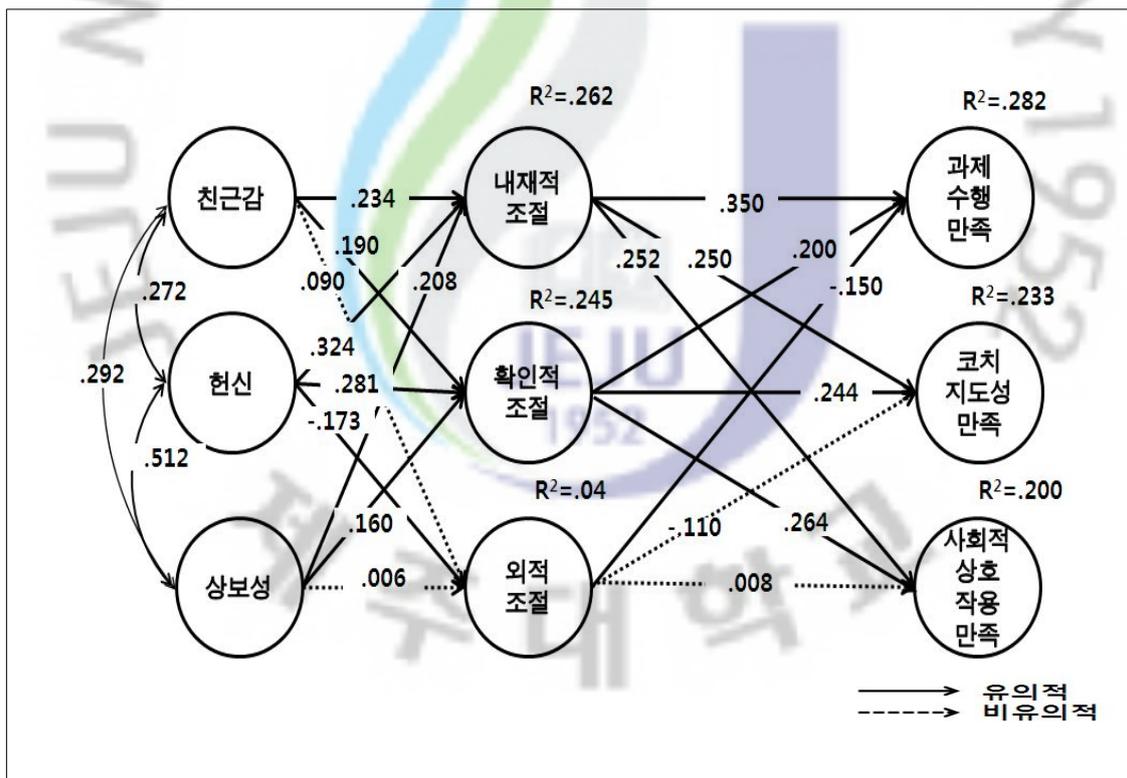


그림 20. 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의 경로도형<완전매개모형>

<표 25>는 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인과효과를 분해한 결과이다.

표 25.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간의 인과효과

경로	친근감	헌신	상보성
	간접효과	간접효과	간접효과
과제수행만족	.120**	.166**	.104**
코치지도성만족	.110**	.150**	.091*
사회적 상호작용만족	.110**	.155**	.094*

\*p<.05    \*\*p<.01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치-선수관계가 자기조절 동기를 경유하여 운동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25>에 보는 바와 같이,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 중 친근감은 자기조절 동기를 경유하여 과제수행만족( $\beta=.120$ ,  $p<.01$ ), 코치지도성만족( $\beta=.110$ ,  $p<.01$ ), 사회적 상호작용만족( $\beta=.110$ ,  $p<.01$ )에 유의한 정(+)의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헌신은 자기조절 동기를 경유하여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beta=.166$ ,  $p<.01$ ), 코치지도성만족( $\beta=.150$ ,  $p<.01$ ), 사회적 상호작용만족( $\beta=.155$ ,  $p<.01$ )에 유의한 정(+)의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보성은 자기조절 동기를 경유하여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beta=.104$ ,  $p<.01$ ), 코치지도성만족( $\beta=.091$ ,  $p<.05$ ), 사회적 상호작용만족( $\beta=.094$ ,  $p<.05$ )에 유의한 정(+)의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연구 2의 주된 목적은 자기결정이론 에서 제안하는 사회 환경적요인(코치-선수관계)→자기조절 동기→운동만족간의 관계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업운동선수 남녀 330명을 대상으로 자기조절 동기가 선행변인인 코치-선수관계와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운동만족에 미치는 매개 역할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내재적 조절, 확인적 조절과 정(+)의 관계가 있으며, 내재적 조절과 확인적 조절은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과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외적 조절과 부(-)의 상관을 보였고,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과 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코치-선수관계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내재적 조절, 확인적 조절과 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내재적 조절과 확인적 조절은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과 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외적조절과 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과 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m, Wang(2009)는 13-17세인 17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결정 이론의 틀에서 연구가 실시되었다. 먼저 지각된 자율적 지지는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조절에 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내압적 조절, 외적조절, 무동기는 부(-)의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자율성 지지는 자기결정 동기(내재적 동기, 확인적 조절)를 경유하여 의도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행동의도 관계에서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 효과를 입증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Alvarez, Balaguer, Castillo, Duda(2009)는 12세-16세의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코치 자율성 지지, 심리적 욕구만족, 자기결정 동기 및 정서적 결과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축구선수들은 코치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욕구만족에 정(+)의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욕구만족 또한 자기결정 동기에 정(+)의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자기결정 동기는 정서적 결과의 즐거움에만 정(+)의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하였다. 또한, 코치 자율성 지지는 심리적 욕구만족을 경유하여 자기결정 동기에 정(+)의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욕구만족은 자기결정 동기를 경유하여 정서적 결과의 즐거움에 정(+)의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Standage, Duda, & Ntoumanis, (2005)는 욕구지지, 욕구만족, 동기 및 결과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욕구 지지의 환경을 경험한다고 지학하는 학생들은 심리적 욕구만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욕구만족은 내재적 동기를 예측하고 이어서 체육 적응관련 결과변인들(집중력 향상, 긍정정서, 도전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욕구만족과 자기결정 동기는 사회 환경적 요인과 결과변인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김미선(2009)은 코치-선수관계 이론에서 Jowett(2005)의 통합 연구모형과 Kelly와 Thibaut(1978)의 상호 의존성 이론을 바탕으로 코치와 선수간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 코치-선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수행만족에 높은 영향력을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능력이 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유의하게 예측하였다(Philippe & Seiler, 2006; Loughhead & Carron, 2004). 따라서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선수관계가 중심이 되는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 팀 효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김덕진(2010)은 자기결정 이론에서 제안한 통합 모형(Standage, Gillison, & Treasure, 2007)을 근거로 하여 연구 3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친구의 자율성 지지의 사회적 환경 즉, 사회적 맥락에서의 친구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을 경유하여 자기결정 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동기, 확인적 조절, 외적 조절에 유의한 직·간접적인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자율성 지지와 결과변인(주관적 웰빙, 자아존중감)간에 심리적 욕구만족, 자기결정 동기의 매개역할 검증 및 자율성 지지는 심리적 욕구의 경유하여 자기결정 동기에 직·간접적인 정(+)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욕구는 자기결정 동기를 경유하여 결과변인(주관적 웰빙)에 직·간접적인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 이론에서 제안한 통합모형(사회적 환경→심리적 욕구→동기→결과변인)이 검증되었다.

양명환, 김덕진(2010)은 운동선수들이 운동동기와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의 매개효과검증 결과 훈련과 지도행동, 민주적 행동은 자율성과 유능성에 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피드백은 관계성에 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율성과 유능성은 자율적 동기에 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과 지도행동은 자율성을 경유하여 자율적 동기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적 행동은 자율성과 유능성을 경유하여 자율적 동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Smith, Ntoumanis, & Duda(2010)는 코치의 자율적 지지행동은 자율적 동기성향에 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며, 자율적 동기성향은 자율적 동기에 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율

적 동기는 결과변인인 심리적 웰빙에 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며, 코치의 자율적 지지행동은 자율적 동기성향과 통제적 동기성향 경유하여 심리적 웰빙에 정(+)에 간접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코치의 지지행동과 결과변인간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성향과 자율적 동기의 매개 역할을 검증 되었다. 하지만 확인적 조절에서만 의도에 정(+)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Edumunds, Ntoumanis 및 Duda(2008)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입각하여 자율성 지지, 구조 및 대인간 관여전략들을 활용하는 수업방식이 운동수업 참여자들의 심리적 욕구만족, 동기조절, 운동행동, 행동의도와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10주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된 운동수업 참여자들(여대생과 직원)은 자기결정 이론에 근거한 처지집단(실험조건 25명)과 전형적인 수업방식(통제집단=31명)에 배치하였다. 통제집단에서는 자율성 지지와 행동의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그들은 유능성과 흡수조절의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였다. 통제조건과 비교하여 자기결정성 처지집단은 구조와 대인간 관여에서 유의한 선형적인 증가를 보고하였으며, 관계성, 유능성, 욕구만족과 정적 정서의 증가가 나타났다. 출석율도 자기결정성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초한 사회-맥락특성들과 심리적 욕구들은 자율적 조절을 예측하였고, 이러한 모든 변인들은 적응을 돕는 결과를 집합적으로 예측하였다. 이 연구는 자율성에 입각한 동기 수업전략이 학생들의 욕구만족과 긍정적인 적응행동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Gillet, Roberts, & Vallerand, Amoura, Baldes(2010)는 내적, 외적 동기 부여의 계층적 모델을 바탕으로, 코치의 자율적 지지가 스포츠 활동에서 선수들의 자기결정 동기 부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자기결정 동기 부여는 경쟁 이전에 선수의 상황적 자기결정 동기 부여를 촉진한다고 하였다. 경쟁 중에 선수의 객관적인 수행을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유도 연합을 통해 유도선수 101명을 대상으로 코치의 자율적 지지, 자기결정 동기와 수행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코치의 자율적 지지와 수행간의 관계에서 선수들의 수행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기결정 동기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 환경적 요인과 결과변인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와 자기결정 동기의 매개 역할이 입증되었다. 또한, Jowett(2008)는 코치와 선수의 만족을 이끄는 두 가지 타입의 동기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하였으며, 코치-선수관계 행동을 주도하는 내재적 조절은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코치만족과 관련이 있고, 두 가지 타입의 동기 부여 사이의 상호작용은 중요하다고 제안되었는데, 내적 동기 부여가 낮을 때 외적 동기부여가 잠재적으로 내적 동기부여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체육수업상황에서도 체육교사의 자율적 행동은 내재적

동기를 향상하고, 수업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제적 교수행동은 내재적 동기를 저하시키고 수업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김덕진, 양명환, 2009).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자기결정 이론의 선행연구에서(Pelletier, L. G., Fortier, M. S., Vallerand, R. J., & Briere, N. M., 2001; Chirkov, Ryan, 2001; Osbaldiston & Sheldon, 2003; Wilson, Rodgers, 2004; Smith, Ntoumanis, & Duda, 2010; Standage, Duda, & Ntoumanis, 2005; Lim, Wang, 2009; Alvarez, Balaguer, Castillo, Duda, 2009; Lafreniere, Jowett, Vallerand, & Cabonneau, 2010; 김미선, 2009; 김덕진, 2010; 양명환, 김덕진, 2010)몇몇 연구자들은 사회 환경적요인과 욕구만족, 자기결정 동기 및 결과변인간의 관계에서 욕구만족과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 역할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코치-선수관계와 운동만족의 관계에서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내재적 조절과 확인적 조절을 촉진시키며,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코치들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동기전략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포츠 상황에서 사회 환경적요인과 운동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 역할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V. 종합논의

자기결정에서 제안하는 이론적 가설들은 운동과 스포츠 영역에서 주요타자들에 의해 생성되는 동기 환경이 어떻게 자기결정 동기를 촉진하고 외재적 동기를 내면화하며, 다양한 동기 결과(예,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를 연구하는데 응용되어 왔다.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하여 Vallerand(1997)가 제안한 사회적 맥락(자율성 지지)→심리적 욕구만족→자기조절 동기→동기결과(인지, 정서, 행동적)의 통합모형을 부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자기조절 동기와 운동만족에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코치-선수관계를 다양한 운동유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인지 먼저 타당화를 검증하고 연구 2에서는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안하는 사회 환경적요인과 운동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1에서는 Jowett와 Ntoumanis(2004)의 코치-운동선수 관계 척도 (CART-Q)를 영어전공자 1명(영문학 박사), 스포츠심리학전공자 2명(체육학박사) 총 3명의 회의를 걸쳐 번안한 질문지와 김기형, 박중길(2008)이 국문판(KrCART-Q)으로 제작한 질문지를 1단계(예비조사), 2단계(개방형조사), 3단계(사조조사)를 걸쳐 최종질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사례 수가 다소 적은 한계가 있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상황에서 다양한 운동유형별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동일성 검증은 내재적 모형들에 대한 위계적 분석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의 세 가지 가정이 모두 성립되어 개인, 단체 운동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는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친근감, 헌신, 상보성의 코치-선수관계 하위요인을 운동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과 단체 운동유형간에 친근감과 상보성에서 유의한 잠재평균의 차이가 있었으며, 헌신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동유형별로 코치-선수관계의 지각수준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단체종목의 선수들의 대상으로 김기형, 박중길(2008)이 개발한 코치-선수관계 척도보다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코치-선수관계의 척도의 타당성 검증은 의미 있다 하겠다.

코치-선수관계의 준거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4개(자율적 동기, 몰입,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의 외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들과 4개의 외적 변인들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친근감, 헌신, 상보성의 코치-선수관계 요인들은 자율적 동기, 몰입,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과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공인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그리고 코치-선수관계는 4개의 외적변인(자율적 동기, 몰입,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과 정(+의 상관관계 및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lagur, Duda, & Atienza, Mayo(2002)는 여성 핸드볼 운동선수들의 주관적인 평가에서 코치-선수관계와 운동만족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Lafreniere, Jowett, & Vallerand, Carbonmeau(2010)는 선수들은 코치의 통제적 행동보다는 자율성 지지를 선호하여 운동만족에 긍정적인 영향력은 매우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Chelladurai, 1978; Schliesman, 1987; Horne, Carron, 1985; Weiss, Friedrich, 1986; Dwyer, Fischer, 1990; Reimer, Chelladurai, 1995)에서도

코치의 행동유형인 훈련과 지시행동, 민주적 행동, 사회적 지지 행동, 그리고 보상 행동, 자율성 지지, 코치행동은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몇몇 연구자에 의해(Balagur, Duda, & Atienza, Mayo, 2002; Lafreniere, Jowett, & Vallerand, Carbonmeau, 2010) 운동선수들의 주관적인 평가에서 코치-선수관계, 자율성 지지는 운동만족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지도자행동에서 훈련과 지시행동, 사회적 지지 행동, 긍정적 보상 행동은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긍정적인 코칭행동을 선호하는 선수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Chelladurai, 1978; Schliesman, 1987; Weiss, & Friedrich, 1986; Dwyer, & Fischer, 1990; Horne과 Carron(1985)).

Philippe, Seiler(2006)는 수영선수를 대상으로 코치-선수관계와 목표설정, 수용과 존중, 의사소통의 관계에서 개인적이며, 배려적이고,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수영선수들은 코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코치의 행동에 의하여 지각된 동기 분위기가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Ntmoumanis, Duda, 2006). 이러한 결과는 코치-선수관계와 동기분위기, 운동수행 결정요인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에서도(채관석, 1997; 정우학, 2004; 박진국, 2005; 박미경, 2008; 이명원, 2010; 김경진, 2010)선수들은 코치의 긍정적인 행동일수록 과제수행만족과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을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코치의 행동이 선수들에게 수행 학습은 물론 지각된 유능감, 자기 존중감, 성공에 대한 기대, 만족감과 흥미등에 영향을 주고(성창훈, 홍준희, 최은규, 2004), 팀 스포츠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에게 비쳐지는 지도자 유형에 영향을 받으며, 티 만족과 지도자 만족을 높게 기각함으로써 선수 개인 및 팀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김병현, 1990; 이경우, 1999)는 선행

연구 또한 뒷받침해주므로 코치-선수관계가 만족도에 주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사회 환경적요인(코치-선수관계)과 운동만족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의 결과,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내재적 조절, 확인적 조절과 정(+)의 관계가 있으며, 내재적 조절과 확인적 조절은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과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외적조절과 부(-)의 상관을 보였고,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과 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코치-선수관계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내재적 조절, 확인적 조절과 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내재적 조절과 확인적 조절은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과 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외적조절과 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과 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기결정이론의 관점에서는 욕구지지와 자율성 지지는 심리적 욕구만족과 자기결정 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동기, 확인적 조절을 경유하여 결과변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Pelletier, L. G., Fortier, M. S., Vallerand, R. J., & Briere, N. M., 2001; Chirkov, Ryan, 2001; Osbaldiston & Sheldon, 2003; Wilson, Rodgers, 2004; Smith, Ntoumanis, & Duda, 2010; Standage, Duda, & Ntoumanis, 2005; Lim, Wang, 2009; Alvarez, Balaguer, Castillo, Duda, 2009; Lafreniere, Jowett, Vallerand, & Cabonneau, 2010; 김미선, 2009; 김덕진, 2010; 양명환, 김덕진, 2010).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안한 통합적 모형에서 심리적 욕구와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효과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코치-선수관계에서 Jowett(2005)의 통합 연구모형과 Kelly와 Thibaut(1978)의 상호 의존성 이론을 바탕으로 코치와 선수간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 코치-선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수행만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능력이 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유의하게 예측하였다(Philippe & Seiler, 2006; Loughhead & Carron, 2004). 따라서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선수관계가 중심이 되는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 팀 효율성에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Gillet, Roberts, & Vallerand, Amoura, Baldes(2010)는 내적, 외적 동기 부여의 계층적 모델을 바탕으로, 코치의 자율적 지지가 스포츠 활동에서 선수들의 자기결정 동기 부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자기결정 동기 부여는 경쟁 이전에 선수의 상황적 자기결정

동기 부여를 촉진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 환경적 요인과 결과변인간에 심리적 욕구와 자기결정 동기의 매개 역할이 입증되었다. 또한, Jowett(2008)는 코치와 선수의 만족을 이끄는 두 가지 타입의 동기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하였으며, 코치-선수관계 행동을 주도하는 내재적 조절은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코치만족과 관련이 있고, 두 가지 타입의 동기 부여 사이의 상호작용은 중요하다고 제안되었는데, 내적 동기 부여가 낮을 때 외적 동기부여가 잠재적으로 내적 동기부여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 환경적요인과 운동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 역할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치의 자율성 지지는 자기조절 동기에 중요한 선행변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고,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코치의 자율성지지와 운동만족 결정요인 간에 자기조절 동기의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맥락에서 운동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조절 동기와 코치의 자율성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운동과 스포츠 영역에서 교사나 지도자 등 주요타자의 다양한 행동이 학생과 운동선수의 자기조절 동기와 운동만족 결정요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들은 일부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코치-선수관계와 운동만족 결정요인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만족의 매개역할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 과정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과 추후 연구과제에 대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타당화 검증을 위해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표집을 하였으나, 종목의 수와 연구대상의 사례 수가 다소 적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는 코치-선수관계와 다양한 잠재변인과의 관계 검증이 이루어지고, 일반상황, 연습상황, 경쟁상황에서의 사회 환경적 요인과 욕구만족, 자기조절 동기, 결과변인의 다양한 잠재변인과의 관계 검증이 심층적인 연구 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V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편의 순차적인 연구를 통해 스포츠 상황에서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타당화 검증과 자기결정 이론에서 제안하는 사회 환경적요인과 자기조절 동기, 운동만족(행동결과)의 연구모형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은 스포츠 상황에서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운동유형(개인종목, 단체종목)에 따른 사용이 적합한지 타당화를 검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운동유형(개인종목, 단체종목)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척도임을 입증하였고, 4개의 외적 변수(자율적 동기, 몰입,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와의관계 살펴봄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치선수관계척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자율적 동기, 몰입,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간에 정(+)<sup>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치선수관계척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자율적 동기, 몰입, 운동지속의도, 운동만족간에 정(+)<sup>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sup>

**연구 2**는 코치-선수관계와 운동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먼저 상관관계에서는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내재적 조절, 확인적 조절과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에 정(+)<sup>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조절과는 부(-)<sup>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적 조절, 확인적 조절과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에 정(+)<sup>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적 조절은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에 부(-)<sup>의 상관을 보였다.</sup></sup></sup></sup>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내재적 조절, 확인적 조절과 정(+)<sup>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적 조절과 확인적 조절은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과 정(+)<sup>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조절은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에만 부(-)<sup>의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치-선수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헌신, 상보성은 내재적 조절과 확인적 조절을 경유하여 운동만족의 하위요인인 과제수행만족, 코치지도성만족,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에 정(+)<sup>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헌신은 외적조절을 경유하여 과제수행만족에 부(-)<sup>의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sup></sup></sup></sup>

## 참고문헌

- 김경수(1989). 운동선수의 가정환경과 경기력, 운동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김경진(2010). 대학 유도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과 운동만족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기형, 박중길(2008) 한국판 코치-운동선수 관계척도의 구조적 타당화. **한국체육학회지**, 47(6), 219-233.
- 김기형, 박중길(2009). 대학 운동선수의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기본욕구 및 동기적 성향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3), 33-48.
- 김덕진(2010). 스포츠 상황에서 욕구만족척도 개발과 자기결정이론의 모형 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김덕진, 양명환(2006). 체육수업 상황에서 기본적 욕구, 동기유형 및 심리적 웰빙간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1), 25-45.
- 김덕진, 양명환(2009). 체육교사의 교수행동이 고등학생들이 내재동기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지**, 제 15권, 15-29.
- 김덕진, 양명환(2009). 체육교사의 교수행동이 고등학생의 내재적 동기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 제17회**, 학술발표대회, 109-124.
- 김동건, 조민행, 전용배(2002).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1(5), 355-364.
- 김명철, 노영태(2005). 체조선수 코칭행동범주가 선수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5(4), 167-180.
- 김미선(2009). 코치와 선수의 상호작용 검사지 개발과 타당화 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 김병현(1990). 경기종목 특성에 따른 코치의 지도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체육학 총론**, 1(3), 1-16.
- 김사업, 김영귀(2000). 하키코치의 지도행동유형에 따른 선수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9(3), 101-109.
- 김상대, 조만태(2002). 프로야구선수의 직무만족도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8, 701-711.
- 김정완, 김정남(2007). **스포츠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이 학업성취동

-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 노형진(2008). *Aoms에 의한 공분산구조분석*, 서울: 한울 출판사
- 문윤제(2003). 운동선수 자신감과 코치 기대가 운동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2(1), 92-108.
- 문창일(2007). *운동의 선호유형과 강도가 운동참가자의 심리·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박미경(2008). *여자체조 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에 따른 운동만족도와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박성제(2006). 한국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우리성, 팀 만족 및 운동수행간의 관계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4), 1-11.
- 박정근(2003). 우수 농구 코치들의 리더십에 관한 질적 연구, *체육과학연구*, 14(1), 59-77.
- 박중길(2009). 지각된 코치-선수관계, 욕구만족, 신체적 및 심리적 안녕감: 개인내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4), 177-191.
- 박중길, 문익수, 유정인(2008). 한국판 운동선수 만족 척도의 구조적 타당화.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3), 75-97.
- 박진국(2005). 럭비코치의 지도유형이 구성원이 구성원 만족도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6(6), 321-332.
- 배병렬(2009). *Amos 17.0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성창훈(1999). 청소년 운동선수의 지각된 코칭행동과 스포츠 경험지각 및 내적동기 요소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8(3), 244-259.
- 성창훈(2002). 청소년 운동선수의 스포츠 탈퇴요인 구조 및 관련변인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3(2), 39-57.
- 성창훈, 홍준희, 최은규(2004). 소년 스포츠 코치들이 지각하는 긍정적 코칭의 구성요소 및 장애요인.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5(4), 151-167.
- 손영수, 최만식, 문익수(2002). 스포츠몰입상태 척도(FSS)에 대한 통계적 타당성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3(2), 59-73.
- 송춘현, 이계윤(2000).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선수생활 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5(1), 193-200.
- 양명환(2004).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 레저스포츠동기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9(2), 107-132.
- 양명환(2006). 직장인들의 운동 참여동기, 참여제약, 지속의도 및 참여수준간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2), 33-52.

- 양명환, 김덕진(2010).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행동과 운동동기와의 관계: 기본 심리욕구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3), 217-231.
- 유승원(2006). **골프지도자의 지도유형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 내적동기 및 지도 효율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유정인, 문익수, 성장훈(2009).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심리적 욕구와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2), 159-170.
- 유진(1997). **스포츠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이경우(1999). **수영운동 참여가 여성의 여가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이계윤, 김인숙(2005). **동서양 문화권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리더십, 팀응집력, 운동만족도 비교**.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6(4), 179-197.
- 이광수(2002). **모험스포츠 참여자들의 참여동기와 스포츠몰입, 참여 후 행동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기철(1999). **스포츠 집단의 조직문화와 리더십 유형 및 효과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2권, 585-594.
- 이명원(2010). **다이빙 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과 운동만족도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석준(2009). **펜싱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내적동기 및 선수만족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 이순목(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교학사
- 장진(2005).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직무만족 및 직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4, 567-577.
- 정우학(2004). **중등학교 태권도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과 운동만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학원.
- 정지혜(2004). **대학 농구 팀 수행성적에 따른 코치의 지도행동 유형과 집단 응집력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5(1), 65-77.
- 조건상, 김해출(2007). **육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성숙도 및 운동수행만족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1, 1463-1473.
- 채관석(1997). **코칭행동에 대한 선호·인식의 일치 정도와 성원만족 및 응집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성희, 김승철(2005). **육상 코치의 리더십 행동 유형과 선수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인문사회과학**, 44(5), 279-288.
- 최영래, 원영신, 이경훈(2006). **학교 운동부 코치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지도자 신뢰**

- 와 지도효율성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1), 19-33.
- 최영옥, 김윤태, 김진표(2001). 구기종목 코치의 변환적, 상동적 리더십과 지도만족 및 지도효율성과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0(1), 174-186.
- 홍길동, 김경식, 배기열(2008). 중·고교 양궁 지도자와 선수간의 상호작용이 선수의 운동만족, 신뢰 및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지*, 8(6), 233-241.
- 홍세의, 황매향, 이은설(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 장벽 척도의 잠재평균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19(4), 1159-1177.
- Ajzen, I. & Driver, B, B. L. (1992).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207-224.
- Alvarez, M. S., Balaguer, I. & Castillo, Duda, J. L. (2009). Coach Autonomy Support and Quality of Sport Engagement in Young Soccer Players. *Journal of Psychology*, 12(1), 138-148.
- Amabile, T. M. (1982).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A consensual assessment techniq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997-1013.
- Amorose, A J, & Horn, T S (2000) Intrinsic motivation: Relationships with collegiate athletes' gender, scholarship status, and perceptions of their coaches behavior *Journal of Sport Exercise Psychology*, 22, 63-84.
- Amorose, A. J., & Anderson-Butcher, D. (2007). Autonomy-supportive coachi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in high school and college athlete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 654-670.
- Balaguer, I. & Duda, J. L. & Atienza, F. L. & Mayo, C. (2002).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goals as predictors of Perceptions of individual and team improvement, satisfaction and coach ratings among elite female handball team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3, 293-308.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cognitiv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5-74.
- Bartholomew, K., Ntoumanis, N., Thogersen-Ntoumani, C. (2010). The controlling interpersonal style in a coaching context: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sychometric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2, 193-216.
- Benware, C., & Deci, E. L. (1984). The quality of learning with an active versus passive motivational se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1, 755-765.

- Bersheid, E., Shyder, M, & Omoto, A. M. (1989). Issues in studying close relationship. Conceptualising and measuring closeness. In C. Hendric(ed.), Close relationships(PP.63-91). Newbury Park, CA: Sage.
- Biddle, S. J. H. (1997). Current trends in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research. *The Psychologist*, 10. 63-69.
- Black, A. E. & Deci, E. L. (2000). The effects of instructors autonomy support and students autonomous motivation on learning organic chemistry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Science Education*, 84, 740-756.
- Black, S. J., & Weiss, M. R. (1992).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coaching behaviors perceptions of ability, and motivation in competitive age-group swimmer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4, 309-325.
- Blanchard, C., & Vallerand, R. J. (1996). On social and intrapersonal determinants of situational motivation. Manuscript 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Quebec at Montreal.
- Briere, N.M. Vallerand, R.J. Blais, M.R. & Pelletier. L. G.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French form of the Sport Motivation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6, 465-489.
- Burke, M. (2001) Obeying until it hurts: Coach-athlete relationship.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28, 227-240.
- Carron, A. V. (1982). Cohesiveness in sport groups: Interpretation and consideration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4, 123-138.
- Chatzisarantis, L .D., Hagger, M. S., & Brickell, T. (2008). Using the construct of perceived autonomy support to understand social influence with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 27-44.
- Chellachurai, P. & Riemer, H. A. (1997). A classification of facets of athlete satisfactio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11, 133-159.
- Chelladurai, P, & Saleh, S. D. (1978) Preferred leadership in sport Canadian *Journal of Applied Sport Science*, 3, 85-97.
- Chelladurai, P. & Carron, A. V. (1978). Leadership(Monograph). Ottawa: Canadian Association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 Chelladurai, P. & Carron, A. V. (1985). Applicability to Youth Sport of the leadership of spor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3; 361-362.
- Chelladurai, P. (1978). A contingency model of leadership in athletics.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 Chelladurai, P. (1984). Discrepancy between preference and perception of leadership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athletes in varying sport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6, 27-41.
- Chirkov, V. I., & Ryan, R. M. (2001). Parent and Teacher Autonomy-Support in Russian and U.S. Adolescents Common Effects on Well-Being and Academic Motiv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5), 618-635.
- Coakley, J. J. (1990). *Sport in society: Issues and controversies*. St. Louis, Mo: Time Mirror / Mosby.
- Connell, J. P., & Wellborn, J. G. (1990). Competence autonomy and relatedness: A motivational analysis of self-system processes. In M. Gunnar & A. Sroufe(Eds.),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23(pp43-77)*. Hillsdale Nj: Erlbaum.
- Conroy, D. E., & Coatsworth, J. D. (2004). The effects of coach training on fear of failure in youth swimmers: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fro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 193-214.
- Cox, A., & Williams. L. (2008). The Roles of Perceived Teacher Support, Motivational Climate, and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in Students' Physical Education Motivation.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0, 222-239.
-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 deCharms, R. (1968). *Personal causation: The internal affective determinants of behavior*. NY: Academic press.
- Deci E.L.& Cascio, W,F(1972). Changes in intrinsic motivation as a function of negativw feedback and threats. Presented at the Eastern Psychological Addociation, Boston.
- Deci E.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NY: Planum Press.
- Deci, E. L. & Connell, J. P., & Ryan, R. E. (1989). Self-determination in a work organiz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 580-590.
- Deci, E. L. & Eghrari, H. patrick, B. C., & Leone, D. (1994). Facilitating

- internalizati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62, 119-142.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ci, E. L. (1971). Effects of externally mediated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105-115.
- Deci, E. L. (1975).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 (1987). The support of autonomy and the control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024-1037. (Reprinted in E. T. Higgins & A. W. Kruglanski (Eds.), *Motivational science: Social and personality perspectives*. 128-145,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8). Facilitating optimal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ross life's domains. *Canadian Psychology*, 49 (1), 14-23.
- Deci, E. L., & Ryan, R. M. (Eds.).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eci, E. L., Koestner, R., & Ryan, R. M. (1999). A meta-analytic review of experiments examining the effects of extrinsic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5, 627-668.
- Deci, E. L., Ryan, R. M., Gagne, M., Leone, D. R., Usunov, J., & Kornazheva, B. P. (2001). Need satisfaction, motivation, and well-being in the work organizations of a former Eastern Bloc country: A cross-cultural study of self-deter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930-942.
- Deci, E. L., Schwartz, A. L., Sheinman, L., & Ryan, R. M. (1981). An instrument to assess adult's orientations toward control versus autonomy in children. Reflections on intrinsic motivation and perceived compet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 642-650.
- Deci, E. L., Schwartz, A. L., Sheinman, L., & Ryan, R. M. (1981). An instrument to assess adult's orientations toward control versus autonomy in children. Reflections on intrinsic motivation and perceived compet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 642-650.
- Deci, E.L., Nezlek, J., & Sheinman, L., (1981). Characteristics for the rewarder and

- intrinsic motivation of the rewarde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1-10.
- Drewe, S. B. (2002).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How close is too close? *Journal of the Psychology of Sport*, 29, 174-181.
- Dwyer, J. M., & Fischer, D. G. (1990). Wrestler's perceptions of coaches' leadership as predictors of satisfaction with leadership.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1, 511-517.
- Edmunds, J., Ntoumanis, N., & Duda, J. L.(2008). Test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based teaching style intervention in the exercise domai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 375-388.
- Eys, M A, Loughead, T M, & Hardy, J. (2007). Athlete leadership dispersion and satisfaction in interactive sport team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 281- 296.
- Feltz, D. L., Chase, M. A., Hodge, C. N., Simensky, S. G., & Shi, J. (1996). Preliminary test of the model of coaching efficacy: Sources and outcome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8, Supplement, 28.
- Fisher, C. D. (1978). The effects of personal control, competence, and extrinsic reward systems on intrinsic motiv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1, 273-288.
- Flink, C., Boggiano, A. K., & Barrett, M. (1990). Controlling teaching strategies:Undermining children's self-determina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16-924
- Fortier, M. S., Vallerand, R. J., Briere, N. M, & Provencher, P. J. (1995) Competitive and recreational sport structures and gender: A test of their relationship with sport moti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6, 24-39.
- Fraser-Thomas, J., & Deakin, J. (2008). Understanding dropout and prolonged engagement in adolescent competitive sport.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 645-662.
- Gagne, M., Ryan, R. M., & Bargmann, K. (2003). Auonomy support and need satisfaction in the motivation and well-being of gymnast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5, 372-390.
- Gillet, N. & Vallerand, R. J., & Baldes, B. (2010). Influence fo coache's autonomy support on athletes' motivation and sport performance: A test of the

-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erinsic motivatio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1, 155-161.
- Gouds, M, Fox, K, Biddle, S., & Underwood, M. (1995). It Ain't What you Do, It's the Way That You Do It! Teaching Style Affects Children's Motivation in Track and Field Lessons. *The Sport Psychologist*, 9, 254-264.
- Groinick W. S. & Ryan, R. M. (1987). Autonomy in children's learning: An experimental and individual difference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90-898.
- Groi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508-517.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 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43-154.
- Guay, F., Boggiano, A. K, & Vallerand, R. J. (2001). Autonomy support, intrinsic motivation, and perceived compet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linka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643-650.
- Guay, F., Senecal, C., Gauthier, L., &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50, 165-177.
- Hagger, M. S. Culverhous, T., Chazisarantis, N. L. D., Barkoukis, V., Wang, C. K. J., & Baranowski, J. (2005). Perceived autonomy support in physical education and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A cross-cultural evaluation of the trans-contextual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 287-301.
- Hagger, M. S. Culverhouse, T., Chatzisarantis, N. L. D., Biddle, S. J. H. (2003). The processes by which perceived autonomy support in physical education promotes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intentions and behavior: A trans contextual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4), 784-795.
- Hagger, M. S., Chatzisarantis, N. L. D., Barkoukis, V., Wang, C. K. J., Baranowski, J. (2005). Perceived autonomy support in physical education and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A cross-cultural evaluation of the

- trans-contextual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 287-301.
- Harackiewicz, J. (1979). The effects of reward contingency and performance feedback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352-1363.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of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inde, R. A. (1997). Describing relationship. In A. E. Auhagen & M. Salish (Eds), *The diversity of human relationships* (pp. 7-3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m, H. L., Duda, J. L., & Miller, A. (1993). Correlates of goal orientation among young athletes. *Pediatric Exercise Science*, 5, 168-176.
- Horne, T., & Carron, A. V. (1985). Compatibility in coach-athlete relationship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7, 137-149.
- Jackson, S. A. & Mash, H. W.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optimal experience: The flow state scal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8, 17-35.
- Jordan, J., Kaplan, A., Miller, J. b., Stiver, I. P., & Surrey, J. (1991). *women's growth in connection: Writings from the Stone Center*. New York: Guilford press.
- Jowett, S, & Cockerill, I M (2003) Olympic medalists' perspective of the athletecoach relationship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4, 313-331.
- Jowett, S, & Ntoumanis, N. (2004)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Scand J Med Sci Sport*, 14, 245-257.
- Jowett, S, (2008). What makes coaches tick? The impact of coaches'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es on their own satisfaction and that of their athletes. *Scand J Med Sci Sport*, 18, 664-673.
- Jowett, S. (2003) When the 'honeymoon' is over: A case study of a coach-athlete dyad in crisis *The Sport Psychologist*, 17, 444-460.
- Jowett, S. (2005). On enhancing and repaining the coach - athlete relationship. In S. Jowett & M. Jones(Eds.), *the psychology of coaching*(pp. 14-26). Leicester: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 Jowett, S. Paull G. & Pensgaard, A. M. (2005). Coach-athlete relationship. In J.

- Taylor & G. S. Wilson, Applying sport psychology: Four perspectives. 153-170.
- Jowett, S., & Timson-Katchis, M. (2005). Social networks in the sport context: the influences of parents on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The sport Psychologist*, 19, 267-289.
- Jowett, S., & Chaundy, V. (2004). An investigation into the impact of coach leadership and coach-athlete relationship on group cohesion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 203-311.
- Jowett, S., & Clark-Carter, D. (2002). Perceptions of empathic accuracy and assumed similarity in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 Jowett, S., & Cockerill, I. M. (2002). Incompatibility in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In I.M. Cockerill(Ed.), *Solutions in sport psychology*(pp.16-31). London: Thomson Learning.
- Jowett, S., & Meek, G. A. (2000).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in married couples: An exploratory content analysis *The Sport Psychologist*, 14, 157-175.
- Jowett, S., & Ntoumanis, N. (2004).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CART-Q):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14, 157-175.
- Kavussanu, M., & Robert, J. C. (1996). Motivation in physical activity contexts: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to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8, 264-280
- Kelley, H. H. & Thibaut, J. W.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A theory of interdependence*. Canada: Wiley.
- Kennedy, S., Goggin, K., & Nollen, N. (2004). Adherence to HIV Medications: Utility of the Theory of Self-Determin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5), 611-928.
- Kiesler, D. J. (1983). The 1982 interpersonal circle: A taxonomy for complementarity in human transaction *Psychological Review*, 90, 185-214.
- Kiesler, D. J. (1997).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research and personality,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New York: Wiley.
- Lafreniere, L Jowett, S. & Vallerand, J. Carbonneau N. (2010). Passion for

- coaching and the quality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The mediating role of coaching behavior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Sciences*, Loughborough university, UK, 1-9.
- Lafreniere, M. A., Jowett, S., Vallerand, R. J., Donahue, E. G., & Lorimer, R. (2008). Passion in sport: on the quality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30, 541-560.
- LaVoi, N. M. (2004). Dimensions of closeness and conflict in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pplied Sport Psychology, Minneapolis, MN.
- Lim, B. S., & Wang, C. K., (2009). Perceived autonomy support, behavioural regulations in Physical Education. *Psychology of Sport Exercise*, 10, 52-60.
- Loughead, T. M., & Carron, A. V. (2004). The mediating role of cohesion in the leader behavior satisfaction relationship.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5, 355-371.
- Mageau, G. A., & Vallerand, R. J. (2003).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Sport Sciences*, 21, 883-904.
- McMillin, C. J. (1990). The relationship of athlete self-perceptions and athlete perceptions of leader behaviors to athlete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Miller, J.B., & Stiver, I. P. (1997). *The healing connection: How women form relationships in therapy and in life*. Boston, MA: Beacon press.
- Miller, P. S. & Kerr, G. A. (2002). Conceptualising excellence: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 140-153.
- Miserandino, M. (1996) Children who do well in school: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ceived competence and autonomy in above-average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 203-214.
- Montgomery, B. M., & Baxter, L. A. (1998). Dialogism and relational dialectics. In B. M. Montgomery & L. A. Baxter (Eds), *Dialectical approaches to studying personal relationship* (pp. 155-184). London: Erlbaum.
- Mouratidis, M., Vansteenkiste, M., Lens, W., & Sideridis, G. (2008). The mediating role of positive feedback in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Evidence for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0, 240-268.

- Newcomb, T. M. (1953). An approach to the study of communicative acts. *psychological Review*, 60, 393-404..
- Ntoumanis, N. (2005). A prospective study of participation in optional school physical education us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framework.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 444-454.
- Osbaldiston, R. & Sheldon, K. M. (2003). Promoting internalized motiva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A prospective study of environmental goal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 349-357.
- Papaioannou, A. G. & Ampatzoglou, G. A. & Kalogianis, P. K. & Sagovits, A. (2008). Social agents, achievement goal,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youth sport.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 122-141.
- Pelletier, L. G., Fortier, M. S., Vallerand, R. J., & Briere, N. M. (2001). Associations among perceived autonomy support, forms of self-regulation, and persistence: A prospective study. *Motivation and Emotion*, 25, 279-306.
- Pelletier, L. G., Fortier, M. S., Vallerand, R. J., Tuson, K. M. Briere, N. M., & Balis, M. S. (1995). Toward a new measure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in sports: The Sport Motivation Scale(SM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7, 35-53.
- Philippe, R A, & Seiler, R (2006) Closeness, co-orientation and complementarity in coach-athlete relationships: What male swimmers say about their male coach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7, 159- 171.
- Poczwadowski, A, Barott, J E, & Henschen, K. P. (2002). The athlete and coach: Their relationship and its meaning. Results of an interpre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33, 116-140.
- Poczwadowski, A, Barott, J E, & Jowett, S. (2006) Diversifying approaches to research on athlete-coach relationship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7, 125- 142.
- Poczwadowski, A. (1997) Athletes and coaches: An exploration of their relationship and its mea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 Salt Lake City.
- Poczwadowski, A., Barott, J. E., & Henschen, K. P. (2000, October 19). The influence of team dynamics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female

- gymnasts and their coaches: A qualitative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AAASP 15th Annual Convention, Nashville, Tennessee.
- Poczwardowski, A., Hanechen, K. P., & Barott, J. (1998, August 13). Relationship Issues in sports: A challenge for applied sport psychology at the threshold of the Third Millennium Paper presented at 24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pplied Psychology, San Francisco.
- Poczwardowski, A., Henschen, K. P., & Barott, J. (2001, October 4). Phases and stages in athlete-coach relationship: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a female college gymnastics team. Paper presented at AAASP at AAASP 16th Annual Convention, Orlando, Florida.
- Reeve, J. (2002). Self-determination theory applied to educational settings. In E. L. Deci and R. M. Ryan(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pp. 183-204).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einboth, M., Duda, J. L., & Ntoumanis, N. (2004). Dimensions of coaching behavior, need satisfaction, and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fare of young athletes. *Motivation and Emotion*, 28(3), 297-313.
- Riemer, H. A., & Chelladurai, P. (1995). Leadership and satisfaction in athletic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7, 276-293.
- Riemer, H. A., & Chelladurai, P. (1998). Development of the Athlete Satisfaction Questionnaire(ASQ).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0, 127-156.
- Roberts, G. C. (1992).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Conceptual constraints and conceptual convergence In G. C. Roberts (Ed),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pp. 3-30).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Rosenblatt, P. C. (1977). Needed research on commitment in marriage. In G. Levinger & H. L. Rausch (Eds). *Close relationships: Perspectives on the meaning of intimacy*(pp. 73-86). Amherst, M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Rutten, E. A., Dekovic, M., Stams, J. M., Schuengel, C., Hoeksma, J. B., & Biesta, G. J. J. (2008). On-and off-field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 in adolescent soccer players: A multileve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31, 371-387.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Ed),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7). Active human nature: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sport, exercise, and health. In M.S.Hagger & N. L. D. Chatzisarantis (Eds)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exercise and sport(pp. 1-19).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Ryan R. M. & Grolnick, W. S (1986) Origins and pawns in the classroom: Self-report and projective assessmen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percep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0-558.
- Ryan R. M. Rigby, S., & King, K. (1993). Two types of religious internalization and their relations to religiou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586-596.
- Ryan, R. M. (1982). Control and information in the intrapersonal sphere: An extension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50-461.
- Ryan, R. M.(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 397-427.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Ryan, R. M., connell, J. P., & Groineor, W .S. (1992). When achievement is not intrinsically motivated: A theory and assessment of self-regulation in school. In, A, K, Boggiano & T. S. Pittman (Eds), Achievement and motivation: A social-developmental perspective(pp. 167-188).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liesman, E. S. (1987). Relationship between the congruence of preferred and actual leader behavior and subordinate satisfaction with leadership. *Journal of Sport Behavior*, 10(3), 157-166.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Freeman.
- Sheldon, J., & Kasser, T. (1995). Coherence and congruence: Two aspects of per-sonality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31-543.
- Shepherd, D/ J., & Lee, B., & Kerr, J. H. (2006). Reversal theory: A Suggested Way forward for an improved understanding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port,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7, 143-157.
- Shorts, D, S. (2005). Essay: Role of the coach in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Journal Medicine and Sport*, 366, 529-530.
- Skinner, B. F. (1953). *Science and human behavior*. New York: Macmillan.
- Smith, A., Ntoumanis, N., & Duda J.(2010). An Investigation of Coach Behaviors, Goal Behaviors, Goal Motives, and Implementation Intentions as Predictors of Well-Being in Sport.
- Standage, M. & Duda, J. L. & Ntoumanis, N. (2003). Predicting motivational regulations in physical education: the interplay between dispositional goal orientations motivational climate and perceived competence. *Journal of Sports Sciences*, 21, 631-647.
- Standage, M. & Duda, J. L. & Ntoumanis, N. (2005).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411-433.
- Standage, M., Gillison, F., & Treasure, D. C. (2007). Self-determination and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In M. S. Hagger, & N. L. D. Chatzisarantis (Ed.)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exercise and sport* (pp. 71-85).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Strahan, B. J. 1995). *Marriage Family and Religion*. Sydney, Australia: Adventist Institute of Family Relations.
- Sullivan, P. J., & Gee, C. J.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athletic satisfaction and intrateam communication.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1(2), 107-116.

- Summers, R. J. (1983). *A study of leadership in a sport set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 Tammen, V. V. (1996). The affects of coach and football player goal orientations and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on player satisfaction and commitmen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8, Supplement, S83.
- Unruh, S., Unruh, N., Moorman, M., & Seasha, S. (2005). Collegiate student-athletes' satisfaction with athletic trainers. *Journal of Athletic Training*, 40(1), 52-55.
- Utman, C. H. (1997). Performance effects of motivational state: A meta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 170-182.
- Vallerand R. J. & Bissonnette, R. (1992)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al styles as predictors of behavior: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60, 599-620.
- Vallerand R. J., & Reid, G. (1984). On the Causal effects of perceived competence on intrinsic motivation A test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Sport Psychology*. 6, 94-102
- Vallerand, R. J. & Bessonnette, R. (1992). Intrinsic, Exdtrinsic and Amotivational Styles as Predictors of Behavior: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60, 599-620.
- Vallerand, R. J. & Fortier, M. S. (1998). Measure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sport and physical activity: A review and critique. In J. L. Duda (Ed.) *Advance in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measurement* (pp. 81-101). morgan town, WV; Fitness Information Technology.
- Vallerand, R. J. (1997). Toward a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9, pp. 271-360). New York: Academic Press.
- Vallerand, R. J., Fortier, M. S., Daoust, H., & Blais, M. R. (1995) A motivational analysis of school dropou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Quebec at Montreal, Canada.
- Vazou, S. & Ntoumanis, N. & Duda, J. L. (2006). Predicting young athletes' motivational indices as a function of their perceptions of the coach-and peer-created climat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7, 215-233.
- Vierling, K. K., Standage, M., & Treasure, D. C. (2007). Predicting attitudes and

- physical activity in an 'at-risk' minority youth sample: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 795-817.
- Vlachopoulos, S. P., Karageorghis, C. I., & Terry, P. C. (2000). Motivation profiles in spor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1(4), 387-397.
- Weiner, B. (1986). An attribution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Springer series in Social Psychology*, 92(4), 227-242.
- Weiss, M. R., & Friedrich, W. D. (1986). The influence of leader behaviors, coach attributes, and institutional variables on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collegiate basketball team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 332-346.
- Westre, K., Weiss, M.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ing behaviors and group cohesion in high school football teams. *The Sport Psychology*, 5, 41-54.
- Widmeyer, W. N., & Williams, J. M. (1991). Predicting Cohesion in coach in teams. *Small Group Research*, 22, 548-557.
- Williams, G. C., & Deci, E. L. (1996). Internalization of biopsychosocial values by medical student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67-779.
- Williams, G. C., Freedman, Z. R., & Deci, E. L. (1998). Supporting autonomy to motivate glucose control in patients with diabetes. *Diabetes Care*, 21, 1644-1651.
- Williams, G. C., Gagne, M., Ryan, R. M., & Deci, E. L. (2002). Supporting autonomy to motivate smoking cessation: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Health Psychology*, 21, 40-50.
- Williams, G. C., Grow, V. M., Freedman, Z. R., Ryan, R. M., & Deci, E. L. (1996). Motivational predictors of weight loss and weight-loss mainten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5-126.
- Wilson, P. M., & Rodgers, W. M.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motives and physical self-esteem in female exercise participants: An application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Applied Biobehavioral Research*, 7, 30-43.
- Wilson, P. M., & Rodgers, W. 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utonomy support, exercise regulations and behavioral intentions in wome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5, 229-242.

Wilson, P. M., & Rodgers, W. M., & Fraser, S. N. (2002). Cross-validation of the revised motivation for physical activity measure in active women.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3, 471-477.

Wylleman, (20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sport: Uncharted territory in sport Psychology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xercise & Sport Psychology*, 31, 555-572.



부록 1. 예비 질문지의 기술통계 통계량과 신뢰도 검정 결과

문항	M±SD	왜도	첨도	문항-전체 상관계수	문항제거시내 적일관성
<b>친근감</b>					
Cronbach's $\alpha$ =.885					
c1.	5.96±1.76	-1.176	.180	.756	.827
c2.	5.94±1.79	-1.153	.127	.757	.822
c3.	5.84±1.72	-1.149	.342	.658	.822
c4.	5.85±1.72	-1.175	.286	.593	.823
<b>헌신</b>					
Cronbach's $\alpha$ =.858					
c1.	4.82±1.51	1.244	.492	.299	.816
c2.	5.01±2.09	-1.193	.544	.289	.820
c3.	4.93±2.08	-1.174	.510	.277	.817
<b>상보성</b>					
Cronbach's $\alpha$ =.882					
c1.	5.92±2.14	-1.177	-.235	.263	.826
c2.	5.58±2.12	-1.154	-.038	.326	.835
c3.	5.52±1.91	-1.151	.271	.313	.839
c4.	5.54±1.88	-1.155	.305	.302	.839

## 부록 2. 예비 질문지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	요인적재치			문항-전체 상관계수	공통분
	1	2	3		
<b>친근감</b>					
c2. 나는 코치를 믿는다.	.950	.079	.024	.757	.852
c4. 나는 코치의 관리 하에서 훈련지도에 만족한다.	.833	.001	.062	.593	.658
c1. 나는 코치를 좋아한다.	.831	.108	.021	.757	.765
c3. 나는 코치를 존중한다.	.798	.010	.121	.658	.730
<b>헌신</b>					
c2. 나는 코치와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이해한다.	.016	.903	.003	.289	.809
c1. 나는 코치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001	.885	.008	.299	.782
c3. 나는 코치의 희생(헌신)에 감사해 한다.	.024	.855	.002	.277	.743
<b>상보성</b>					
c1. 나는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나의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있다.	.058	.049	.927	.263	.817
c2. 나는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008	.034	.917	.326	.830
c4. 나는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호의적인 자세를 취한다.	.018	.095	.812	.302	.670
c3. 나는 지도 받을 때 노력한다.	.125	.016	.763	.313	.667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성 측정=.817	고유치	4.404	2.332	1.588	
Bartlett의 구형검정=542.282 df=55, p=.000	공통분산%	40.039	21.197	14.438	
	누적분산	40.039	61.237	75.675	
	Cronbach's Alpha	.885	.855	.882	

### 부록 3. 개방형 설문조사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n=109)

하위요인	응답내용	사례수	
친근감	코치를 좋아함	9	
	코치를 신뢰함	10	
	코치를 존중함	5	
	“여러분은 코치-선수관계에서 코치의 신뢰감, 존중, 감사의 친근감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치가 나쁜 도와줄 때 고맙게 생각함	3
	코치의 훈련지도에 감사해함	10	
헌신	코치와 관계성이 좋음	10	
	코치의 희생에 감사함	9	
	“여러분은 코치-선수관계에서 코치의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대인간의 생각과 의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치가 있어 운동할 수 있음	4
	코치와의 의사존중	2	
	코치와의 친근함	1	
상보성	코치에게 지도받을 때 편안함	12	
	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그의 노력에 전력을 기울임	11	
	“여러분은 코치-선수관계에서 코치의 정서반응, 편안함, 친절의 행동과 협력관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최선을 다함	6
	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쉽게 느낌	7	
	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흥미를 느낌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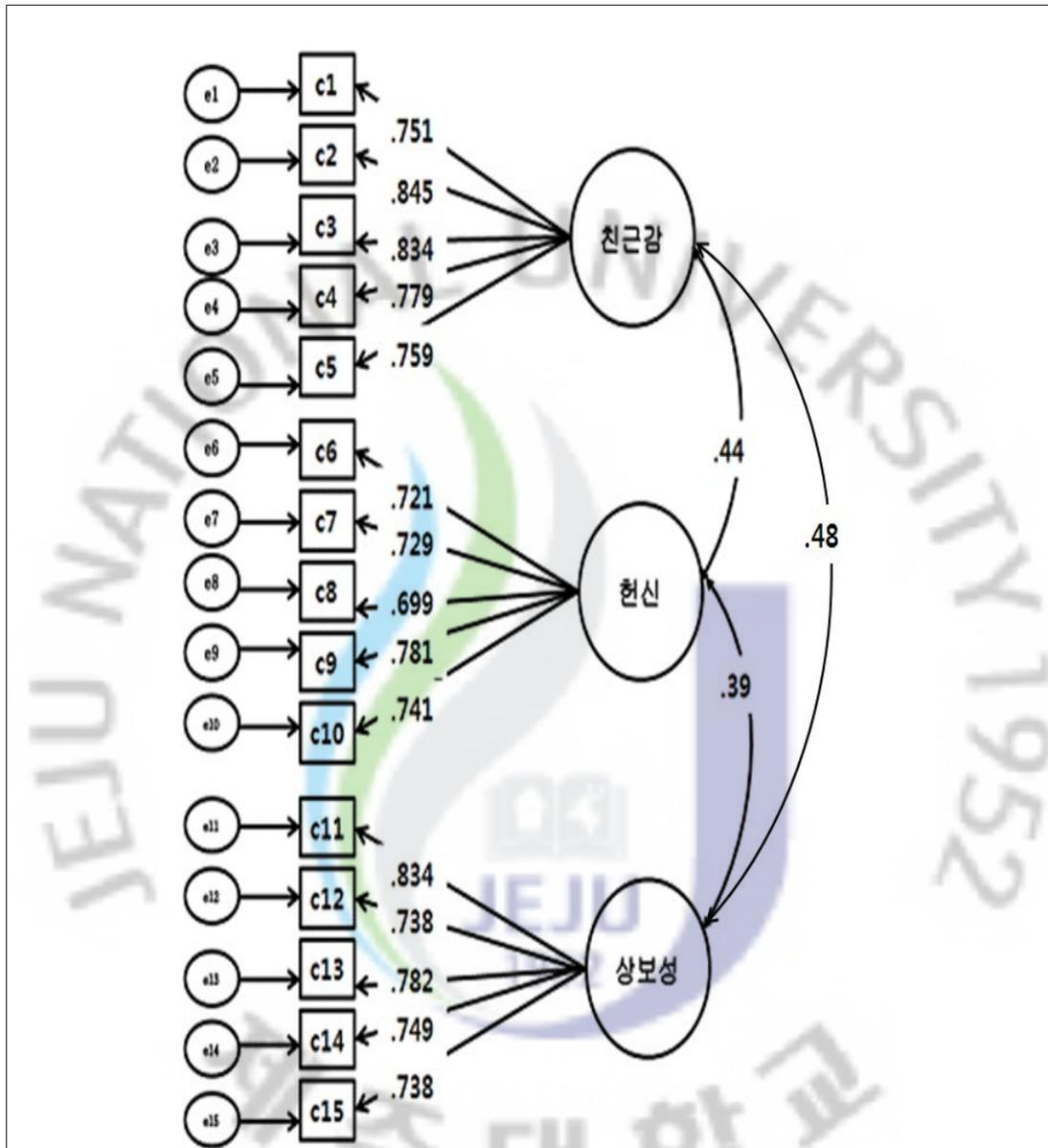
부록 4. 최종 질문지의 기술통계치와 문항-전체 상관계수(n=210명)

문항	M	SD	왜도	첨도
<b>친근감</b>				
c1. 나는 코치를 좋아한다.	5.74	1.60	-1.083	-0.455
c2. 나는 코치를 신뢰한다.	5.64	1.64	-0.966	-0.675
c3. 나는 코치를 존중한다.	5.65	1.62	-0.990	-0.648
c4. 나는 코치가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 쏟는 노력을 고맙게 생각한다.	5.67	1.61	-1.055	-0.472
c5. 나는 코치가 열심히 훈련(지도)하는 모습에 매우 만족한다.	5.48	1.59	-0.954	-0.637
<b>헌신</b>				
c6. 나는 코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4.65	1.91	-1.132	0.995
c7. 나는 코치에게 최선(헌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62	2.20	-1.103	-0.889
c8. 나의 코치가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4.69	1.21	-1.162	-0.779
c9. 나는 코치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4.75	1.07	-1.122	-0.879
c10. 나는 코치와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이해한다.	4.44	1.10	-1.127	-0.895
<b>상보성</b>				
c11. 나는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5.14	2.18	-1.138	-0.593
c12. 나는 우리 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그의 노력에 전력을 기울인다.	4.98	1.99	-1.151	-0.655
c13. 나는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나의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있다.	5.04	1.95	-1.123	-0.488
c14. 나는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호의적인 자세를 취한다.	5.06	1.99	-1.189	-0.504
c15. 나는 우리코치 에게 지도 받을 때 집중하고 노력한다.	5.00	1.86	-1.155	-0.453

부록 5. 코치-선수관계 최종 질문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문항	요인적재치			공통분
	1	2	3	
<b>친근감</b>				
c2. 나는 코치를 신뢰한다.	.949	.026	.042	.858
c3. 나는 코치를 존중한다.	.946	.017	.015	.895
c4. 나는 코치가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 쏟는 노력을 고맙게 생각한다.	.940	.003	.014	.895
c5. 나는 코치가 열심히 훈련(지도)하는 모습에 매우 만족한다.	.920	.008	.008	.846
c1. 나는 코치를 좋아한다.	.904	.059	.018	.869
<b>헌신</b>				
c8. 나의 코치가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019	.969	.027	.916
c9. 나는 코치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003	.967	.007	.930
c7. 나는 코치에게 최선(헌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021	.964	.004	.934
c6. 나는 코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031	.951	.012	.909
c10. 나는 코치와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이해한다.	.028	.863	.053	.770
<b>상보성</b>				
c13.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나의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013	.030	.964	.910
c11.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040	.010	.964	.904
c12. 우리 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그의 노력에 전력을 기울인다.	.020	.002	.942	.901
c15. 우리코치 에게 지도 받을 때 집중하고 노력한다.	.016	.006	.935	.883
c14.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호의적인 자세를 취한다.	.027	.030	.931	.899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성 측정=.895	고유치	7.144	3.672	2.504
Bartlett의 구형검정=4299.736 df=105, p=.000	공통분산%	47.627	24.478	16.691
	누적분산	47.627	72.105	88.795
	Cronbach's Alpha	.96	.96	.97

부록 6. 코치-선수관계 질문지 최종 측정모형의 경로도형



부록 7. 연구 1의 군집프로파일에 따른 잠재변인 차이

	군집 1 a(긍정 집단) (n=121)			군집 2 b(부정 집단) (n=92)			군집 3 c(보통 집단) (n=113)			F(2,258)	Eta <sup>2</sup>	Scheffe
	M	SD	Z	M	SD	Z	M	SD	Z			
친근감	5.38	.95	.64	2.36	.91	-1.51	4.17	.60	-.29	235.46**	.63	
헌신	5.26	.77	.78	2.29	1.10	-1.62	4.05	.91	-.23	424.16**	.52	
상보성	5.98	.83	.81	2.23	.87	-1.56	4.33	.79	-.31	409.75**	.64	
과제성향	3.84	.94	.59	2.74	.92	-.58	3.46	.63	-.08	43.26*	.21	
자아성향	3.74	.76	.74	2.68	.76	-.42	3.35	.56	-.14	14.35*	.15	a>c>b
과제수행 만족	4.02	.91	.88	3.23	.69	-.16	3.48	.70	-.09	38.15*	.16	
사회적 상호작용 만족	4.13	.93	.90	3.38	1.09	-.21	3.56	1.32	-.02	410.15*	.19	
코치지도성 만족	4.21	.97	.60	3.44	.70	-.08	3.63	.72	-.20	39.29*	.22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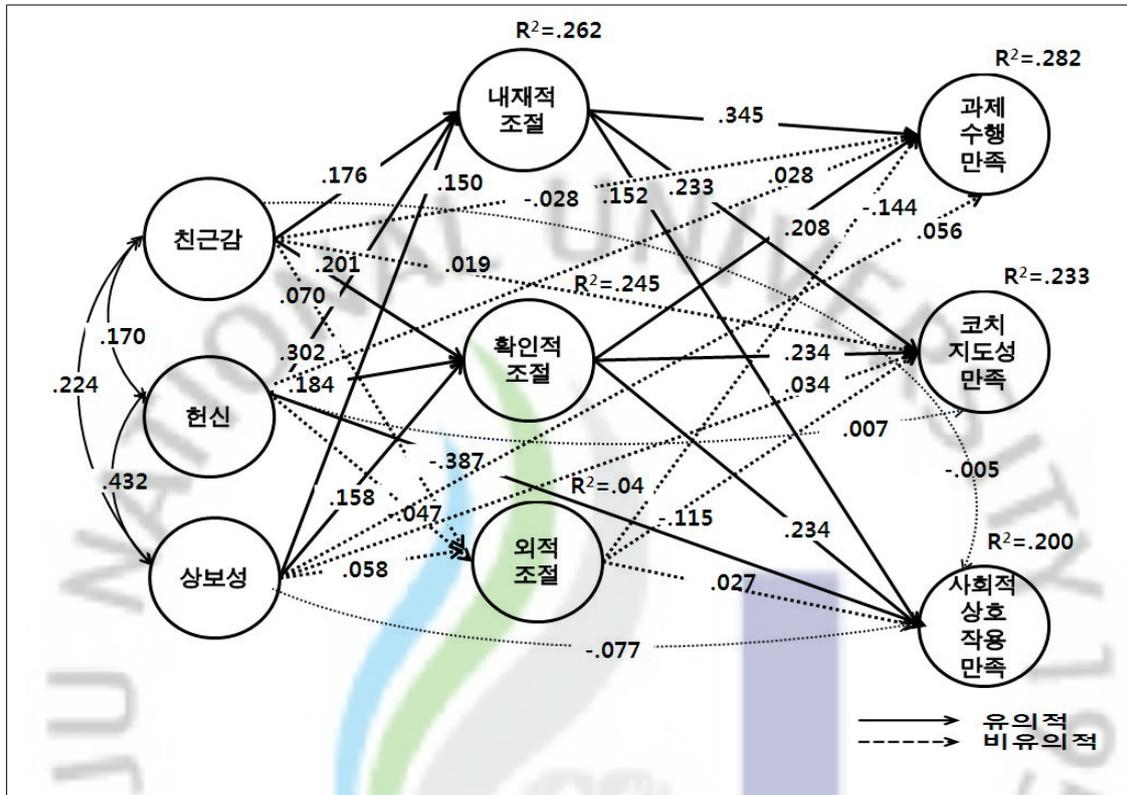
\*평균±표준편차

\*abc는 scheffe' 사후검정 결과로서 문자가 서로 다르면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

부록 8. 연구 2의 부분매개모형의 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간의 잠재변인들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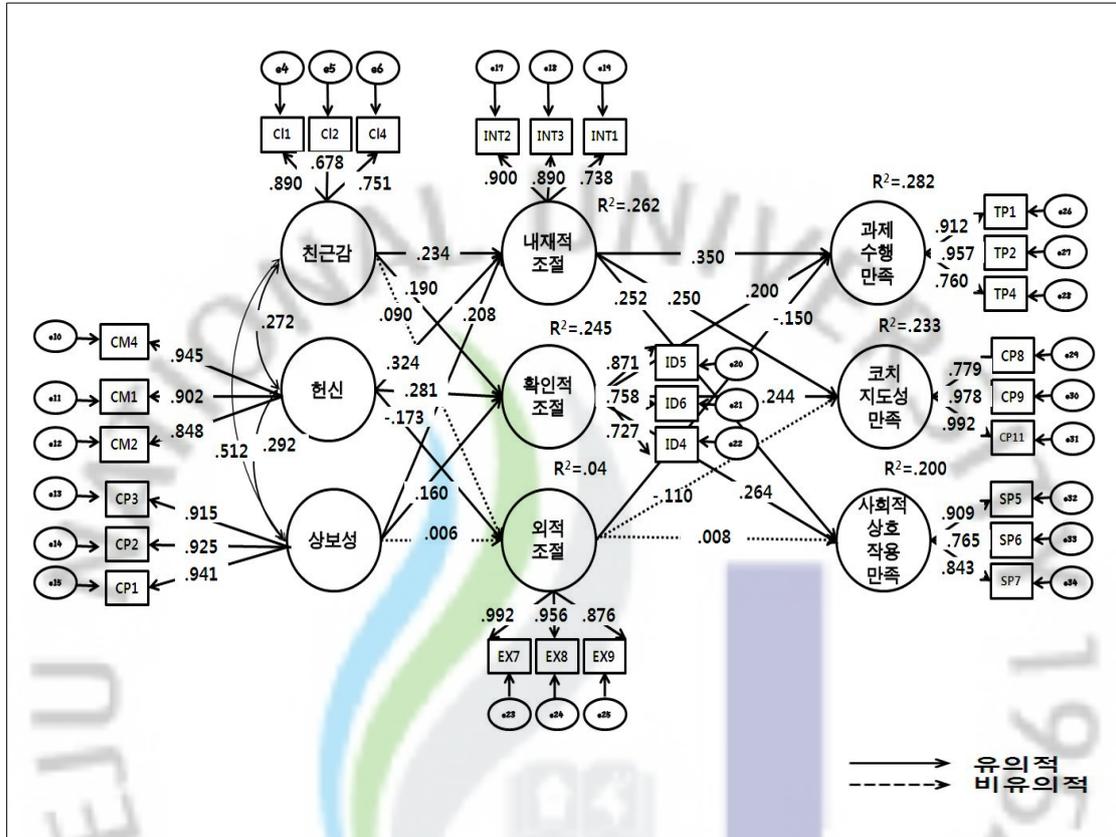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p	표준화 추정치
내재적 조절←친근감	.177	.064	2.768	.006	.176
확인적 조절←친근감	.216	.075	2.893	.004	.201
외적 조절←친근감	.099	.092	1.075	.282	.070
내재적 조절←헌신	.354	.069	5.133	.000	.302
확인적 조절←헌신	.231	.077	2.999	.003	.184
외적 조절←헌신	-.077	.095	-.811	.418	-.047
내재적 조절←상보성	.144	.048	2.399	.016	.150
확인적 조절←상보성	.275	.173	1.592	.002	.158
외적 조절←상보성	.064	.069	.935	.351	.058
과제수행만족←내재적 조절	.279	.052	5.315	.000	.345
과제수행만족←확인적 조절	.157	.046	3.393	.001	.208
과제수행만족←외적 조절	-.083	.030	-2.746	.060	-.144
코치지도성만족←내재적 조절	.183	.053	3.473	.001	.233
코치지도성만족←확인적 조절	.172	.048	3.590	.000	.234
코치지도성만족←외적 조절	-.064	.031	-2.057	.080	-.115
사회적 상호작용만족←내재적 조절	.279	.052	5.315	.000	.152
사회적 상호작용만족←확인적 조절	.161	.043	3.718	.000	.234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외적 조절	.016	.028	.564	.573	.027
과제수행만족←친근감	-.066	.051	-1.297	.195	-.082
과제수행만족←헌신	.027	.055	.484	.629	.028
과제수행만족←상보성	.036	.037	.956	.339	.056
코치지도성만족←친근감	.015	.053	.292	.770	.019
코치지도성만족←헌신	.007	.057	.116	.907	.007
코치지도성만족←상보성	.021	.039	.549	.583	.034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친근감	-.004	.048	-.084	.933	-.005
사회적 상호작용만족←헌신	.370	.053	6.981	.000	-.387
사회적 상호작용만족←상보성	-.049	.035	-1.398	.162	-.077

부록 9. 연구 2의 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 동기 및 운동만족간의 경로도형<부분매개모형>



부록 10. 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 동기, 운동만족간의 경로도형

<연구모형의 경로도형>



## 부록 11. 연구 1의 질문지

--	--	--

###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의견조사

(- 우리나라 대학교 운동부(개인/팀 단체)를 대상으로 -)

###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요인(동기, 몰입, 지속의도, 운동만족)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에 위한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의 신상에 비밀은 보장됩니다. 질문 내용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오니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응답에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구자는 귀하의 건강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 박 병 훈

\* E-mail : [parkkendo@naver.com](mailto:parkkendo@naver.com) \*Tel 064)799-2720

I. 다음 질문은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귀하의 경력은?  
① 3년 미만 ② 5년 미만 ③ 7년 미만 ④ 10년 이상 ⑤ 기타( )
4. 귀하의 지역은(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읍)
5. 귀하의 해당 선수는? ① 주전 ② 비주전
6. 귀하의 운동 종목은? ( \_\_\_\_\_ 종목)
7. 귀하의 운동시간은? 하루 \_\_\_\_\_ 시간
8. 귀하의 입상실적은? ① 있다 ② 없다 ⇨ **있다면** \_\_\_\_\_ 회(2009-2010년 기준)  
① 우승/준우승(1위,2위) ② 4강 이내 입상(3위,4위) ③ 8강 이내 입상(5위, 6위, 7위, 8위) ④ 입상실적 없음

II. 다음 문항들은 귀하가 느끼는 **코치-선수관계**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코치와의 관계에 가장 일치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또는 '✓'표를 해주십시오. ■ **코치-선수관계(직접적 관점에서의 자기인식 질문)**

질문 내용	체크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 <b>친근감</b> : 대인간 신뢰감, 존중, 감사 등								
1. 나는 코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코치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코치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코치가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 쏟는 노력을 고맙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코치가 열심히 훈련(지도)하는 모습에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b>헌신</b> :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대인간 생각과 의도								
1. 나는 코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코치에게 최선(헌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의 운동경력에 코치가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코치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코치와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b>상보성</b> (정서반응, 편안함, 친절 등의 대인간의 행동과 협력 관계)								
1. 나는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우리 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그의 노력에 전력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우리 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호의적인 자세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집중하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I.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운동 동기**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귀하의 운동 동기와 일치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또는 '✓'표를 해주십시오. ☞ **귀하는 현재 왜 운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동기(행동을 촉발시키고 유지 및 지속시키는 내적인 원동력: 내재적 동기)**

질문 내용	체크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운동 하는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운동에 몰두하는 즐거움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운동은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운동은 나에게 건강과 기술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운동은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운동만족**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귀하의 운동만족과 일치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또는 '✓'표를 해주십시오.

■ **운동만족(선수 생활에 대한 감정, 정서 반응의 운동만족)**

질문 내용	체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팀에서 나의 운동기술을 개발하는데 제공 받았던 기회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금까지 올해 경기에서 발휘한 운동수행 능력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올해 경기에서 발휘한 전술 수행능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올해 경기에서 발휘한 경기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팀 성원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팀 성원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팀의 코치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팀 코치의 지도방법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팀 코치의 기술지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코치가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코치의 전술지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운동지속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귀하의 운동지속의 도와 일치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또는 '✓'표를 해주십시오.

질문 내용	체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앞으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의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운동을 계속할 의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주위 사람들(가족, 친구 등)이 운동을 하지 말 라고 해도 계속할 의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과도한 훈련이 힘들어서 운동을 계속할 의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운동몰입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귀하의 운동몰입과 일치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또는 '✓'표를 해주십시오.

질문 내용	체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모든 관심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완전히 집중 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운동 시 완전하게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운동 시 동작과 의식 등을 통제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부록 12. 연구 2의 질문지

--	--	--

###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의견조사

(- 우리나라 실업 운동부(개인/팀 단체)를 대상으로 -)

###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요인(자기조절동기, 운동만족)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에 위한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의 신상에 비밀은 보장됩니다. 질문 내용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오니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응답에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구자는 귀하의 건강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 박 병 훈

\* E-mail : [parkkendo@naver.com](mailto:parkkendo@naver.com) \*Tel 064)799-2720

I. 다음 질문은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팀 경력은?  
① 1년차 ② 2년차 ③ 3년차 ④ 4년차 ⑤ 5년차 ⑥ 6년차 이상 ⑦ 기타(                      )
3. 귀하의 운동경력은?  
① 5년 미만 ② 7년 미만 ③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⑤ 기타(                      )
4. 귀하의 지역은(                      시.도                      시.군.구                      동.읍)
5. 귀하의 해당 선수는? ① 주전                      ② 비주전
6. 귀하의 운동 종목은? (                      종목)
7. 귀하의 운동시간은? 하루                      시간
8. 귀하의 입상실적은? ① 있다 ② 없다 ⇨ **있다면**                      회(2009-2010년 기준)  
① 우승/준우승(1위,2위) ② 4강 이내 입상(3위,4위) ③ 8강 이내 입상(5위, 6위, 7위, 8위) ④ 입상실적 없음

II. 다음 문항들은 귀하가 느끼는 코치-선수관계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코치와의 관계에 가장 일치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또는 '✓'표를 해주십시오. ■ 코치-선수관계(직접적 관점에서의 자기인식 질문)

질문 내용	체크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친근감: 대인간 신뢰감, 존중, 감사 등								
1. 나는 코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코치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코치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코치가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 쏟는 노력을 고맙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코치가 열심히 훈련(지도)하는 모습에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헌신: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대인간 생각과 의도								
6. 나는 코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코치에게 최선(헌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의 운동경력에 코치가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코치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코치와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상보성(정서반응, 편안함, 친절 등의 대인간의 행동과 협력 관계)								
11. 나는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우리 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그의 노력에 전력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우리 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호의적인 자세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우리코치에게 지도 받을 때 집중하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Ⅲ.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운동 동기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귀하의 운동 동기와 일치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또는 '✓'표를 해주십시오. ☞ 귀하는 현재 왜 운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동기(행동을 촉발시키고 유지 및 지속시키는 내적인 원동력: 내재적 조절, 확인적 조절, 외적 조절)

질문 내용	체크☞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운동 하는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운동에 몰두하는 즐거움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운동은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운동은 나에게 건강과 기술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운동은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운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주변 사람들이 운동을 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동료들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운동만족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귀하의 운동만족과 일치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또는 '✓'표를 해주십시오.

■ 운동만족(선수 생활에 대한 감정, 정서 반응의 운동만족)

질문 내용	체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팀에서 나의 운동기술을 개발하는데 제공 받았던 기회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금까지 올해 경기에서 발휘한 운동수행 능력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올해 경기에서 발휘한 전술 수행능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올해 경기에서 발휘한 경기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팀 성원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팀 성원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팀의 코치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팀 코치의 지도방법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팀 코치의 기술지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코치가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코치의 전술지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감사의 글

제주대학교에서 지난 10년간 학사, 석사, 박사학위의 과정의 길은 저에게 있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박사과정은 부족한 저에게 학문과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깨닫는 기회였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너무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움과 격려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빌어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부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학문의 길을 밝은 등불로 지도해주신 너무나도 포근하시고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임상용 지도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겸손하고 더욱 노력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칭찬과 사랑으로 힘을 주시고 진심어린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이창준 교수님, 조교생활을 할 때 잦은 실수를 해도 항상 웃는 모습으로 따뜻한 격려와 배려로 감싸주신 류재청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도학생도 아닌 부족한 저를 위해 논문계획서부터 논문심사완료까지 많은 질책과 조언 그리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장 양명환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해주신 체육학부 김성찬 교수님, 오만원 교수님, 남사웅 교수님, 이세형 교수님, 김영표 교수님, 제갈윤석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논문을 심사해주기 위해 바쁘신 시간을 쪼개 먼 제주까지 달려와 주신 선문대학교 한명우 교수님, 더 좋은 학위논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신 인천대학교 성장훈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고 소중한 논문심사의 시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의 자료를 얻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김정준 사무처장님, 정찬식계장님, 최기창 전무이사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종목별 경기단체 전무이사님(수영, 근대5종, 태권도, 육상, 야구, 핸드볼, 축구, 농구, 배구)들, 용인대학교 김영학 교수님, 영동대학교 김민환 교수님, 오진식 선생님, 김재홍 선생님, 장진성 선생님, 허성철 선배님, 성동고등학교 안윤기 감독님, 서귀포시청 김호 선배님, 제주도청 고대휴 선배님, 남녕고등학교 강태식 선배님을 비롯한 그 외에 자료 수집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이 완성될 때 까지 많은 격려와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제주관광대학교 윤재백 학과장님, 김기윤 교수님, 김세민 교수님, 이애리 교수님과 김종수 선생님을 비롯한 동료 선생님, 논문자료수집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김주영 조교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사과정 동안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김용 선생님, 임관철 선생님, 김덕진 선생님, 신덕수 선생님, 고영호 선생님, 이종인 선생님, 양태옥 선생님, 강은수 선생님, 한관용 선생님, 김창기 선생님,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검도연합회 강상보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진 선생님을 비롯한 대학원 동료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도움을 준 스포츠심리학 연구실 김신 선생님을 비롯한 연구실 모든 선생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저에게 늘 힘이 되어준 정근, 지상, 승우, 희종, 상남, 상우, 동훈, 창호, 명환, 동진, 광철, 세진, 태민, 우진, 형훈 친구들과 만권 후배를 비롯한 오성, 경익, 승우, 상철, 문호, 영진, 상수형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것을 헌신하신 아버지, 어머니께 글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상 중에 있는데도 동생이라고 집안일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큰 형님, 형수, 정미, 정원, 공희 누나, 큰 매형, 작은 매형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애들을 맡겨도 났으신 아량으로 베풀어 주신 장인, 장모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대신하여 아내에게 많은 힘이 되어준 처제, 동서, 처남, 처남댁에게도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위과정에 있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덕한 남편을 끝까지 믿어주고 큰 힘이 되어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 지선“ 당신의 소중함과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빠의 역할 못했는데도 건강히 잘 성장해준 아들 건이와 딸 예은이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더 노력하고 전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박 병 훈 올림